hyunbulnews.com

현대불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 안면암 지도법사 지명 스님



제842호 2011년 6월 29일 수요일 (음력 5월 28일 · 불기 2555년 · 주간)

뛰는 자살률… 갈길 먼 불교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이웃종교는 상담전문가 많은데 불교계는 이제 양성 시작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 무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3월 30일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법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자살예방 활동이 시작됐다.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자살예방센터가 설립 · 운영되며, 이에 따른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불교계의 미온적이 대응으로 안타까워하는 불자들이 많다. 현재 자살예방대책에 관련된 예산들은 모두 발 빠른 기독교 몫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이제 걸음마 수준인 불교계와는 달리, 기독교계는 이미 많은 자살예방 전문 상담가를 교육 · 배출시켜, 자살예방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예 중 하나가 '생명의 전화' 이다. 생명의 전화는 365일 24시간 긴급전화 상담활동, 전문상담교육, 자살예방 운동전개, 전문사회복지사업활동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생명의 전화' 와 관련 돼있다.

한림대 철학과 오진탁 교수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가 아직도 자살예방에 대한 활동이 미비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미나·강의 등 역부족
장기적 예방교육 절실

이런 가운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이 최초로 자살예방센터 개설과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 에 나서게 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7월 6~28일 불교상담심리사,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재학생 · 졸업생, 신행상담실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자살예방 전문과 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인 선업 스님은 "기독교에서는 인력, 프로그램, 장소 등을 모두 갖춘 상황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인력을 교육시켜 왔고, 상당수가 이 일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 역시 전문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 은 이런 전문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오진탁 교수는 자살예방에 관한 불교의 활동에 대해 "불교는 많은 사찰이 있다. 경기도 안성 '묵언마을' 은 100여 명의 사람들을 자살의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많은 사찰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쉼터 역할을 해 준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수는 "다수가 자살을 하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라며 "단기적인 교육과 이벤트 성 세미나 · 강의 등은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본질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장기간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6면

이은정 기자



"한국불교 놀라워" 리처드 기어가 서울 조계사를 찾았다. 리처드 기어는 6월 21일 서울 조계사를 참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선불교' 를 주제로 환담했다. 자승 스님은 리처드 기어와 부인 캐리 로웰, 아들에게 단주와 향로, 템플스테이 옷 등을 선물했다. 관련기사 3면 사진=박재완 기자

다시 불붙은 제2 석굴암 갈등

환경 파괴 우려… 총무원은 이제사 검토중

불국사와 경주시가 제2 석굴암 건립을 재추진하자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교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제2 석굴암 건립은 2001년 경 불국사와 문화재청이 석굴암 보존 및 관람객 편의 등을 이유로 추진하던 중 유적 훼손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혀 중단된 사업이었다. 최근 경주시는 석굴암 인근에 모형 석굴암을 설립하고, 전시실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예산지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보존 및 관광객 편의
VS
환경 파괴·혈세 낭비

이에 불교와 정책(대표 영공)은 제2 석굴암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6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2 석굴암이 건립될 경우 기존 석굴암과 동일한 경애심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모독, 불교의 세속화와 상업성, 대규모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종단도 사태 파악에 나서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무원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사전에 문화재청이나 불국사가 종단과 협의한 바 없다. 현재 제2 석굴암 건립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원 법응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석가탑의 균열과 기울어짐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했다며 직접 조사한 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한 채 대규모 예산으로 모형 석굴암을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스님은 직접 조사로 발견된 문제들을 문화재청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기범 기자





선물과 응원 감사합니다.

조계종으로부터 4월 28일 구호금 등을 전달 받은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동북조선초중급학교 학교장과 학생들이 조계종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학생들은 "조계종의 선물과 응원에 감사하다"며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적어보냈다. 조동섭 기자

수도권 불심 가야산 결집

조계사-수덕사, '백제의 미소길…' 개최

내포 가야산 성역화를 위해 손잡은 조계사와 수덕사가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를 함께 추진한다. '백제의 미소길 걷기' 는 수덕사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조계사 신도 등 수도권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예년보다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하안거 반결재일인 6월 28일 옛 가야사터에서 출발해 보원사까지 5km 구간을 걸으면서 서산 마애삼존불의 성역화와 보원사 복원을 위한 뜻을 다지게 된다. 이미 수덕사 사중스님 200여명과 조계사, 호암사, 화계사, 미타사, 옥천암 등 수도권 지역 불자 400여 명의 참여가 확정돼 있다.

조계사와 수덕사는 이 밖에도 가야산 인근의 지자체인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당진군과의 직거래 장터도 추진한다.

박기범 기자

장학금 100억원 지급

동국대가 4년간 모금할 제2건학기금 목표액 1000억원의 10%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6월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의 장학금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무능 경영에 회사 망가졌다"

BBS 노조, 경영진 성토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진)은 6월 22일 총무원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이 상여금 100%와 올해 4 · 5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전형적인 '모럴 헤저드' 형 경영으로 회사를 망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 상무 선문 스님은 "체불된 임금은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社 告 | 108염주 만들기 수행 캠페인

108배는 한배 올릴 때마다 참회하여 사람이 짓는 온갖 업으로 인한 108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108염주만들기 수행법은 일심으로 108배를 부처님께 올리며, 자신이 직접 한배 절을 올릴때마다 염주알 한 알씩 꿰어 108염주를 만들면서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업장이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108염주를 만들어 보십시오.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프로그램에 적합하며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문의 :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02)2004-8213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842호 CONTENTS

현장속으로 대장경 조성 천년기념 이운행사 5



여름 특집 템플스테이&수련회 12·13



문화 한국불교미술 독일로 가다 21



여름휴가 몸과 마음 쾌청하게

참선 삼매체험 수련회 · 단기출가 단식

개산 3주년 기념 특별개방, 국민단식으로 반토막 참가비

어렵다는 참선 화두공부를 물 흐르듯이 매듭 풀듯이 길 따라 술술 익혀가는 활인선원
입재부터 회향까지 선원장 스님 직접 참선법문으로 초보에서 고참까지 공부길 인도 -

대학생
"삼매체험" 수련회 8일
단가출가 30일



문의신청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 단식의 놀라운 효과
- 바로 끊고 바로 먹고, 요요현상 제로 -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 면역력 강화, 고혈압 당뇨 체질개벽 피부미용 여드름 · 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 폐경, 생리연장)
○ 금연,금주,위장,대장,소장 등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
○ 통찰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 운명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자신감,신념증대,창의성,능력개발,성격개조
○ 우울증,신경쇠약,정서안정,공포불안,대인관계 인내심,집중력,기억력
○ 물만 마시고도 각종 난치병 ·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금강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활기회복
○ 예비감식 보식 없음. 단식부담 없음

〈특징〉
권 대학생,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없애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권 집중력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태도 전환을 갖게 됩니다.
권 사고력의 확장으로 정서, 자신감,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확고한 토대를 이룹니다.
권 참선을 통한 인생관을 확립합니다.

대학생 수련회 단기출가

수 련 명	날 짜	기 간	대 상	장 소
수 련 회	7. 4(월) - 7. 11(월)	8일	대학생	안성활인선원
단기출가	7. 4(월) - 8. 3(수)	30일		

삼매체험 수련회

수 련 명	날 짜	기 간	대 상	장 소
삼매체험수련 1차	7. 8(금) - 7. 15(금)	8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안성활인선원
삼매체험수련 2차	7.22(금) - 7.27(수)	6일		
삼매체험수련 3차	7.29(금) - 8. 5(금)	8일		
삼매체험수련 4차	8.17(수) - 8.24(수)	8일		

단 기 출 가

수 련 명	날 짜	기 간	대 상	장 소
단기출가 1차	7. 8(금) - 8. 6(토)	30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안성활인선원
단기출가 2차	7. 8(금) - 8.27(토)	50일		
단기출가 3차	7.29(금) - 8.27(토)	30일		
단기출가 4차	7.29(금) - 9.18(일)	50일		
단기출가 5차	7.29(금) - 11. 9(수)	100일		제주원명선원

2011년 9월 수련 및 단기출가 일정, 추석연휴포함
9월 9일(금) ~ 14일(수) 6일간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제주 원명선원) 안성말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빗장풀자 문턱단다

총선 앞두고 셈법 다른 여야 앞다퉈 자승 스님 방문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불심잡기에 적극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단이 최근 대정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빗장을 풀자 반값 등록금 등 각 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대립이 심각한 정치권이 불교계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6월 17일 민주노동당의 자승 스님 예방을 시작으로 20일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와 민주당, 21일 한나라당 등이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당 활동과 민생안정에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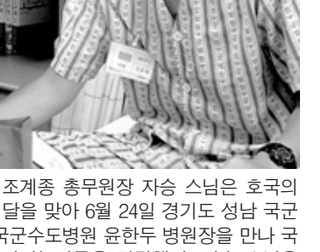
민주노동당은 17일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의원이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평소 스님들로부터 여러 조언을 얻고 있다며 불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북한 동포 돕기에도 불교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불교의 나눔 정신이 진보정당의 가치와 통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20일에는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 전재희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총무원을 찾아 전통문화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위원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유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마무리 되는대로 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강창일 정각회 부회장, 최재성 의원 등이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각종 규제법령으로 보존을 저해 받고 있는 전통사찰 관련 법령의 일원화를 당론 채택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 대표는 "전통사찰 보전을 위한 법령 일원화를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희수, 조윤선 의원 등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문화보존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령 정비 등 전통문화보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전통문화보존위한 법안 마련해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인사들의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정치권이 전통문화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각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교계의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백제문화단지 운영위에 불교계 참여 · 협력키로

불교계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백제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제문화단지사업소는 최근 불교계가 참여를 통해 능사 보존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조계종, 수덕사, 마곡사, 부여군 사암연합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문화계,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 각계 인사 9인으로 구성된다.

능사에서 의식 집전 및 보존을 위해 활동할 스님도 운영위 추천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운영위가 추천한 스님은 의식 집전 외에도 관람객들에게 백제문화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해설을 담당한다.

또한 백제문화단지사업소와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20여 년간 단지 내 공동운영권을 행사하게 될 롯데그룹 측에 능사 운영을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백제문화단지사업소 관계자는 "스님들이 능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백제문화의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롯데 측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종회 의원 정범 스님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불교계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사회법 제소자 멸빈은 악법

종헌종법소위 심사서… "악용 우려, 수정해야"

종단이 승려법 개정을 통해 징계 강화에 나서자 중앙종회 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종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6월 22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승려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총무부가 소위에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은 종단의 안정과 정체성 유지 강화를 이유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단 사정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과 세속기관을 통한 소송시 멸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총무부가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 제46조 4항은 '종단(총무원장, 중앙 및 지방 종무기관)을 상대로 세속시관에 민 · 형사상 제소를 하거나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하여 종단의 법통 또는 교권을 훼손 침해한 자'를 멸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종법에 명시된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종단내 조정기관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 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등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더구나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멸빈에 처한다'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제46조 5항에서도 '호계원의 징계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멸빈에 처한다고 신설해 호계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총무부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징계 관련 조문의 구체성이 미비

> 소송 제기 이유 멸빈은 종단 절대 권력화 우려 징계 강화에 제동 필요

해 승복하지 않고 분란의 소지가 있어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종단 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종도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위 의원 스님들은 개정 및 신설 조항들이 악용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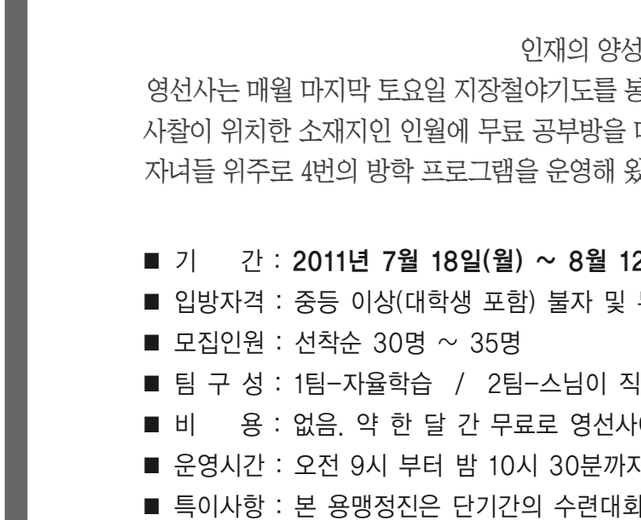
법안 스님은 "제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진정이랑 탄원까지 멸빈 대상이며 사정기관도 아닌 세속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은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 법통과 교권의 훼손 범위가 작아도 멸빈 처리해버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경 스님도 "종단의 절대 권력화가 우려된다. 어떤 이의제기도 막겠다는 것인데 악법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만당 스님은 "46조 이외에도 유사한 조항들이 개정안에서 보이는데, 종단뿐만 아니라 지방종무기관까지 포함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위원 스님들이 종단 권력 강화와 정치적 악용 소지를 우려하자 중앙종회 사무처측은 민 · 형사상 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을 개정안의 총무원장, 중앙 및 지방 종무기관에서 총무원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무원장 선거 후 통과의례처럼 제기되는 당선무효소송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소위원회 스님들은 총무원장과 종정만을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호계원의 징계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멸빈에 처한다는 46조 5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삭제하기로 했다. 박기범 기자



자승 스님, 국군수도병원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호국의 달을 맞아 6월 24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국군수도병원 윤한두 병원장을 만나 국군수도병원 법당 보시금과 500만원의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도 많은 군장병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한두 병원장은 "간혹 과거에 낙후된 병원시설을 기억하고 장병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은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돼,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자승 스님이 병실을 방문해 군장교와 병사들에게 단주와 책을 전달하는 모습. 이은정 기자

강원지역 종교지도자들, 평창 유치 · 의궤환수 기원

강원 지역 종교지도자 모임인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정념, 월정사 주지)는 6월 21일 월정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종교지도자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의 오대산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선언문 등을 채택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 선언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개최할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통일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문'에서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법"이라며 "환수되는 조선왕실의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제 강점의 수난과 약탈의 역사로 인해 훼손당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종교지도자들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는 중앙의 문화재가 아닌 지방의 문화유산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동섭 기자

미입주사찰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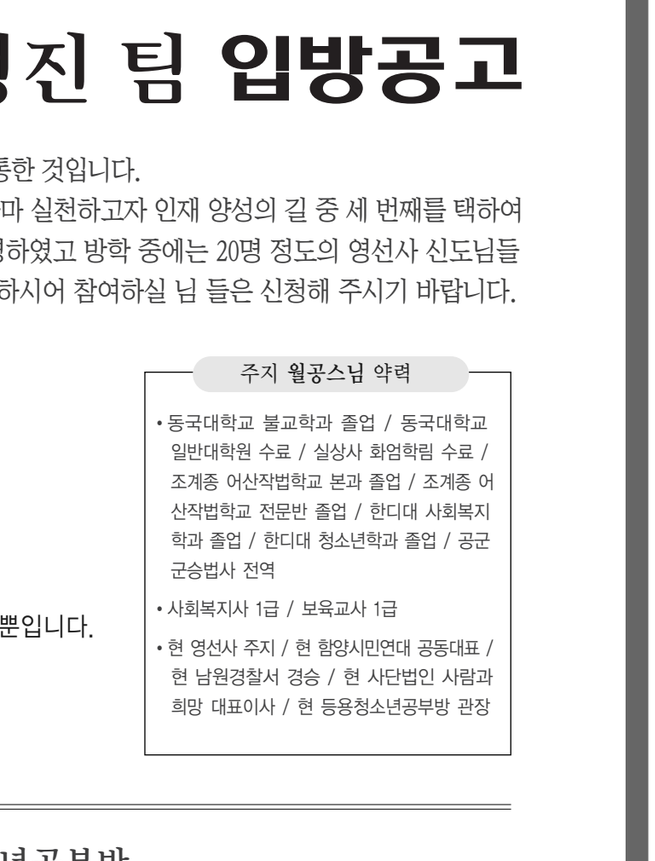
조계종 미입주사찰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 주지에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이 6월 21일 임명됐다.

흥천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 사찰로 前 주지스님이 토지를 불법 매각했다가 멸빈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한편, 현종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서울 삼성암 주지에는 스님의 은사인 세민 스님이 임명됐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영선사 등용청소년공부방 여름방학 특별 용맹정진 팀 입방공고

인재의 양성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째, 인격적 도야와 수행을 통한 것과 둘 째, 선거를 통한 것, 셋 째,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영선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지장철야기도를 봉행(2011년 5월 현재 152차)하고 있는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인재 양성의 길 중 세 번째를 택하여 사찰이 위치한 소재지인 인월에 무료 공부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기 중에는 지역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방학 중에는 20명 정도의 영선사 신도님들 자녀들 위주로 4번의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여름 방학부터 문호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공지를 드리니 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실 님 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 (이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결정함)
■ 입방자격 : 중등 이상(대학생 포함) 불자 및 무교 여학생 (남학생은 방사 문제로 영선사 신도들 자녀로 한정함)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35명
■ 팀 구 성 : 1팀-자율학습 / 2팀-스님이 직접 영어와 수학 중심 지도(기초반) / 3팀-학교 보충 수업 시작 전 잠깐 쉬는 기간에 와서 공부
■ 비 용 : 없음. 약 한 달 간 무료로 영선사에서 숙식하며 학습은 공부방에서 진행됨
■ 운영시간 : 오전 9시 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지 스님의 관리 하에 학습 진행
■ 특이사항 : 본 용맹정진은 단기간의 수련대회가 아니라 장기적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종교적인 부분은 매일 일정 시작 전 삼귀의와 반야심경이 있을 뿐입니다.
■ 신 청 : 영선사 다음카페에서 입방원서와 청규 서약서를 다운 후 이메일로 신청 후 문자 연락함 - **0770child@hanmail.net**
■ 기 타 : 문의 사항은 영선사 홈과 다음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람
■ 위 치 : 영선사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 공부방 - 인월면 소재지

주지 월공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 실상사 화엄학림 수료 /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본과 졸업 /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전문반 졸업 / 한디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한디대 청소년학과 졸업 / 공군 군승법사 전역
• 사회복지사 1급 / 보육교사 1급
• 현 영선사 주지 / 현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 / 현 남원경찰서 경승 / 현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대표이사 / 현 등용청소년공부방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오봉산 영선사.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등용(登龍)청소년공부방
http://cafe.daum.net/youngsunsa / http://www.youngsunsa.org / http://www.isaram.kr



6월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은 리처드 기어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리처드 기어는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자승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사진=박재완 기자

佛子 리처드 기어 한국을 찾다

21일 조계사 참배이어 22일 사진전 '순례의 길' 오프닝 등서 한국불교 흠뻑 체험

영화 '사관과 신사' '귀여운 여인' 등에서 최고의 로맨티스트로 찬사를 받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한국을 찾았다.

리처드 기어의 이번 방한은 지난 30여 년간 티베트, 아시아 불교 국가들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모은 '순례의 길'을 국내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함이었다.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불자인 리처드 기어가 찍은 사진 64점과 뜻을 같이한 세계적인 사진작가 24인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6월 20일 한국땅을 밟은 리처드 기어는 22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진전의 의미와 한국불교에 대한 느낌, 티베트 독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리처드 기어는 기자회견에서 "영화와 사진은 삶과 세상을 필름에 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세상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서 비롯된다"며 "사진의 이미지들은 3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티베트와 불교 국가들을 순례하며 만났던 승려, 형제·자매들을 떠오르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티베트 스님들 아직도 고문당해"

리처드 기어는 이날 티베트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정치적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티베트 자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당초 주최사인 CDI측이 사전 공지로 티베트 등과 관련된 정치적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스스로 발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장내가 술렁였다.

리처드 기어는 "198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번 전시에 걸린 사진 중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티베트의 한 마을에 있는 그림을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은 티벳 승려들이 중국인들에게 고문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티베트에 많은 관심가져 달라
한국불교도 사진에 담고 싶다

티베트 여승들이 중국 당국자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그림을 찍은 사진을 언급한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해 여전히 티베트 승려들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후 1993년에 유일하게 중국 정부가 내가 입국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티베트에 머무를 당시 3명의 여자 승려를 만났다. 그들은 티베트에 있는 중국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었다"며 "그 여자 승려들은 내가 과거에 찍었던 그림과 똑같은 경험을 겪었음을 나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리처드 기어는 "그래서 그 그림을 찍은 곳에서 3명의 승려들을 세워 놓고 사진을 찍었다"며 "그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내 마음과 시점,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아시아는 순수성이 매력, 한국인 Smart"

리처드 기어는 "2500년 전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티베트 불교는 그 순수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서 티베트 불교의 매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리처드 기어는 불교를 공부하며 느꼈던 선불교와 한국불교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리처드 기어는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일본의 Zen(禪)불교였다. 한국의 선불교와 매우 비슷하다. 6세기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한국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리처드 기어는 이어 "달라이 라마 곁에는 한국인 수행자들도 많이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들을 비롯해 한국인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얘기 했었다. 몽고를 찾으며 경유지로 한국을 자주 들렸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를 사진으로 담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한국을 찾아 불교문화를 사진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체험해 기쁘다"

리처드 기어, 한국불교문화 접하고 감탄 연발



리처드 기어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탁본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이번 사진전 참관에 앞서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이날 리처드 기어는 서울 조계사를 참배한데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선불교'를 주제로 환담했다. 자승 스님은 리처드 기어와 부인 캐리 로웰, 아들에게 단주와 향로, 템플스테이 옷 등을 선물했으며 리처드 기어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선물했다.

리처드 기어는 "선불교로 불교를 처음 접했는데, 한국불교도 선불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불교를 체험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하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에 불교가 담겨 있었다"고 말을 건냈으며 리처드 기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렸다. 스님이 강아지 하치에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의 시작 장면은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장면같았다"고 화답했다.

리처드 기어는 환담에 이어 불교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탁본을 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으며, 자승 스님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에 자리잡은 사찰음식전문점 '콩'에서 한국전통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했다.

리처드 기어의 사진전 '순례의 길' 무엇을 담았나?

40여 편이 넘는 영화 주연을 맡으며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리처드 기어. 그가 전 세계를 돌며 사진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는 화려한 은막의 스타 이면에 지구상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1991년 '기어 재단'(The Gere Foundation)을 설립해 인권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다.

기어의 사진은 그가 티베트와 티베트 망명인 거주지 등을 여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때 묻지 않은 히말라야 지역의 자연풍경과 이주해 삶을 꾸려가고 있는 티베트 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Vermeer)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기어는 베르메르가 보여준 부드러운 빛의 움직임을 사진을 통해 표현하려 한다. 장시간 노출을 이용한 촬영기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정적인 색감이며 흔들리고, 뿌연 안개처럼 표현된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대상의 본질을 포착해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난 순례자의 입장이 되게 한다.

또 사진작가 24인이 참여한 컬렉션 〈티베트 포트폴리오〉는 현대 사진사에서 주요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 작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패션 사진 거장 헬무트 뉴튼, 스티븐 마이젤을 비롯해 초현실주의 사진의 대명사 제리 슐츠만, 랄프 깁슨 등의 대표작품들이 그것이다.



일 주 문



제1회 천태 청소년 사생대회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7월 24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마당에서 제1회 천태 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상원 대종사 추모 다례제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7월 3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천운당 상원 대종사 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생명나눔 장기이식 세미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기이식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와 정부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입학 고불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입학 고불식을 봉행한다.



진화 스님 감사패 수상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강북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7일 강북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제포교사회 결집대회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7월 15~17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한국 전통불교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사 결집대회를 개최한다. (02)722-2206



남궁선 박사, 선리연구원 상금전액 기부
남궁선 박사는 6월 14일 개최된 제5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에서 학술상 수상으로 받은 300만원을 불교 소장학자를 위해 기부했다.



에코붓다 환경 아카데미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6월 23일~7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평화재단 2층 강당에서 환경 열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인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6월 21일부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현종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장, 강대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장, 박방룡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고고역사부장, 김정완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박물관장

문화 인식 전환 중요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새 위원회장에 선출된 종삼 스님



"문화재구역 입장료 갈등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저평가를 드러낸 일부입니다.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입장료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종삼 스님(구례 화엄사 주지 · 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현안 문제를 비롯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책정 및 재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

종삼 스님은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문화재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문화재사찰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과 마찰을 빚는데 대해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회 단체나 국민들이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충분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유지나 보존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교문화재를 넘어 우리의 전통문화재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 전통문화발전 특위를 발족하고 문화재 방재예산 책정 등에 의지를 표명하는데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나 지원에 대한 것이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존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찰이 국가 문화재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대한 감사함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향후 과제에 대해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부서인 환경부 등과 문화유산지구 책정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현장 실무 경험을 살려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종단 종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회의에서는 곡성 태안사를 '문화재보유사찰'로 추가 지정했다. 전국 문화재보유사찰은 총 68개다. 이와 함께 평창 월정사와 원주 구룡사, 안동 봉정사 등이 신청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조정은 일부 인상토록 심의 ·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비구니스님들 장학기금 1억 2000만원 전달



비구니 기숙사인 혜광사 사감 계환 스님(앞줄 왼쪽 세 번째)과 비구니스님들이 석림동문회장 영담 스님(앞줄 오른쪽 세 번째)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동국대에 재학중인 비구니 스님들이 학교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20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인 혜광사 사감 계환 스님과 비구니 스님 10여 명은 6월 20일 석림동문회장 영담 스님을 방문해 노후한 기숙사 보수를 위해 모아온 기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종비생들의 졸업생 모임인 석림동문회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번 기금 쾌척으로 석림동문회는 4억 4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했다.

영담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어렵게 모은 성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것이라 매우 귀중한 성금이라 생각한다"며 "후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남남통일 먼저 종교계가 앞장서야

도법 스님, 화쟁리더십아카데미 강연서 보편적 진리 강조



"인드라망의 사유방식에서는 남도 북도, 진보도 보수도, 기독교도 불교도 없다. 단지 보편적 진리만 존재할 뿐이다."

도법 스님은 6월 20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1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 마지막 강연에서 "인드라망의 눈과 사유방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와 화쟁사상'을 주제로 발표한 도법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염원이고, 21세기 문명사적인 절체절명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시대적으로 화쟁정신과 실천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과 길이다. 불교적 세계관과 실천 정신이 21세기 문명사적 대안의 방향과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화쟁행자'가 중심이 돼 역동적 실천과 활동을 이어가야 함을 제안했다.

이날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으로 남남평화를 역설했다.

"남북 분단은 동북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엄중한 일이다. 남북문제에 대해 반목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통합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도법 스님은 제안에서 "종교계는 남북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통합하고, 남남평화의 기본토대를 지구촌과 민족의 평화와 수준 높은 남북평화통일을 이끌어야 한다"며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북핵 문제와 남북 분단은 화쟁과 인드라망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인류에 평화를 위협하고, 전 인류에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왜 인류는 끊임없이 갈등을 번복하고 있는 것일까.

"1차적인 문제는 잘못된 세계관이다. 직면한 존재, 현실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해결책은 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법 스님은 2010년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으로 인한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간의 갈등을 화쟁으로 해결한 사례를 들어 화쟁의 현실 적용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서 바로 실현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종립대 총장협의회 발족

초대회장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 선출

불교 종립대학 총장들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서 불교종립대학 총장협의회를 결성했다.

초대회장에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이 선출됐다.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방법, 불교 교육의 글로벌화 방안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위덕대 배도순 총장, 금강대 정병조 총장, 동방대학원대학 정상옥 총장,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김명권 총장 등 불교 종립대 총장들은 6월 17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의 초청으로 한 자리에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한국 대학교육에 있어서 불교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수와 내용이 타 종교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불교진흥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해 종립대학 간 학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동연구 하는 활동 등을 앞으로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社告 |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얀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 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무상공존자 문하 도암선사 문도 전법건당

佛祖로부터 達磨禪師와 處寂禪師를 거쳐
無相空尊者로 이어진 禪旨와 禪風을 傳하고자
佛祖 75代孫, 無相空尊者 41世 門下인 道庵禪師는
法悟見知한 因緣에 75位의 歷代祖師를 證明法師로 하여
傳法堂을 開壇하고 不思議한 寂靜妙法을 綿綿受持케 하노라

道庵禪師傳法偈

본래가 청정함인데 무엇을 닦고자 하는가
취함이 없으면 여여하여 움직임 없느니라

傳法弟子

효원 능인 (曉圓能仁) 설원 연지 (說圓蓮知) 자원 운담 (慈圓雲潭)
진원 능원 (眞圓能元) 일원 능혜 (一圓能慧) 혜원 능각 (慧圓能覺)
초원 임덕 (初圓林德) 녹원 경원 (綠垣鏡元) 시원 태경 (視圓胎鏡)
심원 능효 (心圓能曉) 지원 능안 (智圓能安)

건당일 : 불기 2555년 음력 4월 29일

無相空尊者 門下 道庵禪師 門徒會

www.arahan.org / 문의처 031)753-336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장경판 머리이고 600년 전 선조들이 걷던 길을 걷다

대장경 조성 천년 기념 이운행사 18~20일 봉행 … 서울 · 합천 등서 1000여 불자 동참해 장관



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이운식모습. 섭씨 30도를 넘는 날씨에도 당시 신도들의 옷을 입고 이운을 그대로 재현한 불자들의 모습이 경건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은 기념식에서 탁본을 하며 대장경 조성 천년의 의미를 널리 필 것을 다짐했다.



고령 개경포에서의 이운식 모습



합천 해인사에서의 고불식 후 반출되는 대장경판

600여 년 전 강화도 선원사에서 조판된 대장경판을 서울 지천사로, 이어 합천 해인사로 옮겼던 옛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대장경 이운(移運)이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됐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100일 앞둔 6월 19일, 1000여 스님과 신도들은 모조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600여 년 전의 대장경 이운 행렬을 그대로 재현했다.

취타대 호위군 문무백관 농악대 등으로 구성된 이운행렬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길, 종로2가를 거쳐 청계천로 광통교까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자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신명나게 대장경을 이운했다.

김상현(45 · 서울 중랑구) 씨는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을 직접 보고 우리 전통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나온 이석정 주부(37 · 서울 마포구)도 "무더운 날씨에도 이운행렬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니 국난의 위기에서 대장경으로 한마음이 된 옛 선조들의 정신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장경 이운행렬 고불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9월 23일 개막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인사와 경남도, 합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날인 18일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대장경 이운행렬 고불식(告佛式)이 봉행됐으며, 19일 행사에 이어 20일에는 고령 개경포에서 목선을 이용한 이운행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봉안의식이 거행됐다.

이와 함께 6월 15~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축전 기념 부스가 마련돼 서울 시민들이 사경 등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대장경 고불식에서는 대장경판 원본 1판이 반출돼 이운행렬의 선두에 섰다. 대장경판 원본 반출은 지난해 서울 코엑스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전시를 위한 반출 이후 세 번째이다. 서울 이운행사에서는 모조판으로 대체됐다.

신명나게 대장경판 이운하는 모습 보여
외국인들 'wonderful(원더풀)' 환호성

마무리 행사인 개경포 이운행렬은 조선 태조 7년(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지천사를 거쳐 배를 이용한 이운행렬 경로를 재현했다.

당시 이운행렬은 한강에서 서해로 이동한 후 남해를 돌아 낙동강 하구에서 고령군 개경포에서 대장경판을 하적해 다시 육로로 합천 해인사에 대장경을 이운했다.

이날 목선에서 개경포 나루터로 옮겨진 대장경판은 합천 해인사로 이동해 당시 이운행사 그대로 길상암에서 대적광전 앞 탑마당까지 이운법회를 거쳐 장경판전 봉안의식을 끝으로 다시 해인사에 봉안됐다. 장경판전 봉안의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찬불가,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봉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승무 바라춤 공연을 끝으로 성료됐다.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이번 이운행렬 재현은 선조들의 혼을 이어 받는 의미로 국론 분열을 막고 온 국민을 한 데 모은 대장경의 참뜻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대장경판이 당시 해인사에 봉안된 이유에 대해서 "해인사가 불, 물, 바람의 삼재에서 벗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불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한테 모으기 위함"이라며 "현재 국가적인 중대기로에서 대장경 천년을 계기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도 대장경의 의미가 재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인 대장경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고려대장경은 불교를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된 선조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와 가치를 국민 모두 나눌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3일~11월 6일 45일간 합천 해인사 들머리와 창원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대장경을 주제로 전시와 공연, 판각인경, 108배 기네스 도전, 사찰음식 체험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대장경을 중심으로 한국의 학술적, 문화적인 이미지를 높여줄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해인사와 주변 13개 암자에 세계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해인아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장경판은 고려 때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화도 대장도감에서 제작해,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다, 1398년에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해인사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사회적기업도 '창업'이다

연우와함께 사회적기업 설명회… 주먹구구식 해서는 실패 불 보듯

최근 불교계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보시나 후원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대신할 기업형태이면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이다. 인증요건은 물론 단순히 정부의 지원 아래 육성되는 복지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흔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관심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은 막연하고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사업단은 6월 2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류시문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불교계 자산은 곧 중생의 자산이다. 사회적기업의 융성과 발전은 사회통합, 불교계 통합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교계 사회적기업을 적극 권장했다.

설명회는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가 '불교계 사회적기업'을,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팀장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자 80여 사회적기업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오른쪽부터)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장, 정상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이사가 사회적 기업 설명회에서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막연함부터 속 시원히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도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 "지역사회와 융화 밀착돼 있으면 성공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답에 그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창업 정보나 교계의 지원 등을 원했던 것이다.

대구 동화사 사회국장 정필 스님은 "사회적기업의 모델 제시, 방법론과 비전제시, 자료분석을 통한 설계,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불교자원연계 방안, 사찰수익구조 변화와 불교계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의정부 용주사 주지 성오 스님은 "실무적인 테크닉과 효율적인 부분을 알고 싶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mim 김민지 대표도 "불교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불교계 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간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도 형성하는 소기의 성과와 함께 창업 · 교육 · 컨설팅 공동협업 등도 서둘러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 컨설턴트, 지역활동가, 사찰관계자, 자본가 등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부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사업 요건부터 갖출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회적기업 형태가 아니라도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 등을 통한 적합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재원 부이사장은 "무조건 될 것이라는 기대, 빨리 만들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공익에 우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각 단체가 나름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영 지원단장은 "일반 창업과 같이 뚜렷한 동기를 갖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통한 경영방식 등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좋은 상담가 배출이 생명 지킨다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선업 스님



"자살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연결고리만 있다고 생각해도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이 자살예방센터 개설 및 운영에 나서기 위해 7월 6~28일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인 선업 스님은 불교계의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업 스님(사진)은 "기독교에서는 이미 많은 자살예방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불교계도 불교를 내세운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완성되려면 무엇보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가를 배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자살예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길이다"라며 "전문가를 양성해 양질의 프로그램만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들로 실습이 된다면 1~2년 뒤엔 불교계도 선두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상담에 관심 있는 신도들을 교육시켜 좋은 상담가를 배출시키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불자님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번성시키고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업 스님은 "우리는 모두 한 송이 꽃과 같고 보석같은 존재"라며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로서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식 태교법 강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초청법사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모자란 아기에게' 가족법회를 봉행했다.

성우 스님은 법회에서 태아를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덕을 쌓는 보시바라밀, 거짓말이나 험한 악구를 하지 않으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지계바라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 바라밀 등 불교적 태교법을 설명했다.

성우 스님은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태교는 부모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불자라고 해서 도와야 하나

불자가수 김흥국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2시 만세' 퇴출에 항의해 6월 17일 서울 여의도 MBC사옥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불자연예인을 감싸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P씨는 한 일간지에 실린 가수 김흥국씨의 라디오 하차 항의 삭발식 기사를 부루나에 링크하며 "불자가수 김흥국의 복귀를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P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스님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탄원서를 쓰던가요. 불자가수 하나 못 구하면 우리도 좀 그런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씨가 연예인활동과 포교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K씨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으로서 정치판에 개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콧털 가수로서 만족을 했으면 합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U씨는 "(김흥국씨는) 훌륭한 포교사니까 구명 해야지요. 만날 기회 있는 분들이 다음부터는 포교나 하라하고 포교사로 최선을 다하라 합시다. 혼탁한 정치판이 흥국씨 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결국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김흥국씨와) 만날 인연이 되면 이야기 할 겁니다"고 말했다.

김흥국씨는 4.27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유세 현장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6월 4일 방송 하차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내 정치적 성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며 방송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불교자원봉사자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 29일까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부처님의 자비나눔 실천을 함께할 불교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 신항일대에서 2012년 5월 12일~8월 12일 열린다.

보살행 실천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2012년 5월 12일 세계박람회 개막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내 · 외국인 중 10일 이상(주중10일 또는 주말8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가 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는 유니폼 및 기념품, 소정의 실비가 지급되며 활동을 마친 후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등이 이뤄진다.

자원봉사 신청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woeks48@chol.com)로 발송하면 된다. (02)723-5101 조동섭 기자



이주민 불자들이 배구대회를 통해 화합을 도모했다.

공 하나로 한마음 이뤄낸다

제1회 포교원장배 이주민 배구 큰 잔치

불교계 이주민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이주민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이주민 배구 큰 잔치'가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공동주관으로 6월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렸다.

9개국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캄보디아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캄보디아는 양천구 배구연합회와의 결승전에서 1세트를 먼저 내주고 수세에 몰렸으나 2, 3세트를 연속으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첫 대회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접전 끝에 2위를 차지한 양천구배구연합회는 상금 중 일부를 이주민 불자들의 발전을 위한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응원상 부문에서는 스리랑카가 1위를 차지하고, 2위 태국, 3위는 방글라데시가 각각 차지했다. 각 나라 이주민들은 소속팀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열렬한 응원전을 펼쳤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조계종은 이주민 불자들을 위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주민 불자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신행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대회장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지관 스님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인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시아 불자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샘 솟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은 "다함께 배구를 즐기면서 동질감을 갖기 바란다. 부처님의 육화정신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를 찾자"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울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삭발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십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조선 후기 조각승 계보 발견했다

문명대 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세미나서 공개… 쌍계사 불상 복장조사 결과



"삼세불상 출토 유물에서 조각승 출현이란 조선 후기 불교미술 계보 파악이 가능하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 · 사진)는 6월 18일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충남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 복장에서 조각승의 계보를 파악 가능한 발원문 등 조선 시대 중 · 후기의 불교미술 발달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출토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 중 아미타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은 두루마리에 적힌 불상 발원문과 〈묘법연화경〉 등 조선 중기 전적(典籍)류, 오곡(五穀) · 오약(五藥) · 사리 2과를 넣은 후령통, 직물 등이다.

특히 복장유물 중 발원문에는 '선조 38년 3월 자비승영관비구가 뛰어난 장인을 청해서 만들기 시작해 7월 조성을 마쳤다' 는 내용이 발견됐다.

문명대 교수는 "삼세불상은 김해 선지사 불좌상, 익산 관음사 보살입상, 익산 혜봉원 보살입상, 위봉사 보살입상 등을 조성한 원오(元悟)와 그 유파들이 7년의 임진왜란이 끝나자 웅장한 대웅전과 불상을 중창한 예로 중요시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진왜란 직후 원오계의 작품들은 여러 예가 발견되고 있지만 쌍계사 삼세불상은 가장 큰 작품으로 대표작으로 불

석준·원오 스님은 조선 후기 조각승의 원류
출토 〈묘법연화경〉은 現 보물의 원본일수도

려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쌍계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세불상은 가운데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불, 오른쪽에 아미타불이 앉아있는 목조불상으로 좌상(坐像)임에도 일반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우람한 크기다.

문 교수는 임진왜란 직후에 임란 전 활약한 조각승들이 조선 전반기 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이 조성한 불상으로 조선 전반기의 불상양식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교수는 원오의 스승인 석준와 원오에서 이어진 석준 · 원오파 조선 후반기 최대 조각 유파를 형성했다는 사실에서 주목했다.

문 교수는 "석준에서 원오, 다시 17세기 최고 조각승인 무염, 그리고 청허로 사자상승하는 후반기 최대 조각 유파 계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준 · 원오의 조각 유파는 1599년 상원사 문수동자상 개금을 필두로 1605년과 1606년 집중적으로 불상을 조성해 임란 이후 불교복원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발표에서 복장 유물 중 〈묘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에서 출토된 유물들

법연화경〉 권 5 · 6 · 7은 보물 1306호인 〈묘법연화경〉의 원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교수는 "묘법연화경 권7 말미에 발문이 있는데 원주인 성달생의 책의 간행 시기는 1402~1410년 중 어느 때로 추정된다. 현재 보물 제1306호 법화경 원판본이 1405년 간행됐으므로 1405년의 원판본으로 판각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 쌍계사는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에 위치한 대찰격의 고찰로 그 주위에 백체 계백과 후백제 견훤의 묘가 함께 있어 백제의 중심사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노덕현 기자

해남 서동사 삼불좌상 보물 지정
17세기 중엽 수화승 운혜의 대표작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등 3건의 문화재를 6월 22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15호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은 석가 · 약사 · 아미타 여래의 공간적 삼세불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삼불좌상으로 17세기 중엽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운혜(雲惠)를 수화승으로 해서 제작됐다. 운혜가 만든 불상의 특징은 작은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강조해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표정을 한 점과 두터운 대의,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넓은 어깨와 무릎, 파도치듯 주름잡은 입체적인 옷주름이다. 이후 운혜의 불상은 얼굴이 커지고 다소 딱딱해지는 변화를 보이지만 운혜풍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얼굴표현을 보인다. 서동사 삼불좌상은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적 경향을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조동섭 기자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 좌상

차문화 발전 위해서는 인문학자 포섭해야

한국차문화학회, 학술대회서 현대 차문화 현상 학술적 조명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여연)은 6월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차문화의 인문학적 지평'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차문화계가 문호를 활짝열고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성태용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식생활 등의 양상이 바껴 차문화가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차문화의 중흥기다"며 "이런 중요성에도 차문화계에서는 차인들끼리 서로 이합집산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성 교수는 "차인들끼리 그렇게 경쟁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특히 차 애호가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문학 관계자와 문화관계자들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가 인문학계와 차문화의 접합을 주장한 이유는 두 분야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인문학과 차는 차문화가 고급문화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흥망성쇠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캔음료식의 차문화와 자위행위식으로 자신을 뽐내는 귀족 차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채 평행선을 이루며 달려간다면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제 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차문화학회장 여연 스님도 차문화의 문호 개방에 대해 언급했다. 스님은 '오늘 과연 우리는 초의의 차를 마시고 있는가' 를 주제로 기조강연에서 "초의차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차의 참정신"이라며 "근래에 들어 이런 차의 정신이 많이 퇴색돼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여연 스님은 차문화 확산을 위해 차인들이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차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기정 목포대 교수가 '중국다도의 형성과 변천 고찰' 을, 신미경 성신여대 교수가 '조선시대 차문화의 재조명' 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학술대회와 함께 마련된 2011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에서는 차 재료 및 제품, 다구, 공예 등 차문화 관련 상품이 전시됐고 부대행사로 이효재의 차놀이 강의, 대한민국차품평대회, 꽃차품평회, 녹차급식 세미나 등이 이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석굴암 복원 다시해야

한국 고건축학과 고고학 제1세대의 대표로 꼽히는 창산(昌山) 김정기(金正基. 81) 박사는 최근 "석굴암 복원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역임한 김 박사는 "석굴암이 잘못 복원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몇 없다. 죽기 전 원 상태로 복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구체적으로 석굴암 전실 입구 쪽 신장상(神將像) 2구가 원래는 본존불을 바라보면서 90도로 꺾여 있었지만 1961년에 복원하면서 전실에 목조건축물을 지을 공간을 확보하고자 일렬이 되게 나란히 펼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 외에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문화재청은 석굴암에 대한 종합학술용역을 준비 중이다.

문화재청은 석굴암 전반 문제를 다룰 학술 용역을 2012년 발주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 **동국대 BK21연구단, 전자불전 해외석학 강연회 개최**

세계 불전의 전산화 현황과 발전 방향을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6월 30일 오후 2시 동국대 사회과학관 11호에서 초청 강사는 매커스 빙겐하이머(Makus Bingenheimer) 박사를 초청해 BK21 해외석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대만 법고대학의 도서정보센터 책임자인 매커스 빙겐하이머 박사는 이날 '불교학을 위한 전자불전의 조성과 발전' 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만해마을서 종교문화탐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윤승용)는 7월 17~1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6차 종교문화탐방을 개최한다. 7월 17일에는 '만해선사와 무능거사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불교유신론과 불교통사를 중심으로(진철승 연구원)' 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법인 창립 10주년의 성찰과 전망' 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며 18일에는 아침예불과 둘레길 산책으로 탐방이 마무리된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문연 중점연구소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 중점연구소는 6월 24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 을 주제로 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기운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대 불교잡지를 통해 본 수양론 양상'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출가, 탈권력의 사제동행(師弟同行)-구라타 햐쿠조(倉田百三)의 〈스님과 그 제자(出家とその弟子)〉를 중심으로', 김진무 동국대 연구교수의 '중국 근대 인간불교에 나타난 유불융합의 경향',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내셔널리즘과 화엄적 민족주의', 혜원 스님의 '근현대 한국비구니 선원청규의 변용'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금강대 17회 HK콜로키움 개최**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7월 6일 오후 1시 30분 논산 금강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국과 티벳의 불교' 를 주제로 제17회 인문한국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최은영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가 '길장의 문헌에 보이는 진제의 영향 검토', 한지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가 '양주(凉州) 불교사상과 문화의 발전사 고찰', 양오영 인도 델리대학교 박사가 '성불이란 무엇인가? -색신 성취의 수행방법을 중심으로' 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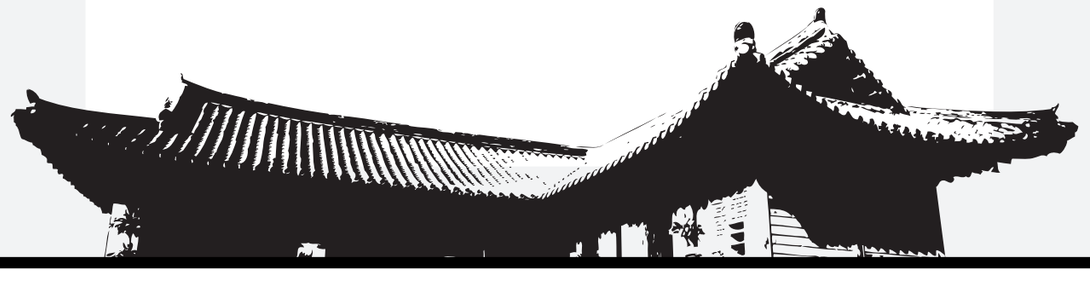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법향 실은 선율로 고통 날린다

허허원 환우 위한 희망음악회, 송광사 산사음악회 열고 환우 위문 잇달아

청아한 산사,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과 밝은 보름달빛 속에서 듣는 아름다운 선율. 산사음악회 만이 갖는 어울림의 매력이다. 순천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는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6월 1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관음사 산사음악회는 최종민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지현 스님 및 이경훈 사하구청장, 현기환 국회의원, 류재응 사하경찰서장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연은 특별히 국악공연으로만 진행했다. 국악과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리감을 친숙함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였다. 이삼스님의 대금 독주와 국립국악원 단원 및 무형문화재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회심곡〉 〈청성곡〉 등은 여름 산사의 운치를 더했다.

지현 스님은 "우리 문화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려 국악과 절과 스님, 불교가 멀리 있지 않음을 알리고자 했다"며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과 불교의 만남이 불교와 국악의 대중화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허허원과 센텀병원은 6월 10일 센텀병원에서 제3회 희망음악회를 개최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음악은 통증이나 불안감 경감에 큰 효과가 있다.

불교와 음악의 만남은 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음악이 갖는 치유효과를 살려 부산 허허원(원장 정타)은 센텀병원(원장 박종호)과 함께 6월 10일 센텀병원 1층 로비에서 '제3회 희망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은 대북과 드럼배틀, 경기민요, 바이올린 독주, 즉석 환우노래자랑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병마와 싸우는 300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 음악은 통증이나 불안감 경감에 상당한 치유효과가 있어 매 음악회 마다 호응이 뜨겁다.

정타 스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역할도 크다. 하루 속히 병이 낫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고운 마음으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며 살 것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호 원장은 "우리 몸은 억지로 짓는 웃음만으로도 엔돌핀을 생성하는 교감신경이 발달해 있어 자연치유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前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의 주치의였던 박 원장은 "월하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길은 자신만의 의술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보시해 치료하는데 있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음악회를 통해 많이 웃고 병마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

고리원자력발전소 불자모임 '고리반야회' 신임회장 손태봉 신고리제2발전소장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하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신심과 원력으로 원자력사업을 안전하게 발전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불자모임 '고리반야회'의 신임회장으로 손태봉(사진) 신고리제2발전소장이 취임했다. 고리반야회는 6월 21일 기장 해광사(주지 혜성) 대웅전에서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손태봉 회장은 원년 멤버로 25년간 신심 진작에 힘써왔다.

손태봉 회장은 1986년 4월 5일 회사 내 도반들과 삼삼오오 모여 송광사로 몇 차례 선수련회를 다녀온 후 회사 내 불자모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15명의 도반이 모여 고리반야회를 발족했다.

고리반야회는 매년 전국 명찰을 참배하고 직원수계법회, 고승대덕 초청법회, 원전 수거물 부지확보를 위한 108참회기도법회를 부안 내소사, 경주 불국사 등지에서 봉행하는 등 끊임없이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오상권 前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부서 상관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만큼 후임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컸다.

오상권 직전회장은 이임사에서 "일의 성공과 부지런한 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손 회장은 25년 전 발족 당시부터 고리반야회를 묵묵히 지켜온 창립멤버라는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 회장이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어린 시절 신심 깊던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절에서 귀여워해주던 스님들이 마냥 좋았다면, 장성해 군에 입대하고 군법당에서 만난 부처님의 감로법문은 평생을 좌우할 인생의 지침이 됐다.

> "25년된 단체지만 법당 아직 없어 임기중 작은 법당 마련에 힘쓸 터"

그는 전 직원에게 늘 세가지 마음가짐을 당부한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그리고 임제 스님의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진리의 세계다'라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종종 불교경전 속 가르침 전하고 있다. 종교적인 강요가 아닌, 성인의 말씀을 통해 직원들에게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손 회장은 "불자직원들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동료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주도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손태봉 회장은 한 가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있다. 25년된 고리반야회에 아직까지 법당이 없어, 매번 인근의 사찰에 협조를 구해 어렵게 법회를 이어왔다. 손 회장은 "임기 내에 회사 안이나 인근에 작은 법당을 조성해서 고리반야회 도반들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종교와 시대 초월한 효사상 담았다"

영화 '훈장과 악동' 정여 스님 등 불교계 응원 속 29일 개봉


정여 스님과 김봉곤 훈장.

효를 주제로 한 영화 '훈장과 악동'이 불교계 응원 속에 6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예절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훈장과 악동' 시사회가 6월 18일 부산 국도앤가람극장에서 개최됐다.

영화 '훈장과 악동들' 시사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영화제작 관계자 및 부산시민 등 100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영화는 2010년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초등생 50명이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민족학당에서 효(孝)와 예절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영화는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예절의 중요성을 알아나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다.

영화에는 유교 뿐 아니라 불교, 기독교의 효 사상도 조명해 깊이를 더했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효'에 대해서는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인터뷰를 특별출연 형태로 담았고, 기독교에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사 인터뷰를 담았다.

영화는 김봉곤 청학동예절학교 훈장(44)이 총감독을 맡았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에는 김봉곤 훈장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김봉곤 훈장은 "효가 유교사회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인간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부모은중경〉 등 효를 강조하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여러 불자들이 효에 대해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여 스님은 "아이들의 마음은 본래 때 묻지 않은 연꽃 같은 마음인데 이를 일깨워주는 훈장의 역할이 스님네와 닮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영화 속 민족학당의 장점을 불교계의 청소년프로그램에 접목해도 좋을 것 같다. 삼량진 여여정사에 충효관(가칭)을 짓고 김봉곤 훈장의 예절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효산 스님, 전시 수익금 전액 기부



예승(藝僧) 효산 스님(세연사 주지·사진 왼쪽)이 전시회 수익 2000만원 전액을 '제95차 국제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준비기금으로 보시했다.

효산 스님은 6월 22일 국제봉사활동 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총재 이병재) 사무실에서 2010년 개최한 선서화 전시회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탁하고, 부산지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보시한 전시회 수익금은 2012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95차 국제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의 준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효산 스님은 "국제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산과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삼계선원, 제1회 경로잔치

김해시 삼계동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은 6월 20일 대법당에서 제1회 지역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지역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해, 맛있는 점심공양과 마산MBC '활력충전' MC 김태홍이 진행하는 '야단법석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혜수 스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경로잔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천지공사 견성도통으로 무량대복을 받아 거부장자 스승되어 광명도통으로 천지조화를 부리는 육경신도통법회 및 생명에 문인 현관을 찾아 부모 조상 죄와 업을 소멸하는 신묘년 백중대제로 구대선망 오대조상 일체 해원상생대법회

죄와 업을 소멸하는 천하대도 자성에 문은 말과 글과 그 어떠한 수행으로는 생명에 문을 찾지 못하며
수많은 세월과 목을 메는 진광대도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문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며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신묘년 2011년 7월 3일 ~ 4일 경신일 자신이 도통하는 성불 받는 날인 것이다.**

◆특별 금년 신묘년은 천, 복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수행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사업마장, 결혼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윗대 조상님들이 본인에게만 열어주고 천복대운으로 자식에게 안가는 행운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것이며 모든 종교가 유불선이 하나되는 법도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대운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 지나간 일들만 말하는 것을 미래에 닥쳐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점술예언 예측하는 혜안통 수행으로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갑음향과 세월 일시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잡신 마장을 소멸 하는날 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수행자에게 보림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고 관심법으로 많이 안 배워도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운명과 건강 출세 신비의 명리철학 오행철학 성명철학 풍수철학 동양철학 등 팔신공 도천명으로지난날만 맞추던것을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과 포교원을 경영하여 평생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자격을 얻어 거부장자되는 대용맹정진 도통법 대법회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켜갈 수 있는 영포태로 죄와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혜안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고통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을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조상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등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대법회 및 저승사자 면허증 반납하는 날이다.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 부귀장수하는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것이다.

● **입제 : 양력 2011년 7월 3일**(음 6월 3일 일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7월 4일**(음 6월 4일 월요일)**(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전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널목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부산동시법회 :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 3동 **경문사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도원.태일 합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부처님 통해 지혜의 눈을 뜨길”

천룡사 무등 스님, 광주대 불교동아리방서 아미타불 점안식 봉행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80~90년대 광주불교는 살아있었다. 어린이회부터 청소년, 대학생, 청년회에 이르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광주불교교육원과 같은 교육단체까지 더해져 내용면에서도 풍성한 시기였다.

그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단체를 말한다면, 대학생 불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광주지역 대학의 불교동아리는 이제 2곳만 남았다. 그나마도 거의 명맥만을 유지한 체 3~4명의 회원들만 있는 상태이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생 불교학생



회는 전남대와 광주대학교만 동아리가 개설돼 여러 포교분야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1일 광주대학교 불교학생회에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최근 1~2년간 방치된 동아리방을 정비해 지역의 스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봉행한 것이다.

이들은 동아리방에 새로이 불단을 조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봉안해 대학생 포교를 위한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광주대 불교동아리의 재도약에는 천룡사 무등 스님이 많은 역할을 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부처님을 모시고 싶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부처님을 통해 참된 지혜의 눈을 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스님과 광주대의 인연은 올해 초 스님이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시작됐다. 오래전 전남대 불교학생회 지도 법사를 맡았던 스님은 개학 후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찾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동아리방은 폐쇄 직전이었다.

스님은 수소문 끝에 이전에 활동했던 3~4명의 회원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회원들을 모집해 10여명의 회원들이 불교학생회에 동참했다.

비록 몇 안 되는 회원들이지만 현재 광주불교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세력이 만들어져야한다던 스님의 발원은 어느새 법당을 새로 단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점안식에는 성오 스님, 현지 스님, 시각 스님을 비롯해 이전에 활동을 했던 동문들이 함께했다.

무등 스님은 이 자리에서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향후 불교예절과 교리와 역사, 초청법회 그리고 신행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 나아가야하는 종교이며 스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것이 재가자이다. 청년불자들은 그래서 중요하다.”

한편, 이날 모신 아미타부처님은 높이 1m의 목조불로 불교학생회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자비사상으로 나눔 실천

광주생명나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6월 20일 빛고을시민회관에서 ‘2011아픈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특히 발병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해 만성신부전, 루프스성 신염,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신음하는 12살된 남기우 어린이외 2명의 환우의 치료비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는 광주불교방송 이지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굿페마루의 판굿, 반야유치원생들의 율동, 해뜨는다문화센터 아이들이 오카리나, 조선대학교 무용팀의 무용, 성악가 김제선, 김혜미의 성악, 광주생명나눔 이사들과 김은희 후원회장의 발원기도, 가수 강신, 김원중씨의 노래, 환우치료비 전달식 진행된다. 행사의 마지막은 광주생명나눔 이사스님들과 유치원아이들이 함께 동요를 합창하고, 홍보가수 주권기씨의 노래로 펼쳐졌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들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조금마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출연진 모두가 무료출연(재능기부)을 하여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행사수익금 전액은 환우지원금에 사용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치료기금도 함께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군산 동국사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된다

문화재청, 석가삼존상 및 복장유물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군산 동국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 전북지방문화재와 복장유물의 보물 승격을 지정예고 한다고 관보를 통해 6월20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는 전북지방문화재 제213호인 석가여래와 가섭존자상, 아난존자의 삼존상과 이 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373점이 봉안돼 왔다.

삼존상에서 발견된 조선중기의 전적류(경전)와 후령통 등 373점도 모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일괄 지정돼 보호받게 됐다.

군산 동국사에의 삼존불이 보물로 지정 예고됨으로서 군산지역에는 발산리 석등과 석탑과 함께 3점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으며 사찰에서 보유하는 보물급 문화재는 이번 동국사 삼존상이 유일하다.

동국사 삼존상은 본존불인 석가여래불과 가섭존자, 아난존자로 구성돼 다른 절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희귀성이 높은 유물이다. 또한 제작 연대와 봉안처 등의 명확한 자료가 함께 발견돼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석가여래불의 형식과 가섭존자상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생동감 있는 표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식 사찰에 조선시대의 삼존상이 봉안 된 것은 본래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 봉안돼 있던 불상을 전북 종무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남곡 스님(1913년~1983년)이 현재의 동국사로 모셔와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하나되기

친선 체육대회 열고 화합 도모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6월 19일 상무중학교 체육관에서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교활동을 전념해준 포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지역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겠다”

KBS 전주총국 ‘디딤돌 봉사단’ 봉사활동

금산사복지원에서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 (관장 보연)은 KBS 전주방송총국의 봉사단체인 ‘디딤돌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장수(영정)사진촬영과 방송에 관한 특강 등을 6월 21일 진행했다.

서원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장수사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기본 메이크업부터 사진촬영, 액자까지 완성해 전달하는 이 행사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인력의 재능기부 봉사로 15명의 어르신들의 사진을 촬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맑고 향기로운 노래 이야기’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불교환경운동의 지평 확장을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심진 스님과 도신 스님, 법능 스님의 노래와 미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면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정율 스님의 성악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가야금병창의 다솔 스님과 서울 선(禪)무용단의 선무,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의 환경노래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환경법회 및 빈그릇운동 캠페인, 초록세상 밝은마음 대중공양, 어린이생태학교, 선재역사문화탐방,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나누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나누기, 망월동 구묘역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행사 관계자는 “생명평화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여행 블로거, 산사에 빠지다

익산시, 여행 블로거 초청 숭림사 등 팸투어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여행 블로거들이 익산 팸투어의 일환으로 숭림사에서 산사체험을 하며 산사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익산시는 ‘화합과 소통, 치유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여행블로거 22명을 초청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를 6월 18~19일 1박 2일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숭림사에서 범종 타종, 발우공양 및 108배, 참선 등 전통사찰 체험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8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향제줄 풍류의 공연과 함께 보석박물관에서 이한수 시장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관광홍보 영상물 상영과 관광설명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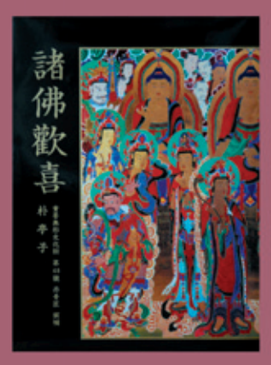
19일 아침에는 성당포구마을에서 금강의 뱃길을 따라 1천 500년 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백제와의 역사문화 길을 물살을 가르며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도시와 달리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 종교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익산시의 특징을 살린 ‘4색 종교 유무현 자원’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농촌마을의 훈훈한 인심이 더해진 웅포마을 시골밥상과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꽃화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산사에서 숙박하며 산사체험을 경험 해보는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金泥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러나온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투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6〉
원공국사 지종
(圓空國師 智宗; 930~1018)

나의 병 때문에 중생을 외면할 수 없다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처참하다고 할 정도의 정변을 거쳐서 왕이 되었던 광종(925~975, 재위 949~975)은 즉위년부터 12년째 되는 961년까지 제도적 정비를 시행했다. 이후에는 말년까지 지방 호족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피의 숙청을 단행해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행보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광종은 자신의 왕권강화정책의 기반을 불교로부터 구하려고 노력했다. 광종이 호족세력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성종대에 활약했던 유학자 최승로(崔承老; 927~989)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 위에 불사(佛事)를 맹목적으로 믿고 법문(法門)을 지나치게 중히 여겨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제회가 이미 많은데도 별도로 원하는 향화를 올려 행하는 일[焚修]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을 구해 단지 기도만을 일삼으니, 한정된 재력으로 무한한 인연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불교 교단의 행사를 지나치게 행했다는 비난인데,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날선 비판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이 정도의 비판이 선대 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행해졌다는 것은 광종의 불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려사〉 광종조에서 "참소를 믿고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마음 속에 스스로 의심을 품고 죄악을 소멸하고자 널리 제회(齊會)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광종의 치세에 이루어진 피의 숙청이 만만치 않았고 광종 스스로도 부담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광종의 불교세력을 활용한 왕권 강화책에 처음 활용됐던 인물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균여 스님이다. 균여 스님의 사상적 성향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상당히 서민층과 가까운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민층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광종의 정치적 입장이 부합됐다. 그리고 그것이 균여 스님이 광종의 치세 중엽에 적극 등용되었던 이유로 생각된다. 하지만 균여 스님은 스스로 왕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기 보다는, 불교수행자 본연의 자세에 더 충실한 태도를 보여 실각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광종대의 대표적인 승려 중의 하나이면서도 입적 이후에 균여에게 시호가 추증되지도 비석을 세워주지도 않았던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광종은 나중에 국사가 되는 탄문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화엄종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일찍이 다른 대안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당시 중국 오월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던 법안종이 바로 그것이었다. 법안종은 선종의 일가이면서도 교학에도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독특한 가풍을 지니고 있었는데, 광종은 그 점에 착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950년대에는 오월로부터 천태종의 전적을 비롯한 불교전적을 구하려는 사신들이 고려에 몇 차례 방문한 바 있었다. 오월 불교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던 광종은 오월의 법안종을 수입하기 위해 일단의 승려들을 파견하게 된다. 959년이었다. 그리고 그 승려들 사이에 훗날 고려 법안종의 종문을 대표하게 되는 지종이 있었다.

비문에 의하면, 지종의 속성은 전주 이씨인데, 8세에 사나사(舍那寺)에 머물고 있던 인도승려 홍범삼장(弘梵三藏)에게 출가했다. 홍범삼장이 인도로 돌아간 후에는 광화사(廣化寺)의 경철화상(景哲和尙)에게 옮겨서 배웠으며, 946년에는 영통사(靈通寺)의 관단(官壇)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광종 4년(953)부터는 다시 희양산(曦陽山)의 형초선사(逈超禪師) 밑으로 옮겨서 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954년에 승과(僧科)에 합격했다.



지종 스님은 광종이 몰한 후 호국외제석원(護國外帝釋院), 광명사(光明寺) 등에 머물면서 대중을 아우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후 현종 9년(1018)에 원주 거돈사로 낙향해 곧바로 입적했다. 사진은 거돈사터에 있는 삼층석탑이다.

중국의 법안종에서 유학했던 스님
인도승려 홍범삼장에게서 출가해
고려 선종출신 국사로는 마지막 스님
법안종은 화엄종 견제 위한 대안

지종 스님의 오월 유학은 아마도 광종의 이러한 개혁정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비문에서 광종이 유학을 떠나는 지종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고, 이때 지종과 함께 유학에 나선 승려가 30여 인이었다는 점도, 그들이 모두 지종 스님의 연배였을 것이라고 추정해보면, 왕이 젊은 승려들을 유학 보내는 특별 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당시 광종은 증진찬유(證眞璨幽; 869~958), 정진긍양(精眞兢讓, 878~956) 등과 깊이 교유하고 있었고, 정종으로부터 선양받아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당성을 불교계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했던 내심이 서로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종은 현실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 세력인 화엄종과 선종 양자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그 지지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광종이 지종 등을 파견해 법안종을 수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법안종이 선종이면서도 교학을 충실히 겸하는 독특한 성격의 종파였기 때문이다.

지종은 오월국에 도착하여 영명사(永明寺) 연수(延壽; 904~975)와 천태산 국청사의 정광(淨光)을 방문했으나 교류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오월국왕에게 청을 올려 해동의 불교를 가르치고자 하였고, 오월국왕은 〈대정혜론(大定慧論)〉의 교수사로 삼게 했다. 970년에는 찬녕과 임식 등의 청으로 다시 전교원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을 강의하여 크게 칭송받았다. 이 무렵 꿈에 증진 대사가 현몽하여 귀국할 것을 재촉하여 개경으로 귀국의 발길을 서두르게 된다.

귀국한 뒤 지종 스님은 금광선원(金光禪院)에 머물면서 법을 펴고자 했으나, 광종이 975년에 몰하면서 강력한 후원자를 잃게 된다. 하지만 지종 스님은 계속해서 호국외제석원(護國外帝釋院), 광명사(光明寺) 등에 머물면서 대중을 아우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1013년인 현종 4년에 조정대신들과 현종의 청을 받아 국사의 위에 오르게 된다. 이후 현종 9년(1018)에 원주 거돈사로 낙향하여 곧바로 입적했으므로, 귀국 후 개경에 머문 기간만 40여 년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고려 불교의 역사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왕경에 머물렀던 선사는 없다. 고려 초 대부분의 선사들이 지방을 근거로 하고 잠깐 개경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지종 스님의 개경 체류는 너무나 오래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국사가 된 스님에게 한 친척이 병이 드셨는데도 왜 도읍 가까이 오랫동안 머무시냐고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어찌 안도선생(安道先生)이 죽을 때가 되고서야 비로소 떠나갔음을 알 것이며, 유마거사가 중생들 때문에 병을 앓고 또 그들을 근심한 것을 알 것이며, 진실로 바쁜 길을 당하지 않고서 어찌 멈춘 발걸음을 서두르겠는가. 너는 내가 도읍에 있는 것을 나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오직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병 때문에 중생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생각해보면, 지종 스님은 고려 법안종의 첫 번째 선사이지만 동시에 고려 초 국사나 왕사에 올랐던 선종의 스님으로서는 마지막 국사에 해당한다.

왕권의 안정은 곧 국가의 안정을 뜻하고, 스님의 유학은 애초부터 불교를 통한 왕권의 안정이라는 광종의 기대와 스님의 바람이 부합한 결과였다. 비록 스님이 귀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종이 몰하였지만, 스님은 백성의 안정을 가져다 줄 나라의 안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40여 년 간의 도읍 체류라는 선종의 선사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은, 점차 귀족 중심의 나라로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와 그 귀족의 후원을 받아 새롭게 등장하는 법상종의 교종세력을 보면서,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던 불조(佛祖)의 명맥을 끝내 부여잡고 있었던 아쉬움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와중에 지종은 법안종을 중심에 놓고 선교의 융합을 계속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종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적 후 법안종은 곧장 쇠락의 길을 걸었으니, 이로써 선종은 고려 말의 보조지눌을 기다려야 했고, 고려 불교의 선교융합은 대각국사 의천이 등장할 때까지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3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 상인 (下)
(親鸞上人)

신란의 가르침은 신심위본, 타력회향 등의 개념에서 보듯 자력으로 행증(行証)을 세우지 못하는 중생, 즉 번뇌로 가득 차 있고 한없는 생사유전으로 죄악에 물든 범부임을 먼저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 말세중생 구원의 근본임을 설하고 있다. 때문에 오로지 아미타불의 범부 구제를 위한 본원(本願)에 귀의하도록 설했다.



교토 니시혼간지의 전경

그는 특히 중국 담란(曇鸞)의 가르침인 왕상(往相)과 환상(還相)을 강조했다. 전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베풀며 함께 안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후자는 정토왕생을 이룬 뒤 죄로 오염된 현실세계로 돌아와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 불도의 세계로 향하도록 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신란은 이는 아미타불의 회향에 의한 것이므로, 자력을 배제하고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력에만 의지하라고 했다.

신란의 가르침 중 줄곧 논란이 된 부분은 악인정기(惡人正氣)설이다. 신란의 사후, 제자 유이엔(唯円)이 기록한 〈탄이초(歎異抄)〉에 '선인조차도 왕생을 이루는데 하물며 악인이야' 라고 한 신란의 법어는 악인이야말로 아미타여래의 자비에 의해 구원의 손길이 먼저 미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세간에서는 악인조차도 왕생한다. 하물며 선인은 당연하다고 한다. 이것은 그럴 듯하지만 아미타불의 본원의 뜻과는 어긋나는 말이다' 고 한다. 이것은 자력에 의한 왕생발원은 철저히 타력에 의지해야만 하는 아미타불의 본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번뇌에 휩싸인 말법시대의 중생은 어떤 수행에 의해서도 생사의 거듭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타의 본원은 악인도 왕생성불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오직 아미타불의 타력에 의지하는 악인이야말로 극락왕생할 수 있는 참된 인연을 맺고 있다고 봤다.

죄악 물든 범부임을 알아야
말세 중생 구원의 자격 있어

당시 민중들은 삶의 시작과 끝을 모르는 무질서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절망의 현장에 방치됐으며,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부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1232년 60세가 넘어 교토로 돌아온 후에는 타력염불에 관한 경전 등을 서사, 주석하며 포교에 몰두했다. 그러한 가운데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아들 젠란(善鸞) 사건이 일어났다. 제자들의 일부가 교설의 정통성을 젠란이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마저도 생불이라고까지 하는 등 이단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란은 아들에게 의절장을 보내 친자의 연을 끊었다. 이때부터 신란의 저작 활동은 아들의 사건을 잊기 위해서라도 하듯 더욱 왕성해지고 포교에도 열정을 쏟았다.

신란 사후 그의 묘당은 사원화돼 혼간지(本願寺)로 칭하게 됐다. 이후 제자들에 의해 분파가 이뤄졌으며, 초기에는 제자 신부츠(信佛)가 주지로 있던 붓코지(佛光寺)를 중심으로 한 타카다(高田)파의 세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15세기부터 신란의 8대손 렌뇨(蓮如)의 활동으로 혼간지파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다. 16세기 후반 혼간지파는 전국(戰國) 영주를 상대로 한 농민봉기인 잇코잇키(一向一揆)를 일으켜 정쟁에 휘말렸다. 봉기를 뜻하는 잇코는 당시 교단의 이름인 잇코슈(一向宗)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에도 막부를 연 장군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세력 분할을 위한 정략으로 오늘날의 니시혼간지(西本願寺)와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로 나누어졌다. 전자는 혼간지파로, 후자는 오오타니파(大谷)로 불리며 이 양대 교파가 오늘날에도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사)한국불교조계종 분한신고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 소속 사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종단은 종단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실체 조사를 합니다. 분한신고란 종단의 청정 수행 기풍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자 및 교임 등 일신의 변동이나 자격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하는 것이므로 종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분한신고 기간** : **2011년 7월 1일부터 ~ 동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4 (남부민동) 자화정사
◐ **신고요령 및 절차**
1. 신고인은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총무원에 제출한다.
2. 총무원은 초심 위원회와 재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3. 총무원은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 **구비서류**
1. 승려 및 교임 분한신고서 1부
2. 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 1부
5. 구 승려증 및 교임증
6. 구 사원등록증
7. 구 주지임명장
8. 법복 수한 증명사진 2매
9. 기타 추가 기재사항 (학력, 경력 등)은 증빙서류 첨부
10. 제반 서류경비 / 100,000원

◐ 유의사항
1.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종도는 자격 정지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한 신고기간 후 본 종단이 앞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효력 상실 되오니 기간안에 재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분담금 및 제반 공과금 미납시 신고 접수 불가 합니다.
4. 제반 사항 하자시 신고서를 반려 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본 종단에 가입하실 분 많은 문의바랍니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 원장직통 010-3262-100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동암
● 법 명 : 혜성. 혜화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457-8

위 사찰과 위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법하

(사)전통불교조계종 종정 및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총무원장 혜성 원산 종사



종 정 공해 경호 대종사
(무형문화재 제 9호 보유자)



종회의장 법화 종헌 대종사

원로회의장 경 일

호법원장 성 조 감찰원장 혜 공 감사원장 청 해 사정원장 율 원

호법부장 건 성 감찰국장 지 관 감사부장 도 안 사정부장 초 일 총무부장 혜 화 문화부장 대 원

총무국장 법 경 교무국장 지 봉 문화국장 정 일 의전국장 성 산 문화국장 진 광 행사국장 법연화

서울1종무원장 관 재 경북1종무원장 법 선 경남1종무원장 수 연

(사)전통불교조계종 종도 여러분께 알립니다. 본 (사)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부산 총무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자 경호(김송택) 큰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고 사단법인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이사장 혜성 원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총무원에서는 여러 종도님들의 뜻을 모아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근본이 될 수있는 거듭나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새모임의 날에 종도 여러분들을 뵙고 실천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날 짜 : 불기 2555년 7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음, 6월 11일)

■ 장 소 : 부산시 범일동 1454-17번지 총본산 영축사
(교통부 로터리에서 산복도로 범일 초등학교 중간 / 범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용)

(사)전통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있는 (사)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영축사에서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입종 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1매(종단구비),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증 사본 1통.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귀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51)365-8975.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4-01-053502-6 예금주 : 전통불교조계종)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월과정 단기반)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 이론 및 실기.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수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경호 큰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구궁법, 조상영가 찾는 법. 3. 사주 명리(성명)학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목	5~6시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게작법, 삼귀의, 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수. 목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의 바라. 작법무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 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발표회, 영산대재, 산신대재, 수륙대재 등)

■ **입학서류 :** 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 수 일 : 2011년 6월 20일 - 7월 20일** (수시)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바라. 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귀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51)365-8975.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등록 제 40-0863341호
(REGISTRATION NUMBWR)

구단구궁법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RADEMARK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1년 05월 03일

특 허 청 장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종교법인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부산녹야선원장
· 부산불교전법대학 불교학과 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저 작 권 등 록
제 C-2011-003967호
저 작 물 의 명 칭 및 제 호 :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등록사항
성명 : 정흥교, 창작 : 1989.01.01, 공표 : 1998.12.2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 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24시간 상담가능
직접상담 : 010-7415-0803

부산불교전법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
051)467-4665 / 010-7725-1024



휴가를 떠올려 보면 대략 이렇다.

'TV프로그램 몰아보기, 영화 몰아보기, 컴퓨터 오락하기, 꽉 막힌 도로, 북적이는 해변, 휴가철 치솟은 물가 걱정, 북적이는 공항, 새벽까지 즐기는 음주가무, 오전에는 쉬면서 누워 지내다가 닥치는 대로 먹기, 어두워지면 되살아난 식욕을 맘껏 채우기, 강가에 가서 밤새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기…'

이렇다 보니 매년 다가오는 여름휴가가 마냥 즐겁지 만도 않다. 자칫 잘못 갔다가는 일터나 일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쉬지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휴가는 말 그대로 '쉬는 기간'이다. 쉬려면 제대로 쉬어야 한다. 대충 쉬었다간 쉬는 기간 동안 잡념만 무성하게 자라난다. 몸은 누워서 있는데 더 피곤해지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쉬어야 한다. 휴가를 보내고 나서 늘어난 체중과 흐트러진 생체리듬에 더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휴가 기간 흐트러진 생활 습관과 몸과 마음을 다듬어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쉬는 기간은 꼼짝도 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길이 살길이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산사까지만 움직여 보자. 그 안에 길이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참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상언 · 이나은 기자



금쪽같은 휴가, 템플스테이로 빛을 내보자

■집중수행프로그램

집중수행프로그램은 최소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휴가를 오로지 사찰에서 수행으로 보내게 되는 일이 재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녀온 이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삶을 만났다"고 소감한다. 방학을 이용해 학업 능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동시에 다이어트까지 원한다면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한다.

안성 활인선원은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을 위한 집중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활인선원은 단식 수행을 하는데 선원장 대효 스님은 수행기간 중 법문을 통해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근본적으로 고쳐 몸과 마음에 건강을 되찾도록 해준다.

해인사 백련암에서는 성철 스님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아비라 수행이 진행된다. 예불대참회, 법신진언, 대불정능엄신주 독송을 반복하는 수행으로 입재일 5회, 둘째날 8회, 셋째날 8회, 회향일 3회를 하게 된다. 예불대참회 때는 108배가 진행되는데 수행기간을 동안 108배만 24번 하는 만만치 않는 수행이다. 해남 미황사 금강 스님의 참선 집중 수행, 성주 자비선사 지운 스님의 자비관 수행은 흐트러진 마음과 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방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수행 집중 프로그램 여름철을 맞아 곳곳에서 운영된다. 남방수행센터에서는 티벳, 미얀마 등에서 직접 스님을 초청한 집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해외에 따로 가지 않고도 집중 수행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수행지	날짜	수련명	참가비	연락처
안성 활인선원	7.4~11, 7.4~8.3	대학생 단식 삼매체험 및 단기출가 수련회	문의	031-671-7707
안성 활인선원	7.8~15, 7.8~8.6, 7.8~8.27, 7.22~27, 7.29~8.5, 7.29~8.27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 단식삼매체험 및 단기출가 수련회	문의	031-671-7707
제주 원명선원	8.17~24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 단식삼매체험 및 단기출가 수련회	문의	031-671-7707
붓다선원 (안성 황용사)	7.26~8.1, 8.12~18	붓다호흡법, 사마타 위빠사나 단식수행	붓다호흡법 하루 3만원, 단식과 심리프로 하루 5만원 (단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자율 보시)	010-7736-6869
봉인사 한길정진원	6.30~7.9	세계적 여성 명상지도자 디빵까라 세얄레이 초청 10일 명상수행	18만원(1박 2만원), 스님(참가비 없음)	031-574-5585
합천 해인사 백련암	8.4~7, 8.11~14	하계수련회 "4일간의 약속" 아비라 기도 (108배, 비로자나 법신진언 염불)	10만원(대학생5만원)	055-932-7300
부산 법왕정사	상시 운영	3000배,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10만원, 출가예정자, 행자, 스님 무료	02-456-0035
연방죽(봉화 담마나라)	7.10~8.20	여름 담마로까 집중 수행	자율보시	010-3214-1255
서울 제따나와선원	매주 목~토 집중수련	여름 단기집중 위빠사나 수행	자율보시	02-595-5115
깔야나미따 위빠사나 선원(남양주 봉인사)	7.16~28, 7.29~8.4, 8.5~8.11, 8.12~17	위빠사나 여름 집중수행 깨달음으로 직접 들어가는 법념처 수행	24만원	031-574-5585
안성 한국파욱명상센터 (용인 둥지골 청소년 수련원)	7.8~10.12	선정(사마타)와 지혜(위빠사나) 집중 수련회 매주 월 수행 초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010-9536-8181
천안 호두마을	7.29~7.31	수행자간 수행의 시행착오나 의문해결하는 담마토크	2만 5000원	041-567-2841
성주 자비선사	초심자 7.7~10, 7.16~17, 7.23~24 경험자 7.2~3, 7.15~17, 7.9~10, 7.23~24	자비수관	자율보시	054-931-8874
법등사 티벳문화원	7.22~31	까루 린포체 초청 뉵네수행 샹빠까규 사가행, 사본존요가수행, 호마의식 및 천도재, 사본존 관정, 문수보살 관정, 니구마 관정, 녹색따라보살 관정		031-674-3453
해남 미황사	7.9~16, 8.11~15(공주 전통불교문화원), 8.15~21, 9.17~24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 참선, 묵언, 수행문답, 법문, 다도	35만원	061-533-3521

TIP 그래도 그냥 집에서 쉬겠다면?

1. 휴대폰 전원을 꺼둬라.

외부에서 오는 연락을 원천봉쇄해 오로지 나만의 휴가를 보내기 위함이다. 자동응답으로 휴대폰을 설정해 두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사전에 휴가기간은 연락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해 놓는다.

2. 컴퓨터도 켜지마라.

많은 사람들이 회사 업무를 휴가 때 진행하는데 이는 휴가를 방해하는 일이다. 메일을 보면 자기가 없는 사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는데 이것도 일의 연장선상에 놓여 쉴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때로는 게임의 유혹에도 빠져든다.

3.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방콕은 주위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르고 지나쳤던 주위 여러 장소나 추억의 장소에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정해 잠깐 씩 들르는 것도 좋다.

4. 손에서 책을 놓지 마라.

휴식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휴식의 방법이다.

5.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휴가비용이 들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집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재미와 건강이 깃든 방법이 있다면 조금 비용을 들더라도 이끼지 말 것.

자료 'ABOUT. COM'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방학 중 컴퓨터나 게임을 하고 늦잠을 자려는 아이들과 학원을 보내려는 부모들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산사로 보내보자. 컴퓨터에서 벗어나고 부모님과도 떨어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이다. 특히 생활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 아이들의 생활습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학기 중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하고,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은 정갈한 음식을 먹고,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은 꾸역꾸역 학원을 다니며 지친 여름방학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한문과 영어 등 특화된 프로그램은 올해도 등록을 서둘러야 참가가 가능하다. 익산 숭림사, 서산 부석사, 해남 미황사에서는 한자교육을 진행하며 비로자나 국제선원, 경주 골굴사, 의성 고운사, 동해 삼화사 등에서는 영어 여름수련대회를 연다.

수행지	날짜	수련명 및 프로그램	참가비	연락처
합천 해인사 백련암	7.25~28 (초등생) 7.30~8.2(중등생)	하계수련회 "4일간의 약속"	초등생 7만원, 중등부 8만원	055-932-7300
비로자나국제선원	8.19~22	마곡사 영어담마캠프, 새벽명상, 영어이야기, 영어게임, 국제매너, 계곡물놀이 등	25만원	02-6012-1731
서울 화계사	7.21~23	화계사 어린이 자연캠프 참선, 인절미 만들기, 아침 숲속명상, 비누 만들기, 다라니경 사경, 화계사 생태체험학습, 반딧불 음악회, 미니체육대회	3만 5000원	02-902-2663
성주 자비선사	7.29~31	명상요가, 자비심 키우기 자시선 명상, 찻물염색체험, 다식 만들기, 문화유적답사, 자비다선 차명상	자율보시	054-931-8874
경주 골굴사	7.24~8.20 (1주일 단위로 입소 가능)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 미술 무용 치유, 판소리, 생태체험, 영어회화, 한문교육	1주 49만원 2주 90만원	054-775-1689
화성 신흥사	7. 25~27	건강한 삶을 위한 어린이 템플스테이	3만원	031-357-2695
구례 천은사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	8.5~7	빈 그릇 공양, 아침 저녁 예불, 감로 숲길명상, 108배 정진, 협동놀이, 오감체험, 계곡 생태체험(물놀이), 노래와 율동, 스님과 함께하는 다도, 노고단 에코트레킹	회원 10만원, 비회원 12만원, 어머니 자원활동가 3만원	062-223-3623
익산 숭림사	8.5~7	한문템플스테이 주지 지광 스님 특강, 다도교육, 둘레길 탐방	5만원	063-862-6396
남양주 봉선사	7.30~8.1	연꽃과 함께 어린이 숲속학교	5만원	070-8802-1953
가평 백련사	7.28~30	신나는 여름방학 초등학생 템플스테이\	6만원	031-585-3855
여주 신륵사	7.22~24(초등생), 8.5~7(중고생)	스님과 컵등 만들기, 골든벨, 물놀이,	초등생 5만원 중고생 6만원	031-885-2505
고양 흥국사	7.21~23(초등생), 7.28~30(중고생)	탁본체험, 탑돌이, 108배, 다도, 팔상성도 맞추기, 골든벨, 반야심경 사경, 미니올림필 등		02-381-7970
의성 고운사	7.23~25(중고생), 29~31(초등생)	중고생 영어 수련회, 어린이여름불교학교	초등생 5만원, 중고생 7만원	054-833-2324
서산 부석사	7.24~7.30	사자소학, 법구경, 명심보감 등 한문교육, 별자리탐방, 요가명상, 발우공양	20만원	070-8801-3824
	8.2~3, 8.9~10	집중력강화 참선 집중 수행	3만원	070-8801-3824
서울 길상사	7.22~23(저학년), 25~27(고학년), 8.1~3(중고생)	템플스테이 여름 선 수련회	저학년 4만원, 고학년 및 중고생 6만원	02-3672-0036
양주 육지장사	8.8~13, 13~15	템플스테이 형식의 자기주도 학습캠프 목표설정, 의지 습관 분석, 학습방법 형성, 성적향상	77만원	031-871-0101
광명 금강정사	7.29~31	행복을 만드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5만원	02-898-8200
	8.13~15	청소년 여름캠프	5만원	02-898-8200
동해 삼화사	8.16~19	외국인과 함께하는 중학생 영어 캠프, 방학숙제하기, 명상, 독서, 108배	15만원	033-534-7676
	7.25~27, 8.10~12	부처님 생애, 사경, 계곡 물놀이, 별빛 명상, 만다라 그리기	5만원	033-534-7676
순천 선암사	7.29~31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061-754-6250
산청 대원사	7.24~26	108참회, 알아차림 명상, 발우공양, 전통문화프로그램	10만원	055-974-1112
김천 직지사	7.18~20, 26~28	사찰예절 및 습의, 예불, 운력, 108배, 발우공양, 반야심경 사경, 암자순례, 명상, 부모은중경, 3보1배, 천연염색	6만원	054-436-6084
공주 마곡사	7.30~8.1, 6~8	여름불교학교		041-841-6221
보은 법주사	7.18~20, 7.29~31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5만원	043-543-3615
부산 범어사	8.5~7	108배 하며 염주만들기, 스님과 대화하기, 암자순례, 발우공양	8만원	051-508-5726
	7.26~28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5만원	051-508-3122
김제 금산사	7.26~28	도량 맨발걷기, 계곡에서 물놀이, 석두스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콘서트, 전래놀이, 참선, 부모님께 편지쓰기		063-542-0048
화성 용주사	7.22~24, 29~31	마음의 보물찾기, 여름불교학교	5만원	031-235-6886
인제 백담사	7.25~8.21, 8.1~5, 8~12	Fly up into the sky 꿈과 희망, 도전 템플스테이	65만원	033-462-6969
영월 법흥사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7.29~31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 자연생태탐방, 나를 바로알기 명상, 기아체험, 농촌체험	2만원	033-375-3201
해남 미황사	7.24~31(초등생), 8.3~10(초중생)	여름한문학당. 발우공양, 예절, 다도, 산행.	30만원	061-533-3521
강화 전등사	7.26~29(초등생) 8.2~5(중고생)	강화로얄 워커파크 물놀이, 다도, 전래놀이, 단청체험, 참선체험, 풍등띄우기	12만원	032-937-0125
용인 화운사	7.30~31(중고생) 8.13~14(초등생)	숲속체험, 화학실험, 은 음악회, 우리말 108배, 숲속 포행, 미션여행, 만다라 그리기, 레크리에이션, 파티	5만원	031-335-2576
고성 옥천사	7.26~28(중고생), 7.31~8.2(초3~6)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발우공양과 오감명상	5만원	055-672-0100

■일반템플스테이



전국 130여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하동 금봉사, 창원 대광사, 원주 명주사, 경주 불국사, 양평 상원사, 성주 선석사, 진도 쌍계사, 광주 원각사, 봉화 청량사, 성주 자비선사, 고성 화암사, 용인 화운사, 서울 국제선센터 등 13곳이 올해 추가로 템플스테이운영사찰로 선정됐다.

도심에서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템플스테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찰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 휴가기간이 짧다면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반나절 정도 체험이 가능한 템플라이프도 시도해 볼 만하다. 템플스테이는 휴식형, 생태체험형, 전통문화체험형, 수행형 등으로 나뉘어 각 사찰에서 진행 중이다.

템플스테이 경험자라도 그 사찰만이 가진 풍경과 문화를 찾아 체험해보면 또 그 맛이 색다르게 느껴진다.

www.templestay.com

수행지	날짜	수련명 및 프로그램	참가비	연락처
보은 법주사	7.25~28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과 참선수행	15만원	043-543-3615
공주 마곡사	8.13~15	가족 템플스테이	5만원	041-841-6221
양주 육지장사	7.16~18, 23~25, 29~8.1	심신개선을 위한 전문단식 다이어트 템플스테이	15만원	031-871-0101
서울 길상사	7.16~17, 28~31, 8.4~7	선수행, 좌선위주로 하는 템플스테이	12만원	02-3672-0036
순천 송광사	7.9~13, 16~20, 23~27, 30~8.3	1 · 2회 일반수련, 3 · 4회 선수련(심화과정), 기초교리, 반야심경, 보조사상, 선사상 강의	15만원	02-3672-0036
예산 수덕사	7.15~17,27~30, 8.3~6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 가야사터 등 불교유적 답사	9~13만원	041-337-0173
의성 고운사	8.1~3,5~7, 8~10	참선수행, 달밤 차마시기, 법고치기	10만원	054-833-6933
구례 화엄사	7.29~8.1, 8.5~8, 8.12~15	빈 그릇 '본래 면목을 찾아서' - 진실명상, 계곡참선, 특강 마음의 주인이 되라		061-782-7600
속초 신흥사	7.15~17	설악의 향기' 프로그램, 참선수행 템플스테이		033-636-7044
고양 흥극사	8.4~6	참 나를 찾아서	5만원	02-381-7970
광명 금강정사	7.23~24, 8.27~28	행복을 만드는 불교명상-자애명상, 위빠사나,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속체험	5만원	02-898-8200
고성 옥천사	7.16~14, 22~24, 26~28	사찰전통공양법체험, 산내암자 자유산책, 숲속걷기명상	1박 3만원	055-672-0100
경주 골굴사	수시	선무도, 선무드라 명상 테라피		054-775-1689
김천 직지사	7.9~10, 8.5~7	여름산사체험-사찰예절, 반야심경 사경, 암자순례, 부모은중경	10만원	054-436-6084
화성 용주사	7.2~3, 9~10, 16~17, 8.6~7(가족)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장 쉬운 행복의 길, 숲길명상, 연꽃 만들기	5만원	031-235-6886
	8.1~4, 6~7	집중 참선수행	20만원	031-235-6886
고창 선운사	7.9~10, 23~24, 8.13~14, 27~28	산사 체험 템플스테이	4~6만원	063-561-1375
동해 삼화사	7.25~27, 29~31, 8.1~3, 5~7, 22~24, 29~31	산사의 바람소리 무릉계곡 명상체험, 숲걷기 포살	일반8만원, 초중고 5만원	033-534-7676
부산 범어사	7.16~17, 30~31, 8.27~28	금어(金魚), 휴휴(休休), 심우(尋牛), 산행 템플스테이 계곡에 발을 담그고 스님과 한담을 나누는 ;윤좌법회' 금정사 산행, 참선	일반5만원, 중고생 4만 5000원, 초등생 4만원	051-508-5726
김제 금산사	7.26~28, 29~31, 8.1~3, 5~7, 12~14,	나는 쉬고싶다, 108배, 참선, 발우공양	9만원	063-542-0048
남양주 봉선사	7.2~3, 16~17	영혼의 스승을 찾아서, 예불, 108배, 발원문 쓰기, 명상, 차담	5만원	070-8802-1953
가평 백련사	7.8~9, 16~17, 8.3~4, 11~14, 19~21	불교기초교리 및 법문, 108배 명상, 인경체험, 잣 숲길 걷기	성인 1박 5만원, 학생 3만원	031-585-3855
여주 신륵사	7.2~3, 9~10, 16~17	신륵사 문화답사, 여주 남한강길 트레킹, 탑돌이	5만원	031-885-2505
남원 실상사	7.25~30, 8.1~6, 8~13	재가불자여름학림, 불교입문과정, 기본교리의 이해	1차 30만원, 2,3차 25만원	063-636-3031
보성 대원사	7.1~30	상시 휴식형 템플스테이	4만원	064-852-1755
영암 도갑사	8.5~7	참나를 찾아서		061-473-5122
해남 대흥사	상시운영	휴식형 (1박2일), 체험형(2박3일)	일반 1박 4만원, 중고생 3만원, 초등생 2만원	061-535-5775
영광 불갑사	상시운영	휴식형 (1박2일), 체험형(2박3일)	1박 3만원	061-352-8097
원주 구룡사	7.26~28, 8.2~4	금강숲 명상걷기 템플스테이, 한지공예, 108염주 만들기		033-732-4800
영월 법흥사	7.23~25,	꿈 주머니 만들기, 나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걷기 명상, 스님과의 꿈이야기		033-375-9173
인제 백담사	7.8~10, 7.22~24, 7.29~31, 8,12~14	참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일반인), 견우와 직녀의 참사랑 템플스테이(미혼남녀)	휴식형 5만원, 2박3일 20만원	033-462-5525
강릉 현덕사	상시운영	다라니 기도, 108참배, 오후불식, 통찰명상	1박 5만원	033-661-5607
제주 약천사	상시운영	올레 휴양템플스테이		064-738-5000
평창 월정사	7.8~10, 15~17, 8.3~6, 9~12, 14~17	초심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숲길걷기명상	일반 20만원, 고등학생 15만원	033-636-7044
용인 화운사	7.8~9, 8.26~27	자비명상, 참선, 숲속포행 (새벽예불, 우리말 108배) 발우공양, 차와 이야기, 요가, 콩밭메기 운력	5만원	031-335-2576
하동 금봉사		새벽예불, 참선수행, 발우공양, 차명사	1일 3만원	055-882-2371
서울 관문사	수시, 매주 월, 목 템플라이프	불교요가, 아침예불, 우면산 생태공원 숲걷기	1박 4만원, 당일 2만원	02-3460-5300
서울 묘각사	1박 2일 주말 상시템플스테이	108배, 타종 체험, 산행, 다도, 팔상도 체험, 사경, 낙산공원 산책	1박 일반 5만원, 청소년 4만원	02-763-3345
강화 전등사	8.9~12	참선집중수행, 요가수행, 1080배 정진	12만원	032-937-0125
화성 신흥사	8.6~8	건강한 삶을 위한 어린이 템플스테이	4만원	031-357-2695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독경에 불교의 보편화 · 대중화 · 세계화의 길 있다

(讀經)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김선근 교수는 6월 11 · 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퇴임기념 '불교와 인도종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18일 함께 진행된 퇴임법회에서는 저서 〈법화경 신앙과 사상〉 출판기념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김선근 교수는 퇴임법회에서 "비인권 · 비인간의 청산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발원하고 30년간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던 간디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간디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학문적 회향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5년간 〈법화경〉 사상을 연구했다"며 "〈법화경〉의 회삼승 귀일승(會三乘 歸一乘)사상이 남북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례 진행된 강의를 정리했다.

정리=이상언 기자



퇴임기념으로 출판한 김선근 교수의 〈법화경 신앙과 사상〉

인도를 알면 불교가 보인다

불교는 인도의 지리적 특성 · 풍토적 성격 · 인종적 복잡성 등에서 발생한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한반도의 15배가 되는 크기의 인도에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강줄기가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글, 사막, 히말라야의 광막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불교는 열대(熱帶)와 한대(寒帶)가 공존하며 지역마다 사람들은 판이하게 다른 생김새를 갖고 각자의 풍속과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 인도에서 생겨났습니다.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 실재 또는 원리인 브라만(Brahman, 梵)과 생명인 '나'를 뜻하는 아트만(Ātman)이 하나임[一如]을 고찰한 초기 우파니샤드(B.C. 800~500)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상의 발전에도 지역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더스강 유역과 갠지스강 상류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상이 갠지스강 하류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사상적 개척 계급은 브라만에서 크샤트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비(非)바라문계의 새로운 종교, 자유사상운동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도 사성(四姓)의 가장 윗자리에 있던 바라문과 달리 사문(Śrāmaṇa)이 종교지도자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문이란 일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촌락이나 도시에 유행하면서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출가자들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은 많은 사상가들을 배출했고, 자유사상을 제창하게 됩니다.

사상의 변혁기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중인도가 많은 출가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중인도에서는 벼농사 기술이 발전해 식량이 풍부했고, 부패가 빨라 조리한 음식이 남으면 버렸기 때문에 사문의 배출도 용이했습니다.

업의 과보를 법칙으로 승인한 불교

윤회전생(輪廻轉生) 사상은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무르익은 세계관입니다. 윤회를 인정하려면 윤회하는 주체가 전제돼야 합니다. 카르마(Karma, 業) 사상은 불타 이전부터 있었지만 당시에는 업의 과보가 법칙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와 함께 유력한 종교였던 자이나교도 업의 과보를 인정했지만, 그들은 행위의 결과를 벌(罰, daṇḍa)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불교는 카르마를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업(業)의 인과율'로서 조직했습니다.

또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 즉 자아(自我)의 개념은 영원불변하고 무한한 희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인간관은 우파니샤의 철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온(五蘊)의 어느 것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없으며 인간에게 오온의 화합 이외에 따로 오온을 소유하는 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단지 항상 변하고 제법들의 묶음 자체로서 오로지 현상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우연론이나 숙명론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우연론'이나 '숙명론'을 회통하는 연기설을 주창합니다. 사상사적으로 석가모니는 정통바라문 시대에(B.C.1500~500)의 세계관인 '전변설(轉變說(pariṇāma-vāda)'과 비바라문계의 육사외도의 세계관인 '적취설積聚設(Ārambha-vāda)'을 회통한 것이 연기설입니다.

석가모니의 실천

석가모니는 당시 시대사조의 두 주류인 짜르와까의 '쾌락설'과 자이나교의 '고행설'을 중도로 회통해 팔정도를 수행했습니다. 팔정도에 의해 어느 고정적인 입장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석가모니의 인식과 실천은 연기설에 근거한 중도의 삶입니다. 연기의 진리는 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空)이요, 공은 '있다' '없다'하는 유무의 이변을 떠난 것이므로 중도(中道)입니다.

석가모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성의 평등을 주창하며 "사람은 출신성분에 의해 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민이 된다. 출신을 묻지 말고 오직 행위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실천

〈금강경〉은 인도의 모든 인종, 종파, 남녀, 카스트 등의 차이를 넘어 보편성 획득을 위해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한 종교적 이상을 담은 경전이지요. 〈금강경〉의 인식과 실천은 "인도의 모든 윤리적 실천은 형이상학적 깨달음에서 유래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강경〉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길은 행복과 불국토 실현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대승운동의 일환으로 반야바라밀을 최초로 명쾌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제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반야(般若) 즉 지혜(智慧)이며 보살의 인식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종교적 관념의 측면에서나 사회실천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이타의 서원을 발하고 깨달음을 구해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실천이 부파불교시대에 들어오면서 희박해졌던 이것이 '석존의 불교'라는 대승불교운동을 통해 원래의 관점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는 출재가라는 분별된 입장을 버리고 법의 자각과 보살행을 강조합니다. 보시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자세는 상(相), 즉 겉으로 나타난 모습에 집착함 없이 해야 합니다. 나와 너가 존재하는 보시가 아니라 나와 너를 근원적으로 초월하는 무아의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은 사상(四相)의 부정인 '반야바라밀' 즉 '성성적적'의 인식으로 실천적 윤리관은 무집착의 행인 무주상보시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상구조는 간디의 윤리적 개념인 보편적 사랑[ahiṃsā]이 그의 진리로부터 유래하는 것과 같은 내용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금강경〉을 수지 · 독송 · 서사 · 해설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 불국토 실현의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금강경〉의 현대적 가치와 실현을 위해 수지독송

우리는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과 실천이 사회적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정립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구화된 지성적 자아관[homo faber]의 사조에서 상의상관적 '보살의 자아관'으로 갖는 사고의 습관을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둘째, 진리가 자기의 참 생명근원임을 자각하고 진리를 자기 생명처럼 존중할 줄 아는 습관을 〈금강경〉 제17 '구경무아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가 자기의 삶과 역사에 주인과 주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찰라찰라 자기의 내면세계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금강경〉 제32 '응화비진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넷째, 항상 진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의경전을 매일 수지 · 독송 · 사경하는 습관을 〈금강경〉 제8 '의법출생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과 실천의 이념이 무상으로부터 무주상보시가 나타난 것과 같이 불성생명(佛性生命)의 인식에서 만유일체관(萬有一體觀)으로 나타난 동체대비의 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강경〉 제4 '묘행무주분'의 수지 독송을 통해 각 분야에서 보편화 · 대중화 · 세계화 해야겠습니다.



불교는 고정관념 깼던 자유사상운동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라"

김선근 교수는…

1946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했다. 1965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을 역임, 문학석사, 철학박사, 연세대 교육대학원 도덕 및 종교교육 교육학석사, 인도 바라나스 힌두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1994년 인도 네루대 한국학 담당 교환교수, 2005년 일본 용곡대 교환교수로 강의했다.

1991년 외무고등고시 시험위원, 2000~2001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장, 2001~2005년 인도철학회 회장 역임, 2008~2010년 한국불교학회 회장 겸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도정통철학과 대승불교〉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The Philsophical Thought of Mahatma Gandhi〉 〈마하뜨마 간디 연구〉 〈베단따 철학〉 〈여의주〉 〈바가바따 기따〉 〈간디 서전〉 〈힌두 스와라지〉 등이 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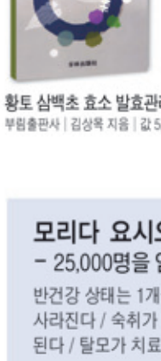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8〉

편협하지 않아야 천하지 않다

학승이 물었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그런 비천한 자는 두지 않는다."

問 澄澄絶點時如何
師云 老僧者裡不著客作漢

객작한(客作漢)은 사람에게 고용돼 경작하는 비천한 사람을 말한다. 맑고 맑아서 한 점의 얼룩도 없을 때는 마음이 쉬어서 매우 고요한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 이상 수련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선방에서 평생 선객으로 지냈던 어떤 노스님에게 직접 들은 말인데, 그분은 선방(禪房)에서 40여 년을 수행했는데도 하루 중에 일여하다가도 간혹 한 번씩 잡념이 들 때가 있다 했다. 그러니 얼마나 수행해야 얼룩 한 점 없는 경지에 이르겠는가.

그런데 설사 누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개 남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식객과 같이 비천한 자일뿐이다.

그럼 누가 비천하지 않은 자인가?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편협하지 않은 사람인가? 징징절점(澄澄絶點)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학승이 물었다.

"봉황새가 날아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날아 왔는가?"

問 鳳飛不到時如何
師云 起自何來

봉황새가 날아올라도 도달할 곳이 없는 것은 원래 도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봉황은 새 중의 새이다. 세상에 힘센 장수가 많지만 자기를 이긴 자보다 더 강한 장수는 없다.

수행자가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자기를 이긴 자가 되려는 것은 새 중의 왕인 봉황새의 기질을 타고 나서 그렇다.

많은 출가자들이 날아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무도 도착하지는 못한다. 그 누구도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도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수행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말이 아니다. 원래 도착할 곳이 없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세계를 꿈꾸면 안 된다. 입문하면 제일 먼저 이상세계를 좇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불교는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보면 출발지가 곧 도착지이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가 있는 장소를 깨닫는 것일 뿐이다. 맨 나중에도 손에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학승이 물었다.

"실제리지에서 한 티끌도 받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일체가 그 속에 있다."

問 實際理地不受一塵時如何
師云 一切總在裡許

실제리지(實際理地)는 본질의 세계이다. 만가지 법칙이 나오는 근원점(根源点)이다. 그곳은 허공과 같이 텅 빈 세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티끌도 있지 않다. 그야말로 청청무구(清淨無垢)이다.

그렇지만 일체 만물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으나 만물이 허공 속에 있듯 실제리지는 빈자리지만 만물의 이치나 현존하는 만물이 거기에서 나온다. 즉, 허공조차도 실제리지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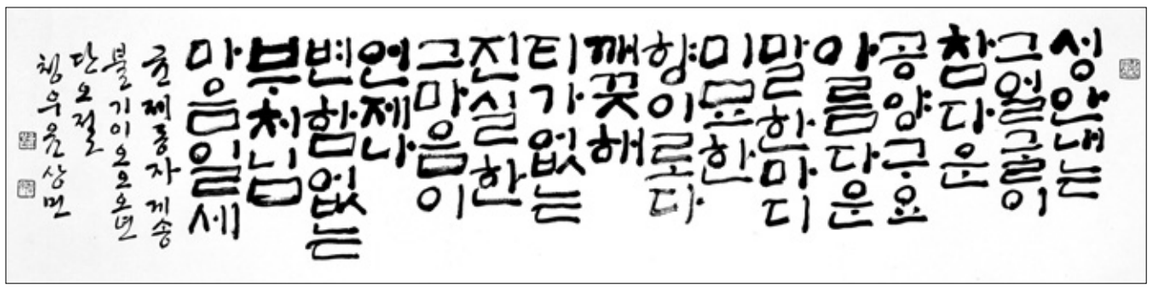
수행자가 수행함은 실제리지에 들어가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리지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쉬는 것이다. 마음을 쉬면 멀리 보지 않아도 다 드러난다.

흐린 물을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나타나듯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고 또 쉬면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뜻이 한순간에 모두 나타난다.

마음이 부처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이 세계는 이미 구원 되어있다는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⑰ 공양구(供養具)



供: 이바지할 공
裡: 속 리
妙: 묘할 묘
染: 물들 염

성 안내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

面上無嗔供養具 口裡無嗔吐妙香 心裡無嗔是珍寶 無垢無染是眞常(면상무진공양구 구리무진토묘향 심리무진시진보 무구무염시진상)

얼굴에 화가 없는 그것이 공양이요, 입에 화가 없으면 미묘한 향기를 토한다. 마음에 화가 없는 것이 귀한 보배요, 때도없고 오염도 없는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일세.(원게송) -균제 동자

※ 이 게송은 문수보살의 시자인 균제(均提)동자의 게송으로 위 작품의 내용으로 번역돼 널리 알려져 있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49
한국선과 선어록 19

선학입문(禪學入門)

선수행 입문초보자를 위한 지침서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선문〉 요약、발췌
올바른 수행의 진행과 점검으로 활용토록 제시

저자 김대현은 자신의 서문에서 〈선학입문〉에 대해 일찍이 전승돼 오던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선문〉을 가지고 전체 분량을 삼분의 일로 줄이고, 구성의 체제에도 약간의 변형을 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고 한다. 저자 김대현에 대해서 자세한 전기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서문을 통하여 보면 19세기를 살았던 인물로 간주된다.

한국불교전서 제10책에 수록본 〈선학입문〉의 구성은 2권본 4문으로서 다음과 같다.

김대현이 붙인 1855년 8월에 찬술하면서 붙인 [선학입문서]
[범례]
선학입문권상
제1 입식문(入式門)
제2 식문(息門)
선학입문권하
제3 색문(色門)
제4 방편문(方便門)
석전 박한영이 1918년 5월 상순에 붙인 발문
학인 오철호가 붙인 1918년 5월 하순에 붙인 발문 서선학입문후(書禪學入門後)
육당 최남선이 1918년 5월에 붙인 발문

〈선학입문〉에서는 수행에 입문하는 제1의 입식문에서는 먼저 선바라밀에 대한 뜻을 해석한다. 다음으로 선을 닦아가는 네 가지 명칭으로 세간선, 역세간역출세간선, 출세간선, 비세간비출세간선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세 가지 선수행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곧 호흡수행에 대한 아나파나문(阿那波那門), 신체수행에 대한 부정관문(不淨觀門), 마음수행에 대한 삼매의 심문(心門) 등이다.

이어서 세 가지 선수행을 여법하게 성취하기 위한 내 · 외의 방편문에 대해 설명한다. 외방편으로는 계율을 수지하고 의식(衣食)을 조절하며 조용한 곳을 선택하고 반연을 벗어나며 선지식을 참문하는 다섯 가지 예비조건, 색 · 성 · 향 · 미 · 촉의 다섯 가지 감각을 제어함, 탐욕 · 성냄 · 수면 · 산란 · 의심의 다섯 가지 번뇌를 벗어남, 음식 · 수면 · 몸 · 호흡 · 마음의 다섯 가지의 조화, 발원 · 정진 · 정념 · 선교방편 · 일심의 다섯 가지 수행 25가지 방편이다. 내방편으로는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두는 계연지(繫緣止) · 마음을 조절하는 제심지(制心止) · 마음을 체득하는 체진지(體眞止) 등 세 가지 지문(止門), 선근을 증장하고 악근을 대치하는 선악의 두 가지 증험, 편의 · 대치 · 성향 · 차제 · 제일의 등을 따르는 다섯 가지 안심법, 갖가지 치병법, 번뇌마(煩惱魔) · 음입계마(陰入界魔) · 사마(死魔) · 욕계천자마(欲界天子魔) 등 다섯 사지 마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호흡을 다스리는 제2의 식문(息門)으로는 먼저 수식(數息) · 수식(隨息) · 관식(觀息)이 있고, 다음으로 욕계정 · 초선 · 제이선 · 제삼선 · 제사선 · 사무량심 · 공무변처정 · 식무변처정 · 무소유처정 · 비상비비상처정의 선정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호흡을 헤아리는 수(數) · 호흡을 따르는 수(隨) · 번뇌의 마음을 제어하는 세 가지 지(止) · 사제와 십이연기와 구상(九想)과 팔배사(八背捨)를 닦아가는 혜행관(慧行觀)과 득해관(得解觀) 및 관식(觀息)의 실관 등 세 가지 관(觀) · 수수지관(數隨止觀)하는 마음을 돌이켜 보는 환(還) · 방편수행의 완성인 정(淨) 등 육묘문(六妙門)이 있다. 기타 호흡과 몸과 마음을 개별적으로 닦아가는 십육특승(十六特勝)과 전체적으로 닦아가는 통명관(通明觀) 등이 있다.

제3의 색문은 부정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체가 부풀어오르는 창상(脹想) · 시체가 파괴되는 괴상(壞相) · 시체에 피가 온통 엉겨 붙는 혈도상(血塗想) · 시체가 곪아터지는 농란상(濃爛想 · 시체의 색깔이 검푸르게 변하는 청어상(青淤想) · 시체가 동물들에게 뜯어 먹히는 담상(啖想) · 시체가 살이 헤쳐지고 흩어지는 산상(散想) · 해골만 남은 골상(骨想) · 불에 태워지거나 매장되는 소상(燒想)의 구상(九想), 염불(念佛) · 염법(念法) · 염승(念僧) · 염계(念戒) · 염사(念捨) · 염천(念天) · 염입출식(念入出息) · 염사(念死)의 팔념, 무상상(無常想) · 고상(苦想) · 무아상(無我想) · 식부정상(食不淨想) · 일체세간불가락상(一切世間不可樂想) · 사상(死想) · 부정상(不淨想) · 단상(斷想) · 이상(異想)의 십상, 팔배사(八背捨), 팔승처(八勝處), 십변처(十遍處), 구차제정(九次第定), 사자분신심매(師子奮迅三昧), 초월삼매(超越三昧) 등이다.

제4의 방편문은 제일 입식문에서 말한 내방편과 외방편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목이다.

이와 같이 〈선학입문〉은 천태대사의 〈석선바라밀차제선문〉을 필요한 대목으로 요약하고 발췌하여 선수행에 입문하는 초보자를 위한 지침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어떤 전문가용 못지않게 그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 그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준비 및 실제의 수행에서 그 차제와 갈래와 방편과 증과와 증험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수행의 진행과 그 점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7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작은 파장이 모이고 이어져 공명하면 온누리를 흔든다


설송 백지현 거사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 글 '미리 쓰는 유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스님 말씀처럼 유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백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답은 이미 스님이 주셨다. 언제 어디서건 순간순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라고.

"제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발을 막 내딛었을 때였어요. 출퇴근하면서 불교방송을 날마다 들었는데 어느 날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시민운동을 하신다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입회를 했어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시작한 이듬해인 95년이었어요. 처음 한 일이 산에 버려진 쓰레기 줍는 활동이었어요. 나가보니까 의무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른은 저하고 학생들을 이끌고 온 지도법사 선생님들 몇 분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를 줍고,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나눠주는 일을 했지요." 느낌이 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맑고 향기롭게 역사 설송(雪松) 백지현(법원사무관, 55)거사 말씀이다.

"법정 스님은 그로부터 두 해쯤 뒤, 김천 직지사에서 수련회를 할 때 처음 뵈었죠. 그 뒤로 5~6년을 계속 수련회를 다녔어요. 돌아가신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이나 맑고 향기롭게 이사이신 이계진 선생님도 수련회 동기입니다. 부안에서 농사짓던 윤구병 선생님도 김천 직지사 수련회 때 오셔서 수련회를 같이하면서 강의도 해주셨어요. 그즈음에는 어른스님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 종교를 뛰어넘어 함께

하셨어요. 수련회 끝나고 수계식 때 스님께 받은 법명이 설송雪松입니다." 눈 속에서도 푸른 기상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푸르게 살라는 뜻이 담긴 법명은 늘 한결같은 백지현 거사에게 안성맞춤이다.

"윤구병 선생님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일러주셨어요. 설거지 할 때도 세제를 쓰지 않고 쌀뜨물로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도 절대 빨래비누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 책을 낼 때도 재생용지를 쓴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때 부안으로 3박4일 자원활동을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어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무척 아쉬워요. 하여간 자연과 함께하는 삶. 지금은 대안학교라 하지만 그때는 무슨공동체학교라고 했는데 거의 초창기 대안학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 공동체에서 농사를 지으며 강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변산공동체학교 이야기다. 변산공동체학교는 학교가 따로 있지 않고 마을 전체가 학교다.

"관악산 쓰레기를 꽤 여러 해 동안 치웠어요. 산에 갔다가 툇마루처럼 놓인 평상이 있잖아요. 그 곳에 앉아 쉬다보니 평상 밑에 라면봉지 같은 게 삐죽나와 있어요. 뭔가 싶어서 당겨보니까 라면봉지, 과자봉지 따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나와요. 나무 꼬챙이로 파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더군요. 거의 10년이 넘은 쓰레기들이었어요. 옛날 라면봉지라던가 라면땅 봉지, 과자봉지, 그리고 통조림 깡통이 많았죠. 그 다음에 소주병, 막걸리병 순이었어요. 먹고 난 뒤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버려둔 것이지요."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가지고 내려오기 귀찮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쓰레기를 묻고는 흙을 덮고 나서 평상을 놓았다는 말이다.

"라면봉지라던가 라면땅봉지, 통조림, 술병엔 모두 제조연월일이 쓰여 있으니까, 학생들은 '앗! 이건 내가 갓난아기 때 쓰레기다. 이건 몇 살 때 쓰레

> 평상 밑 삐져나온 비닐을 당기니
> 라면봉지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기다' 하면서 깔깔댔어요.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김자경실장네 자제들이 어릴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걔들한테 '이게 너희들보다 나이를 더 먹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웃곤 했죠. 딴 사람은 산에 갈 때 배낭을 메고 가는데 저는 곡괭이를 가지고 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산에 가는데 왜 곡괭이를 가지고 가냐고. 물었어요. 평상을 치우고서 쓰레기를 들어내야 하는데, 땅이 단단하게 굳어서 삽질을 해도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아 곡괭이로 캐내야 했지요. 학생들이 늘 40~50명 함께 갔었는데요. 한 사람 앞에 쓰레기를 큰 비닐봉지 하나 가득 채워 내려왔어요." 보통 평상 하나에 쓰레기가 1톤 트럭으로 하나씩은 나왔다. 그 일을 한 3년 남짓 했다. 그런데 학생들 의무봉사활동시간이 줄어들자 나오는 학생이 줄어 쓰레기 캐는 일이 어려움에 부닥쳤다.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서는 산에 쓰레기만 캐러 가기보다는 회원 산행모임을 만들어 산을 타면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도 주우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도랑 치고 가재 잡자는 얘기. "의기투합해서 산행모임을 만들어 이름을 '맑고 향기롭게 산행모임'이라고 지었어요. 99년도인가? 동두천 소요산에서 첫 산행을 시작했어요. 산에 갈 때 집게하고 비닐봉지는 꼭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운 햇수가 한 6~7년 됩니다. 관악산에서 학생들과 쓰레기를 캐던 일까지 보태면 10년이 넘도록 쓰레기를 치웠어요." 꾸준히 이어지다보니 산에 자주 오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져서, 회원들이 쓰레기를 주우면 산행을 하는 분들이 수고한다면서 먹을거리도 나눠주곤 했다. "이런 얘기 드리기 쑥스럽지만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정부에서 홍보도 하다 보니 등산로 둘레 눈에 띄는 곳에 있던 쓰레기가 차츰 사라졌어요. 그 뒤로 저희는 외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저희 산행 모임 식구들이 쓰레기를 줍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은 작고 소박하다. 그러나 낙숫물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작은 파장이 모이고 이어지면서 함께 공명(共鳴)하면 온누리를 흔든다. 쓰레기가 줄어들자 맑고 향기롭게 공식 산행모임은 해산했다. 그렇지만 모임식구들이 그대로 남아 산행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친목모임으로 성격을 바꾼 지도 4~5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들 산행에는 쓰레기를 담을 비닐봉지와 집게가 늘 함께한다.

꾸준히 자원 활동 다니고, 또 수련회 때 가서 거들곤 하는 설송거사를 지켜보던 법정 스님이 지금 길상사 지장전 자리, 조그만 건물에 있던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부르셨다. "스님은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맑고 활동을 열심히 돕고 애쓴다며 고맙다'고 말씀하시곤 스님 책 〈산에는 꽃이 피네〉에다 사인을 해주시며 격려해주셨어요. 제겐 더없는 영광이죠."

스님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을까? "신문에 실린 스님 칼럼과 〈무소유〉를 읽고 '참, 청빈하고 수행이 깊으신 스님'이라고 느꼈어요. 그 때 이미 결혼을 했을 때인데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출가해서 스님마냥 살아봤으면 진짜 좋겠다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님 덕분에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 맺게 되어 고맙죠." 설송 거사는 '맑고 향기롭게' 취지가 너무 좋아 둘레 사람한테 많이 권했다. 함께하자고. '묘희원' 모둠에는 그때부터 함께하는 분들이 여럿 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균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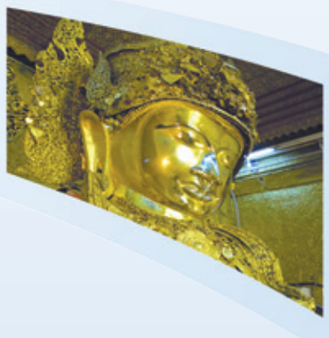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출발확정!!
■ 7월 27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990,000원~~ → 1,790,000원
■ 8월 24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040,000원~~ → 1,840,000원
* 모든 경비 포함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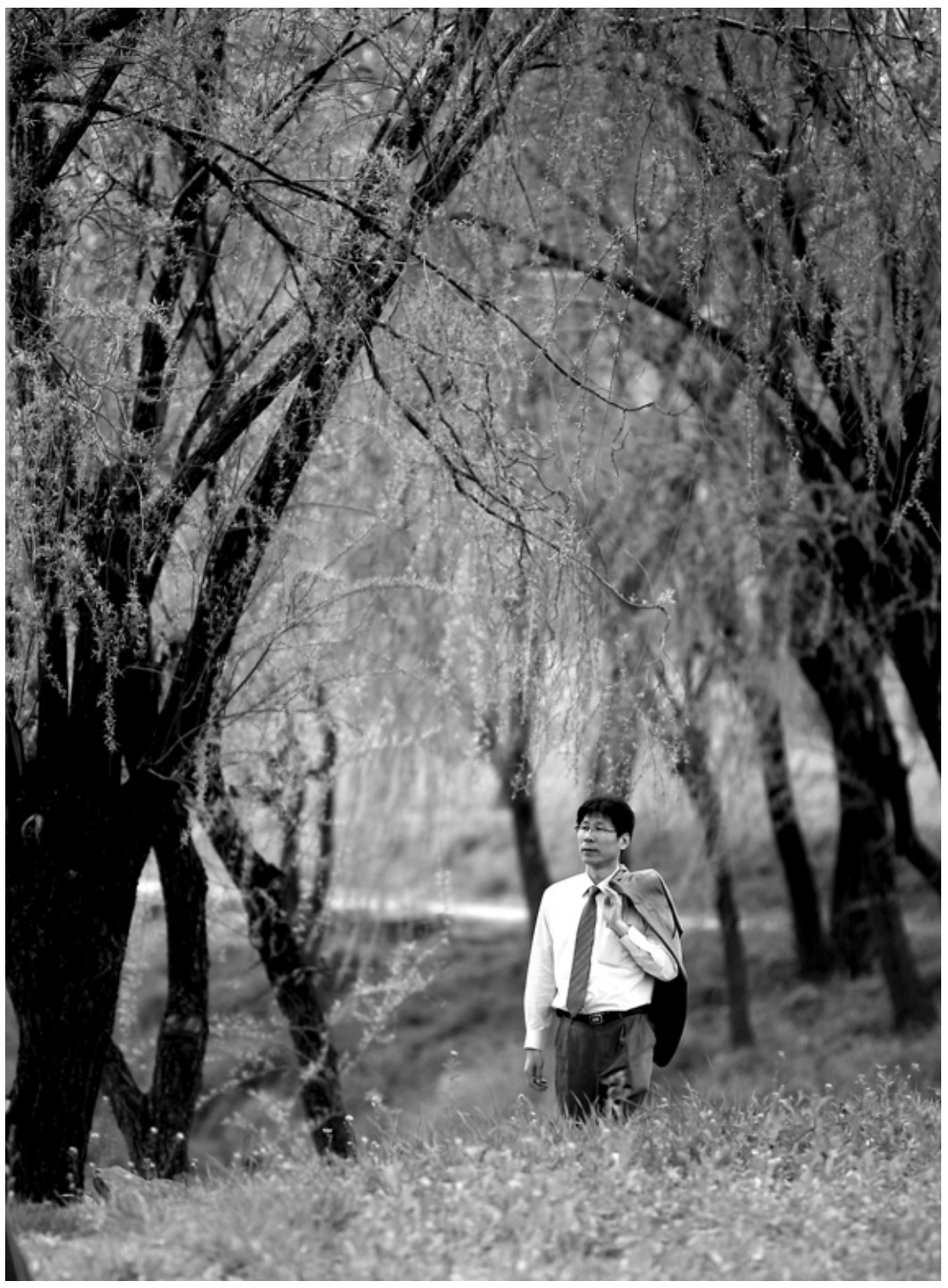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1,140,000원
출발일 : 7월 20일 / 8월 16,19,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699,000원 부터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749,000원 부터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649,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 하 연 투 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설송 거사는 불교에 입문한 뒤 1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

설송거사가 95년도 불교에 처음 입문할 때,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 조계사 불교대학을 2년 동안 다녔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지도를 했던 스님이 포교사 고시를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권했다. 공부했으면 되었지 무슨 포교사냐 싶어 펄쩍 뛰었지만 거듭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시험을 봤는데 떡 붙었다. "그즈음 포교사단을 새로 결성할 때였어요. 말이 어눌한 편이라 법회를 주관하는 법사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내밀었죠. 그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불교사회복지 강의를 한 해 동안 들었어요."

마침 설송거사와 함께 사회복지 강의를 들은 도반 가운데 자재정사(現 묘희원)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다. 그 인연으로 그곳을 봉사처로 삼아 포교사단에 포교봉사팀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포교사들하고만 봉사를 갔어요. 2000년이었어요. 그 때 자재정사에선 식자재를 자급자족하려고 밭농사를 한 3000여 평 지었는데 우리는 밭일을 도왔어요." 그렇

> 풀과 꽃, 나무를 가로지르는
>
> 빛 한 줄기를 모으면 마법이

게 몇 해 지난 어느 겨울 신규 포교사들이 왔다. 여자 포교사들도 꽤 있었는데 마침 겨울철에는 농사일이 없으니까, 외양간에 가서 모아놓은 거름을 경운기에다 싣고 밭에 가서 뿌리는 일을 했다. "겨울에 일하자니 여간 춥지 않습니까? 냄새도 몹시 나니까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도 감당하기에 벅찼어요. 너무 힘드니까 포교사들이 한둘씩 빠지더니 분위기가 흘뜨려졌어요."

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울 길은 없고, 손은 달려서 고민하던 설송거사는 하는 수 없이 맑고 향기롭게 산행모임 식구들한테 "내가 포교사를 하면서 자재정사라는 곳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손이 모자라서 그러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가니까 공기도 좋고 일할 맛이 나더라' 면서 부추겼어요.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산행모임 식구들이 여럿 동참을 하게 되었죠." 맑고 산행모임 식구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포교사들은 더 위축되어서 나오지 않아 자재정사 포교봉사팀에는 설송거사 혼자만 남게 되었다. 자연스레 포교사단 포교봉사팀은 해체되고, 맑고 향기롭게 나눔모둠이 되었다. 포교사단 포교봉사팀 산파였던 설송거사는 뜻하지 않게 맑고 향기롭게 묘희원 나눔모둠 산파역도 한 셈이 되었다. 물이 골 따라 흐르듯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난다.

"자재정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자재정사가 묘희원이란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이 가면 따뜻하게 맞아 주셨어요. 봉사자들이 가면 재가자들이니까, 절이지만 일할 때 막걸리를 먹어야 힘이 난다면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곤 했어요. 그 때 계시던 총무스님이 진짜 집처럼 편안하게 해 주셨어요. 냉장고나 주방에 가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꺼내다 먹으라고 그럴 만큼. 새참으로 과일이나 막걸리 주전자를 스님이 손수 갖고 오셔가지고 농삿일할 때는 배가 든든해야 한다면서 따라 주시곤 했어요. 가을걷이를 할 때는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애썼는데 맛이라도 조금씩 봐야 된다고 봉사자들한테 무를 한 두 개씩이라도 꼭 챙겨 들려 보내셨어요. 그냥 간다고 손사래를 쳐도 땀 흘리고 농사지었는데 이런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가면 당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농사는 한 철이다.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지만, 여름에도 비가 온다든가 가을걷이 끝내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청소나 주방청소도 해드리고, 할머니들만 계신 곳이니까 여자회원들은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김장할 때 양념도 미리 만들어 드리고, 장 담글 때는 메주를 풀어서 장 담글 준비해드리고, 일 년에 한 차례는 사무국 지원을 받아 버스 대절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했다. "지난해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양온천에 가서 온천욕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설송거사. 그는 17년을 한결같이 몸으로 말해왔다.

"그림은 그저 부분 합이 아니다. 소는 그냥 소이고, 초원은 그냥 풀과 꽃이고 나무를 가로지르는 햇빛은 그냥 빛 한 줄기지만, 모두 모으면 마법이 벌어진단다." 영화 '플립Flipped'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는 말이다. 화엄경(華嚴經)은 본디 잡화경(雜花經)이다. 화엄(華嚴)이란 잡화엄식(雜華嚴飾)을 줄인 말로 들판에 한껏 피어난 화려하거나 소박하고 이름 없는 꽃들이 공명(共鳴)하는 그림이다. 그처럼 '맑고 향기롭게'란 모두가 평등하여 제 나름대로 핀 자태와 향기가 어우렁더우렁 공명하도록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삶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은 높낮이 없이 어우러지는 공평한 세상을 일컫는다.



(지난 연재 김용태 교수는 김영태 교수, 1989년은 1994년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감로(甘露)

뒷산에 오르면 시선을 끄는 꽃이 있다. 싸리나무 꽃이다. 잎은 세 잎이고 짙은 자색과 홍자색이 앙상블을 이룬다. 조물주는 분주히 채필(彩筆)을 번갈아 들어가며 저리도 절묘하게 색의 조화를 배합해 냈을까. 그렇게 되기에는 자연의 내적인 지침에 철저히 따랐을 것이다. 비단 자태를 뽐내는 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육중한 바위나 아니면 소나무의 한 가지에서도, 변화무쌍한 죽순에서도 나의 사색의 촉수(觸手)는 방위에 무관하게 자유로움을 노래한다.

몇 일전 정동진을 지나 양양으로 가는 길 내내 안개가 엄습하였다. 아침 시간이라면 몰라도 오후인데 사방을 안개로 수놓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도원이구나 여겨졌다. 어드메 쯤 가다 보면 무지개가 바다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하늘에선 감로수가 내려 초록의 윤기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감로는 범어로 amrita 이다. '불멸의', '초

> 고대 인도인은 깨달음의 경지를 술로 표현
>
> 깨달음은 자신의 본래성품을 파악하는 일

목의 뿌리', '알코올 성분이 많은 술'을 의미한다. 감로는 제천(諸天)이 사용하는 음료수이고 또한 불로불사 한다고도 한다. 불교 이전부터 제천의 음료로서 소마주(soma 酒)를 마시면 불사(不死) 한다는 신앙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주(天酒)라 하여 불사의 이상경이라 하였으며 불교에서는 주로 열반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불교에서 감로는 도솔천의 달콤한 영액(靈液)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뇌를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사자(死者)를 소생시키는 최고의 자미(滋味)에 비유하였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문을 감로문(甘露門)이라고 한다. 선문에서 감로문이라고 하면 기량(器量)이 뛰어난 선승의 교화방법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행자를 교육하는데 딱 맞는 덕 높은 선승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감로계(甘露界)라고 하면 불교 이전의 바라문 철학시대부터 전승된 이상(理想)의 경지로서 불교에 유입되어 죽음으로부터 해탈한 열반의 세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고대 인도인이 최고 깨달음의 경지를 달콤한 술로 표현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깨달음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본래성(本來性)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의 본래성이란 도대체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가 깨달음의 문이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분석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명쾌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에서는 깨달음의 진실한 상태를 위음이전(威音以前)이라고 표현하였다. 위음이란 위음왕불(威音王佛)로서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나오는 부처님을 말한다.

위음왕불 이전의 일이란 일체의 차별이나 대립이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이다. 그 세계를 인간의 본래성에 비유하여 설한 것이 위음왕불 이전이다.

더위가 턱턱 숨차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청량음료를 찾기 마련이다. 손에 쥔 음료로 갈증도 해소되고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릴 것이다.

그런데 날씨와 무관하게 머리가 지끈거리고 답답한 가슴을 가누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감로법문이 단비 내리듯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터인데 할 것이다. 감로법문은 신들이 마시는 소마주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장아함경〉에 '내가 너희들을 가엾이 여겨 지금 감로법문을 설한다' 고 말했다.

필자는 일상에서 황금분할(黃金分割)을 생각한다. 대소의 비는 약 1.618 대 1 이다. 일상에서 절망과 희망, 행복과 불행, 정의와 불의, 넘침과 모자람 등이 동반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에게 불행은 전혀 없는 듯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그에게도 불행이 동반하게 마련이다. 희망과 절망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그 무엇에 일희일비할 것이 있겠는가. 찰라의 일들인 것을.

만일 누군가가 콧 등 위에 막대기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이내 고개를 젓고 말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라. 누가 서서만이라고 단서를 달지 않았는데도 누워서 세우기를 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누가 그대에게 올가미를 씌웠던가. 이는 감로법문을 체득하지 못한 중생의 허상에서 연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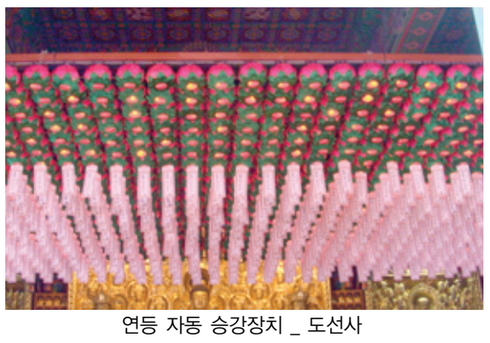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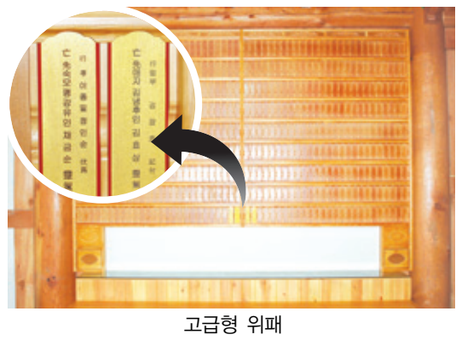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2

같은 사람… 동물보다 못한 처우 받아서야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다문화 시대에 이주민 포교를 제대로 한다면 미래 한국 불교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한 이주민 노동자의 영결식 모습

불교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포교가 관건이다. 세계화의 문이 열리고 다문화시대가 된 만큼 이 시대를 우리는 정말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떠한 계급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든 불성을 갖고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다시 한번 펼쳐져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인권적 작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펼쳐지고 있다. 일례로 창문도 없는 콘테이너박스에서 이주민노동자 30~40명이 전기통닭구이 모양처럼 촘촘히 붙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잠을 자야한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한다. 더구나 불법체류자신세로 전락한 이주민들, 난민신청을 기다리는 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다 더 못한 처우로, 마치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무작정 보호해주고 도와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한 나라의 국민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온 인류를 평등하게 서로 손을 잡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살아가자는 취지이지, 내 나라를 잊고 강한 나라 편에 서자라는 것이 아니다.

서양사람 앞에서 김치를 먹되 냄새날까 두려워 눈치 보며 숨어서 먹는 게 아니라, 당당히 펼쳐 먹으며 김치를 소개하고 함께 먹도록 권유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세계화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 갑작스럽게 닥친 다문화로 당황스러운 국민들과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이주민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를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며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경우, 불교만큼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류 평등적이고 생명존중적인 논리도 없는데, 불교는 너무나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당당히 불교를 알기 쉽게 포교하고 어디에도 기대고 싶어하는 이주민을 끌어안고 포용했을 때 세계적인 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해외로 나가 사찰하나 짓고 포교원하나 짓고 하는 힘든 일만큼 중요한 일이다. 안에서의 해외포교는 곧 다문화를 불교화하는 것이며 불교를 다문화화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참선하는 것도 좋으나, 이젠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활동상이 더 긴요하고 필요하다. 이것이 곧 포교이면서 기도인 것이기 때문이다.

세련되고 무엇보다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인류애적인 교리를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집이고 욕심이다.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 다문화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의 이주민들을 만나다보면 각양각색의 종교인들도 자연히 만나게 된다. 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불교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먼저 접근하려 한다.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시스템이 과연 형성되어 있는가 자문하게 된다.

정치전 건강칼럼⑦

여성에 좋은 익모초(益母草)



옛날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가 부실하여 아들이 열 살이 넘도록 몸이 허약하고 팔다리가 저리며 배가 아파 늘 고생하면서도 베를 짜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약초 캐는 노인을 찾아가 어머니의 병세를 자세히 말하고 약 두 첩을 지어와 달여 드렸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몸은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았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다. 아들은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약을 먹고 며칠은 좋았는데 다시 아프다고 합니다.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야 어렵지 않지만 쌀 다섯 가마와 은돈 열 냥은 받아야지. 워낙 귀한 약이니 깐 말이야. 그래도 의원을 찾아가봐. 몇 배는 더 달라고 할 거야!"

아들은 궁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아들은 그날 밤 노인의 뒤를 따라갔다. 노인은 제방 쪽으로 가더니 쪼그리고 앉아 약초 몇 포기를 캐서 잎은 모두 강에 버렸다. 아들은 제방으로 가서 잘 살펴보았지만 노인이 캐던 풀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이 잎을 강에 버린 것을 떠올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바위에 걸려 맴돌고 있던 몇 개의 잎을 찾아냈다. 아들은 그것처럼 생긴 잎이 달린 풀을 보이는 대로 캐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

아들은 그 약초를 어머니에게 달여 드렸고, 이틀쯤 지나자 병세는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 매일 약초를 캐다 정성껏 달여 드렸고, 어머니의 병도 아들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보름도 안 되어 완전히 나았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약초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에 어머니를 도운 약초이니 '익모초(益母草 · 사진)'라 불렀다.

익모초는 혈(血)을 통행시키고 물을 잘 배출시키며 어혈(瘀血)을 없애주어 새로운 혈이 생겨나도록 촉진해 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혈로 인해 생기는 질병의 성약(聖藥)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니 기(氣)를 위주로 하는 남성에 비해 혈을 위주로 하는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된다. 실제로 익모초는 미끄럽고 소통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생리 조절을 비롯하여 산전, 산후에 생기는 모든 질병에 쓰이므로 '익모'라는 이름이 명실상부하게 어울리는 것이다.

익모초는 약간 맵고 쓴 맛에 서늘한 성질로서 생리가 제때에 나오지 않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냉이 많아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약이 된다. 또한 자궁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임신이 잘 되도록 하며 산후에 자궁의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부인의 선약(仙藥)이 되는 것이다. 동물실험에서도 자궁수축, 지혈, 이뇨 작용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흔히 손발이 냉한 여성에게 익모초가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뱃속에 무엇인가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혈이 잘 소통되지 않아서 손발이 찬 경우에 좋은 약이 되는 것이고, 반면 추위를 타고 비위장이 냉한 사람이 먹었다가는 손발이 더욱 차가워지게 된다. 익모초를 약으로 먹으려면 성장이 왕성할 때인 단오에서 유두 무렵에 뜯어 햇볕에 말려서 쓴다. 생즙을 내서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입맛이 없는 경우에 좋다. 그렇지만 익모초는 치료제로 활용되는 것이지 혈이나 원기를 보충해주는 효과는 없으니 보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와 혈이 허약한 사람이 먹으면 해가 되고, 특히 비위장이 허약하고 설사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 - 정견(正見)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견

부처님께서 성도 하신 후에 최초로 하신 법문이 사성제, 팔정도에 관한 법문이다. 이는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 가르침의 핵심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성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환자가 몸이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환자가 병이 났을 때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병에 적합한 처방을 내릴 것이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병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성제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사성제에 대해 살펴본다.

세상에는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고통,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등이 있다. 설령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순간이 사라지면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은 괴로움이다.

사성제를 모른다면 어리석음
사성제를 옳게 이해함이 지혜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물질의 무더기인 색온(色蘊)과 느낌의 무더기인 수온(受蘊), 인식의 무더기인 상온(想蘊), 심리현상들의 모임인 행온(行蘊), 식의 무더기인 식온(識蘊)의 결합, 즉 오온(五蘊)의 결합이다. 그런데 색온은 변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색온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수, 상, 행, 식온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이다. 결국 세상이 오온이고 오온이 괴로움이므로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오온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苦)라고 설하셨다.

그러면 오온은 왜 생기는가? 오온은 업(業) 때문에 생긴다. 중생들은 업에 따라 적당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업은 어리석음과 갈애를 바탕으로 일어나므로 결국 어리석음과 갈애 때문에 오온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어리석음과 갈애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인 집성제(集)라고 설하셨다. 이처럼 세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온임을 이해하고 오온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리석음과 갈애임을 드러내는 진리가 집성제와 고성제이다.

어리석음과 갈애 때문에 범부들은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지 못하고 오온을 영원하고 행복하며 자아가 있는 것처럼 전도된 인식을 하며 집착을 한다. 이런 전도된 인식을 버리고 오온의 본질이 무상, 고, 무아임을 통찰해 오온에 대해 혐오하는 지혜를 일으켜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수행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도성제(道)이다.

도성제는 팔정도를 말하는데 팔정도는 지혜수행을 뜻하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계율수행을 뜻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선정수행을 뜻하는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을 말한다. 불교수행의 핵심은 지혜수행이지만 계목을 잘 지키는 계율수행과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인 선정을 닦는 사마타즉, 선정수행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지혜가 가능하다.

도성제에 의해 지혜가 강해지고 예리해지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갈애를 소멸하게 되어 고통이 소멸한다. 이때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증득하게 되는데 열반을 고통의 소멸인 멸성제(滅)라고 한다. 이처럼 도성제에 의해서 멸성제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사는 세상의 본질이 괴로움임을 말하는 것이 고성제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이다. 괴로움을 없애는 처방전이 도성제이며 괴로움이 버려져 행복을 실현한 것이 멸성제이다. 따라서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며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서울문고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명상 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심산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요."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요.

◐ 수련기간 : 7일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 수련원 (금륜선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욕심 버리면 '행복의 비결' 읽을 수 있겠지?

선운사 도솔암



도선사 마애불은 민중들의 온갖 염원이 담긴 의지처다.

선운사 앞을 흐르는 계곡은 안쪽으로 갈수록 더 맑고 정감이 가는 물길이다.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 가운데 하나인 도솔암. 워낙 유명한 기도도량이지만 사진으로만 보았던 마애불상을 꼭 친견하고 싶었던 나팔수씨. 맑은 계곡을 감상하며 아내와 함께 봄기운이 솟아오르는 산길을 걷는 것도 행복했다.

"여보님. 생각보다 계곡길이 편안하죠?"

"그러게. 가파른 산길이 나올까 걱정되지만 아직은 좋은데?" "걱정 안하셔도 돼. 계속 이렇게 좋은 길이니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걸이. 두 다리로 산길을 걷는 것도 따지고 보면 흔한 일이 아니다.



도솔천 내원궁



고려시대 조성된 내원궁의 지장보살상

반시간 정도 걸었을까? 길 오른쪽 커다란 암벽에 입을 쩍 벌린 동굴 하나가 보였다. 신라의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도솔 왕비와 중애 공주를 데리고 와서 수행을 했다는 동굴이다.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동굴이다. 안내판에 진흥굴은 길이 10m, 높이 4m라고 적혀 있다. 굴 안쪽 끝까지 들어간 나팔수씨가 '아!' 하고 소리 지르니 '아' 하고 목소리가 울렸다.

"진흥왕이 살았던 시대는 신라와 백제가 군사적으로 엄청 긴장 상태였을 텐데 진흥왕이 백제 땅 깊숙한 곳에 와서 수행을 하고 선운사를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

"선운사는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전설도 있고 백제의 검단 선사가 창건했다는 설도 있어. 검단 선사 창건설은 달마산 미황사 창건설화처럼 바다에 이상한 배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야."

진흥굴 앞에 서 있는 장사송(長沙松; 천연기념물 제354호)은 높이가 23m에 이르며 나이는 600살 정도다. 지혜장은 우람한 소나무 아래에서 검단 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원래 선운사 터는 못이었는데 검단 선사가 못에 사는 용들을 몰아내고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양산 통도사 창건설화와 닮았고, 도둑들을 교화시킨 부분은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 이야기와 비슷하다. 검단 선사가 교화한 도둑들에게 소금 제조법을 가르쳐 주어 생계를 잇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인근 주민들이 선운사에 보은염(報恩鹽)을 바치는 풍습으로 지속돼 왔고 마을 이름이 검단리인 점도 설화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다.

"나는 도솔암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뭔가 염원이 담긴 것 같아. 도솔천도 극락 같은 곳이야?"

도솔천은 다소 복잡한 불교의 우주관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우선 욕망이 들끓는 욕계(欲界), 욕망을 떠났지만 물질적 집착이 남아 있는 색계(色界), 물질의 지배를 벗어난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無色界)를 삼계라 한다. 삼계는 28개의 하늘(天)로 켜켜이 펼쳐져 있고 욕계의 맨 아래 지하에는 8개의 지옥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지옥 위에 놓인 4대주(四大洲) 가운데 하나인 남섬부주(南贍部洲)다.

사대주 위에 욕계에 딸린 6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4번째가 도솔천이다. 맨 아래로부터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은 욕정에 잠겨 있고 4번째가 도솔천이다. 그 위의 화락천과 타화자재천은 들뜬 마음이 많은 곳이다. 도솔천은 5욕락에 만족한 마음을 내는 곳이므로 미륵 등의 보처보살이 머문다. 보처보살이란 다음 생에는 성불을 할 보살을 뜻한다.

"드디어 도착!"

한 시간 가량 걸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앞산 봉우리가 그윽한 계곡을 따라 영원으로 이르는 듯 하고 오른쪽 암봉은 인간 세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계단처럼 느껴졌다. 도솔천에 대한 신비한 상념을 품고 올라온 탓인지 도솔암은 정말 사람의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부부는 극락보전에 들어가 삼배를 올렸다. 땡그랑 땡그랑 풍경소리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극락보전 뒤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나한전(전북문화재자료 제110호)이 있고 그 옆 깎아지른 암벽에 마래불좌상(보물 제1200호)이 있다.

나한전 뒤 불끈 솟구친 암벽 위에 있는 도솔암 내원궁(전북문화재자료 제125호)은 그야말로 도솔천의 내원궁인양 신비로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내원궁에는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보물 제280호로 지정돼 있다. 나팔수씨가 안내문을 읽었다.

선운사 지장보살좌상

고려후기의 불상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 불상은 사후세계의 주존인 지장보살을 조각한 것이다. 크기나 형태는 대웅전에 모신 보살상과 비슷하지만 조각수법은 훨씬 사실적이다. 균형 잡힌 얼굴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주며 어깨의 곡선도 부드럽게 처리돼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승형(僧形)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지장보살과는 달리 두건을 쓰고 있는 점은 고려시대에 널리 유행하던 형식이다.

내원궁 지장보살님 중생고통 소멸하는 '원만상'
마애불 앞에서 비는 소원 다 이뤄지길 염원

부부는 '도솔천내원궁'이라는 현판이 걸린 작은 문을 지나 가파른 돌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갔다. 좁고 가파른 계단은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길인 듯했다. 이 길을 다 올라가면 인간의 탐욕과 고뇌가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인가?

계단의 끝은 정말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그마한 법당에도 '도솔천내원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내부는 단정한 지장보살상과 연등, 후불탱 등으로 장엄돼 있다. 몇 사람이 열심히 절을 하고 있어 부부는 뒤쪽의 산신각을 먼저 참배했다. 산신각 옆의 바위에 동전을 잔뜩 붙여 놓았다. 부부도 동전을 붙이며 소원을 빌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동전이 없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내원궁 지장보살님께 조용히 절을 올리고 나와서 지혜장이 물었고 나팔수씨는 "잘 살다가 잘 죽게 해달라고 빌었지"라고 짧게 답했다. 지혜장은 피식 웃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이 또 있을까 싶기도 했다. 올라갔던 계단을 다시 내려와 마애불 앞으로 가는 동안에도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고려시대에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마애불 중 하나로 미륵불로 추정된다. 지상 3.3m의 높이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불상의 높이는 15.6m, 폭이 8.48m가 되며, 연꽃무늬를 새긴 계단 모양의 받침돌까지 갖췄다. 머리 위의 구멍은 동불암이라는 누각의 기둥을 세웠던 곳이다. 명치끝에는 검단 선사가 쓴 비결록을 넣었다는 감실이 있다. 조선말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이서구가 감실을 열자 갑자기 폭우와 뇌성이 일어 그대로 닫았는데, 책 첫머리에 "전라도 감사 이서구가 열어 본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전한다. 이 비결록은 19세기 말 동학의 접주 손화중이 가져갔다고 한다.

"검단 선사는 백제 시대의 스님이라고 했는데 이 불상은 고려시대 조성됐다고 하고, 또 감실에 비결록을 넣은 것이 검단 선사라고 하니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저기 명치끝에 비결록은 안 들어 있겠네?"

나팔수씨가 사각형의 구멍을 때운 흔적이 역력한 불상의 명치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결이란 것은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여 지지도 않는 것이지. 그렇게 보여 지지 않을 때 비결이 진짜 비결이 되는 거야. 비결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그 비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를 바라는지 시대마다 간절한 염원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도 마음 비우고 욕심 다 버리면 행복의 비결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비결은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일 테니까."

이서구가 꺼냈다가 얼른 다시 넣어 둔 비결을 보려는 시도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두려운 마음에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 손화중(1861~1895)이 1892년에 이 비결을 꺼냈는데, 당시 민간에는 그 비결이 공개되는 때 조선이 망한다는 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조선말기의 민중들이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이 비결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불상의 머리 위로 나 있는 세 개의 사각형 구멍은 옛날 기둥을 꽂았던 자리다. 지붕이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은 그 구멍 속에 다람쥐가 살고 산새가 산다. 부처님의 도량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불보살님 그 자체가 무량한 생명력이기에 힘겨운 민초들은 그 힘에 의지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지금도 비결록이 있다면 거기 뭐가 적혀 있길 바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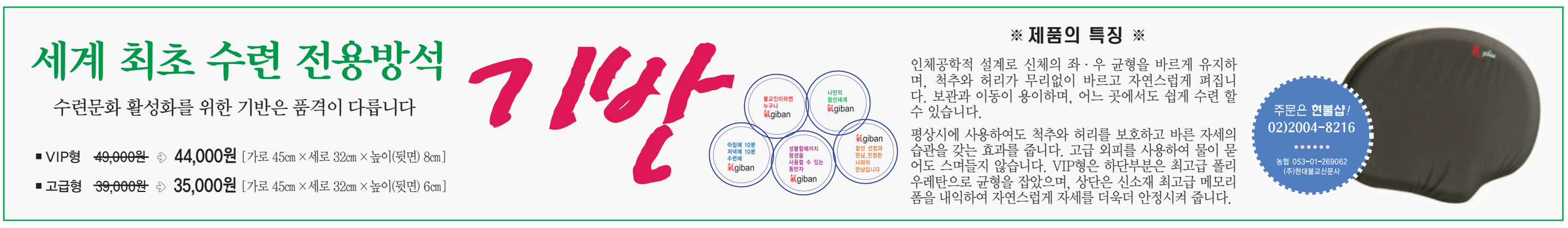
도솔암을 뒤로하고 내려가는 길에 지혜장이 물었다.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딜 파면 석유가 펑펑 솟아나는지, 그 포인트가 적혀 있으면 좋겠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선학의 대가가 선사를 말하다

동국대 현각 스님 '한국을 빛낸 선사들'

자장 스님이 자장암에 있을 때였다. 공양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러 나갔던 스님은 샘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 한쌍을 보았다. 자장 스님은 개구리들을 샘에서 건져 근처 숲속으로 옮겨 놓았다. 이튿날도 스님은 개구리를 만났다. 스님은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지을 물을 긷는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에 다시 개구리를 옮겨 놓으려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개구리는 입과 눈가에 금띠가 있었다. 등에는 거북처럼 무늬도 있었다. 필시 부처님과 인연 있는 개구리라는 생각에 자장 스님은 더 이상 개구리를 탓하지 않았다. 겨울이 와도 개구리는 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개구리를 위해 스님은 자장암 뒤 절벽에 손가락 만한 구멍을 뚫고 개구리를 넣어두었다.

"죽지 말고 영원히 살면서 자장암을 지키거라."

자장 스님은 개구리에게 수기(授記)를 내리고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했다. 이후 대중스님들은 이 개구리를 금와보살이라 부르고, 바위구멍을 금와석굴이라 칭했다는 이야기이다.


통도사 자장암에 가면 지금도 금와보살을 만날 수 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은 한국 선학의 대가이다. 스님은 신라 말엽에서 고려 초에 활동했던 스님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한국을 빛낸 선사들〉(도서출판 한길음더 刊)을 펴냈다. 책은 일생을 한국 선학을 연구했던 학자로서 정년퇴임을 앞둔 스님이 그간의 연구를 회향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책에는 자장 스님을 비롯해 원효 성사부터 나옹 선사까지 선사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책에 담긴 선사들은 한결같이 중국선의 황금시대에 버금가는 시기라 할 수 있는 나말여초 시기에 해동 선법을 드날리던 출격대장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책은 중국 중심이었던 불교 이야기를 '한국선'의 틀로 재구성해 우리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현각 스님은 "선(禪)이라는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은 대부분의 선사들은 당시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중국 유학을 시도했던 스님들이었다. 또, 고단했던 중국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당시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의 통치이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현각 스님은 "당시 스님들이 구법을 위해 중국·인도에 갔다고는 해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구법승 자신의 공부 경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독하게 수행을 완성한 후에는 중국 불교계의 퇴락한 정신을 일깨운 선지식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신라에서 태어나 16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간 혜초 스님은 "떠날 때는 100명이었으나 돌아온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어려운 천축 여행길에 오른 인물이다. 혜초 스님은 낯선 이역땅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왕오천축국전〉에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한민족의 혼을 만방에 유감없이 과시했다.

또,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로 유명한 범일 국사는 당나라 약산 스님으로부터 "대단히 기이하구나. 대단히 기이하구나. 밖에서 들어온 맑은 바람이 사람을 얼리는구나"라는 찬탄을 들었다.

성주산문을 개산한 무염 선사는 백낙천과 도반이었던 여만 스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 봤으나 이와 같은 신라 사람은 드물었다. 훗날 중국에서 선이 실종될 때에는 장차 동이(東夷)에게 묻게 될 것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엄 선사는 중국에서 6년간 시봉한 도응 선사로부터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니, 사람이 능히 도를 펼 수 있는 것이다. 동산(東山)의 선지가 타인에게 있지 않느니라. 법의 중흥을 오직 내가 너에게 주니, 나의 도는 동이(東夷)에 있다"는 말과 함께 심인(心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책은 이차돈 김대성 등도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수행자라는 관점에서 상세히 다뤘다. 이 책은 선사들의 행장을 통한 신심의 고양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사를 바로 알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손색이 없다.



한국을 빛낸 선사들 | 현각 스님 지음 | 한걸음더 펴냄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화장실서 휴지를 한쪽만 쓰는 이유는

日 다이닌 가타기리 선사의 대중강연 모음집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다이닌 가타기리 선사는 '나'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침묵하는 시간, 좌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쓸데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타기리 선사는 스즈키 순류 선사와 함께 일본 선불교를 미국에 알린 1세대로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선의 가르침을 전한 인물이다. 〈침묵으로 돌아가라〉는 가타기리 선사의 대중 강연을 모은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돌아가서 '나'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 "일상생활 하나 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마음 기울여 행하라"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게 되면 버려진 휴지가 담긴 휴지통을 주의해 보십시오. 거기 언제나 휴지의 한 구석 만이 사용된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바쁘다면 물론 휴지를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휴지에 주의를 기울일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훌륭한 소통입니다."(본문에서)

가타기리 선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침묵의 진정한 의미임을 강조한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 매일 아침밥을 먹는 것 등. 가타기리 선사는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온 마음을 기울여 그것을 행하라고 말한다. 그는 삶의 의미와 참 '나'란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선불교의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서 가타기리 선사는 침묵이란 무엇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침묵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선불교의 핵심을 쉬운 구어체와 풍부한 일화로 전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타기리 선사는 192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조동종의 승려가 된 후, 에코 하시모토 선사의 지도 아래 일본 조동종의 본산인 에이헤이지 선원에서 수행했다.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선원에서 활동했고 1969~1971년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에서 스즈키 순류 선사와 함께 미국 선문화의 기초를 닦았다. 1972년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미네소타 선 명상센터의 초대 원장이 된 가타기리 선사는 1990년 입적할 때까지 그곳을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침묵으로 돌아가라다이닌 가타기리 지음 | 이재희 옮김 | 사월의 책 펴냄 | 1만9000원

이나은 기자

"믿음은 한 자루 촛불과 같다"

진관 스님, 18번째 시집 '문수의 자화상' 출간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이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시집 〈문수의 자화상〉을 펴냈다.

책은 일체중생을 한몸으로 보고 대자비를 실천했던 문수 스님의 가르침을 진관 스님의 감성으로 노래한 시들로 가득하다. 진관 스님은 책에서 "문수는 천하를 다 준다고 하여도 거부할 몸/ 문수는 인간 세상을 그림이라도 그리려고 그랬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육신의 불꽃 그림/ 불꽃 속으로 들어가려는 문을 가장 싫어했다/ 그래서 문수는 자연의 옷을 입고자 했다"고 노래했다.('문수의 자화상'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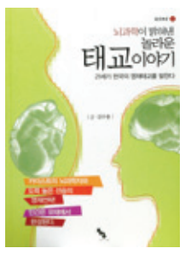
특히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되었다는 전설을 믿었다 믿음이란 한 자루 타는 촛불 같다/…오늘의 이 시대에 이차돈이 되었다"고 해 소신공양을 시적 언어로 풀고 문수 스님을 부처·보살로 승화시켰다.

문수의 자화상 | 진관 지음 | 한강 펴냄 | 9800원

조동섭 기자

영재는 사랑으로 자라

선승과 뇌과학자의 태교 대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가 바른 성품과 지혜를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랄 것이다.

그러한 아기의 능력은 유전자에 의해서만이 아닌 엄마의 뱃속 환경, 태어나서의 주변 환경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잘 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태교이야기〉에서는 태교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생활전통이고 한국의 정신문화임을 강조한다.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이자 뇌과학자인 김수용 교수는 그의 책에서 "〈태교신기〉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세계 최초로 태교에 관한 사항만을 집대성한 저술이며 이 분야의 걸작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뛰어난 저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책은 뇌과학자와 선승이 태교를 주제로 문답형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책에서 불교 선수행자인 마하 스님은 김수용 교수에게 태교에 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고 김 교수는 태교에 관한 뇌과학적 성과를 설명한다.

책에서 스님과 뇌과학자는 "영재라고 해서 그저 머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덕성을 잘 갖춘 인격체가 영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높은 정신차원으로 형성됨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태교가 과학적으로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더 나아가 태교를 왜 해야 하며,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원리와 해법을 제시했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태교이야기 | 김수용 지음 | 종이거울 펴냄 | 1만3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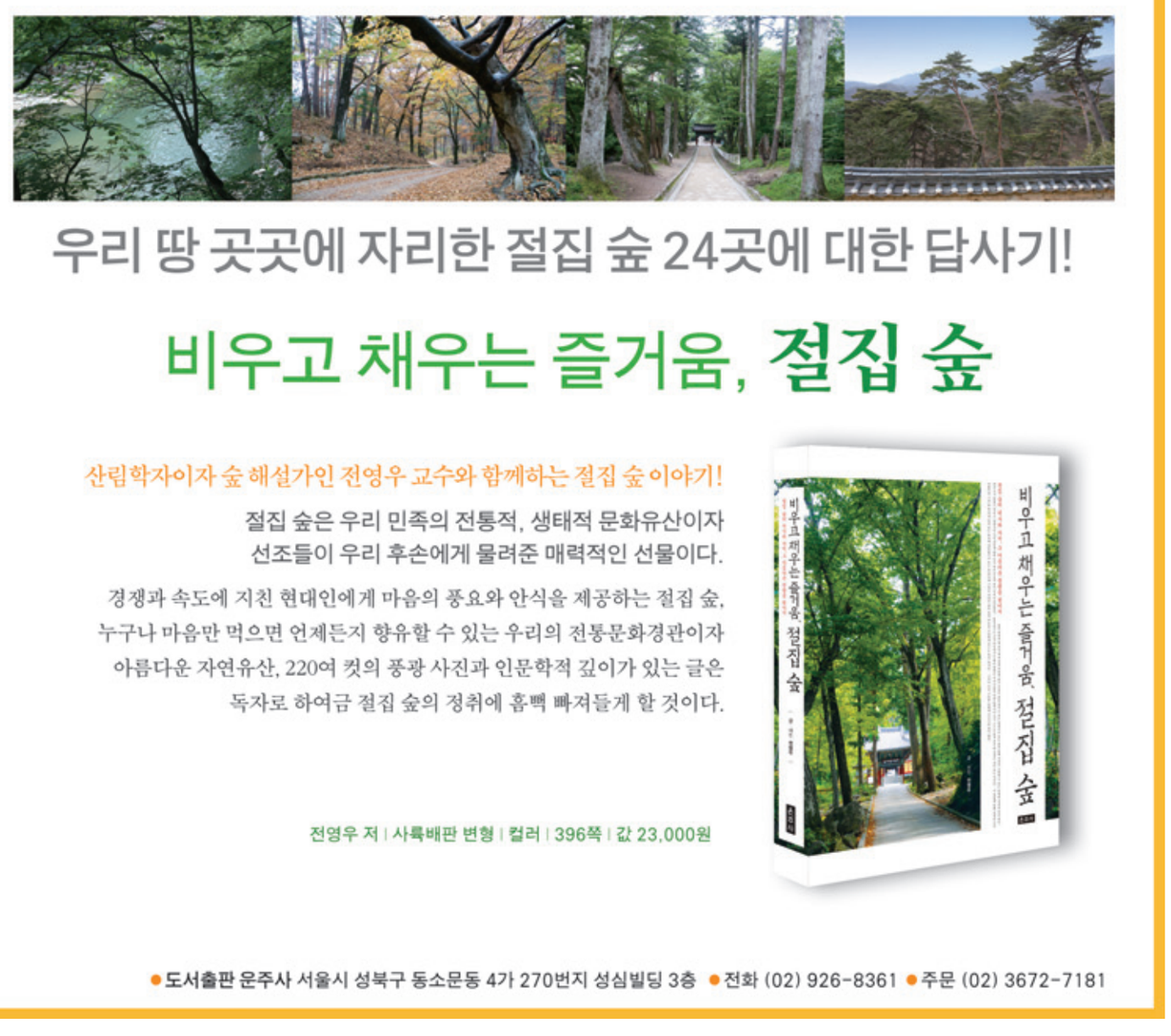
6/15~6/2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감사하고 사랑하며	우학	좋은인연
2	기도	법륜	정토
3	사카무니 붓다	마성	대숲바람
4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7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8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9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날을까	성전	마음의숲
10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한국불교미술 독일로 가다

선 스페이스+, 7월 21일까지 한·독 순회전… 독일서는 9월 6~21일 열려



①전윤미 – 석가모니후불도 ②이해기 – 성등정각 ③박경귀 – Link Buddha ④손광석 – 수월관음도 ⑤윤원선 – 약사여래도 ⑥이승주 – 연기緣起

부처를 그리워하는 작가들이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려 한국과 독일에서 불교미술 순회전을 연다.

스페이스선+에서는 한·독 불교미술 순회전 '붓다를 그리다-Seeing Buddha/Not-Buddha'를 기획했다.

이 전시는 불교미술 작가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불교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새로운 불교미술을 모색하며 문화 포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올 해는 불화·불상조각·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7명의 작가들이 베를린의 '아시아-태평량 포럼' 주간에 공식 참여해 서울과 베를린을 순회하며 한국불교미술의 독창성과 현재를 소개한다.

십수년간 부처님 일생을 주제로 작업해 온 이해기 작가는 '성등정각'에서 감지에 금, 은으로 부처님의 성도일을 재현한다. 부처님이 성도하는 장면에 샛별대신 보름달을 넣어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전윤미 작가는 '석가모니후불도'에서 〈묘법연화경〉의 교주인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해 〈법화경〉의 변상을 압축·묘사했다. 보색대비의 화려한 조선 후기의 석가모니후불도를 흑백사진으로 찍은 듯한 느낌으로 묘사하고 금선으로 문양을 그려 넣어 일반적인 불화와는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아시아-태평양 포럼'은 베를린 시청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간의 문화, 예술, 학술 포럼으로 2011년에는 9월 6~17일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함께 기획해 동양불교(일본, 중국, 티베트)와 차별화된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을 더욱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소개해 우리의 불교문화와 선사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7월 1~21일 삼청동 갤러리 스페이스 선+에서 열리는 서울전에서는 불화의 전통기법 중 하나인 금니선묘화와 올해 초조대장경 판각100년의 해를 맞이해 목각 경판을 인출하는 체험을 주말 오후 3~6시 경험해 볼 수 있다.

9월 6~21일 주독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관에서 열리는 베를린전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해 현각·견진 스님의 강연, 홍신자 선생의 명상춤판, 박경귀 작가의 불화 시연, 베르너 삿세 교수의 명상화 시연, 이승주 작가의 금니 선묘화 체험, 병오 스님의 인경체험, 불교 영화 상영 등 많은 문화행사를 함께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를 주최한 스페이스선+관계자는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독일 현지 분위기에 편승해 모든 만물의 조화와 공존을 주요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한 한국의 불교미술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 또 인간-생명의 삶이 어떻게 영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2-0732 이나은 기자

한지를 붙이고 뜯다보니 연꽃이…

한국화를 그리는 김춘옥 작가(65)는 한지를 손으로 뜯어내기도 하고 찰싹 달라붙은 종이에 물을 먹인 다음 기구를 이용해 뜯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 온다. 작가는 수묵이 종이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광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층처럼 종이를 집



자연–관계성(2010年)

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작가는 종이를 대여섯번 배접하고 그 위에 수묵과 채색을 하는 식으로 두께를 쌓은 다음 그것을 다시 한 장씩 걷어내다보면 꽃봉오리도 만들고 연꽃과 연잎도 만든다.

이른바 데꼴라주 기법으로 혁신적인 한국화를 실현해 낸 중진작가 김춘옥의 개인전이 7월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필립강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통성에 바탕을 두되 한국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현대화와 세계화를 함께 이루어냈다는 평을 얻고 있는 작가의 대작위주의 신작 17점이 선보여진다.

김 작가는 "대상을 눈앞에 보이는 존재, 직접적인 관계로만 보지 않고 다른 사물과의 연관 속에서 간접적으로 누리는 미감이 유현이다"며 "어떤 대상과 사물이든 그것을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반드시 상호관련성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02)517-9014 이나은 기자

풍경소리 32집 발매

9곡 수록, 반주 음악도 함께 실려

좋은벗풍경소리(회장 자용)가 찬불동요 창작곡 32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푸른 나무들의 시원한 그늘처럼 여름날 더위를 식혀줄 싱그러운 노래들이 가득 담겨있다.

보덕학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새 음반에는 △보물찾기 △꽃 피는 부처님 세상 △꽃마음 부처님 △착한 사람들 △연등부처님 △부처님 세상 △부처님을 닮았네 △작은 생명 △님이 오신날 등 9곡이 수록됐다.

또한 앨범에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반주 음악도 함께 실었다.

좋은벗풍경소리는 1994년 찬불동요 창작곡집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 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되며 일선 어린이 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된다.

이나은 기자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②

매혹적인 인물, 제석

제석과 함께 떠나는 신화여행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석이다. 제석은 고대 인도의 리그베다(Rig Veda) 찬가에 등장하는 천신으로 인도 뿐 아니라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이란 등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고대 인도의 신으로서 본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인드라(Indra), 빨리어로는 사카(Sakka)로 불린다. 한자로는 인다라(因陀羅)라고 음역(音譯)되기도 하며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 귀의하여 불법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 후 경전에서는 흔히 석제환인다라(釋帝桓因陀羅), 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로 음역했는데 이를 줄여서 석제환인, 제석천이라 했다.

고대 인도의 신이지만 익숙한 이유는 불교에 융화되면서 탁월한 적응력으로 불법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이미 존재해왔던 신앙 속 정점에 해당하는 하늘의 주인, 신들의 왕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옥황상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의 아버지 쪽 직계선조들을 모두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고 하며 제석천과 동일시하며 숭배하였다.



삽화 김영수

제석은 하늘의 주인이지만 그가 사는 곳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제법 주소지가 명확하다. 제석이 머무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 선견성이다. 도리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아름다움만 가득한 곳이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다시 태어난 곳일 뿐 아니라, 부처님께 복을 짓고 나서 죽은 영혼들이 주로 자주 태어나는 낙원 같은 곳으로 묘사되곤 한다.

제석이 살고 있는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에 해당하는데 그곳에 사는 천신(天神)들의 수명은 1000살이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생에 가까운 세월을 살지만 수명은 유한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두기도 하고 윤회를 한다. 제석의 전생은 인간이었다. 제우스가 벼락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제석 역시 번개를 다스리는 뇌신(雷神)으로 악마를 쳐부수는데 애용하는 무기는 금강저(金剛杵)이다.

제석은 인간이 바라보았을 때 가장 매혹적인 인물로서 남자에게는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이상형이며, 여자에게는 갖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리그베다(Rig Veda)로, 제석에 대한 찬가가 약 1/4 을 차지하고 있다. 제석은 흔히 다갈색 피부에 긴 머리칼, 거대한 체격과 탄탄한 몸매, 잘생긴 얼굴에 신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까지 갖춘 젊은 미남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아이라바타'라는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 또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 다섯 가지 욕심이 치성한 욕계(欲界)의 주인답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 음악과 미녀 등 향락을 즐길 줄 아는 남신(男神)이다.

제석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신이지만 불교에 수용된 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쓰는 등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특히 인간보다 더욱 '복'을 받는 일에 연연해하며 자신이 제석임을 들키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을 하는 등의 익살맞은 모습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제석의 또 다른 매력은 그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만나기 전, 제석의 과거는 제법 거칠다. 제석이 거저 도리천의 주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다. 아수라와의 격렬한 전쟁을 거쳐 천신의 자리를 쟁취한 제석의 과거는 부처님을 만난 후 부드럽게 바뀐 모습과 대비돼 그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마다 항상 도리천의 대가족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여 부처님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고, 악귀를 물리치며 불법을 수호하는 그는 과연 신이 되기 전 어떤 인물이었을까.



조민기 작가·칼럼리스트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한글세대·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출간!'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지은이 고 목



신간

연락 처
도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T.055-353-6142

신국판 300쪽
₩12,000

도서출판 미르아이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그 곳에 가면 산자락 같은 참회가 가슴을 때린다

⑩ 완주 화암사(花巖寺)

늘 그렇듯 오늘도 기어이 도량 가까이까지 차를 끌고 올라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길이다. 아스팔트길 옆으로 오솔길이 이어진다. 길은 잔잔한 호수 같다. 오솔길에 발을 들여놓자 길 위에 파문이 인다. 흙 위에 누웠던 바람이 일어나 풀잎을 흔들고, 풀잎 위에 앉았던 나비들이 일어난다. 일어난 나비들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고, 오솔길의 적막이 깨진다. 산새는 자리를 옮기고, 거미는 거미줄을 다시 친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을 일으킨 것 같아 자연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길이 깊어지고, 하늘과의 거리가 좁혀질 때 쯤 오솔길과 하늘 사이로 빛바랜 추녀가 머리를 내민다. '꽃바위절' 화암사다.

김제 금산사의 말사인 화암사는 신라 효소왕 3년(694년) 일교 스님이 창건했다. 중건과 중수를 거쳐 조선 세종 7년(1425년) 해총(海聰)스님이 중창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수도했고, 설총이 머물렀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많은 전각들이 소실됐으나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하앙식 건축물인 극락전(보물 663)과 한국 고대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우화루(보물 662) 등이 남아 있다.

우화루에 걸린 목어에 나비가 날아와 앉는다. 꽃바위절, 그래서일까 도량엔 나비와 벌들이 유난히 많다. 눈길이 가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벌들이 웅성거린다. 도량은 너무도 간결하다. 남북으로 극락전과 우화루, 동서로 불멸당과 적묵당이 사방을 막고 작은 마당과 하늘 하나를 열어놓은 게 전부다. 서있는 땅만큼 하늘이 지나가고, 바라보는 하늘만큼 도량은 깊어진다.

인간세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지 턱 돌아앉아 / 곁눈질 한 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나는 그 화암사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 〈중략〉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 구름의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 자락 같은 참회가 /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 화암사 안 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나는, 세상의 뒤를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 화암사, 내 사랑 /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 않으렵니다 / 〈안도현의 '화암사, 내 사랑' 중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절은 사라졌다. 마당엔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와있고 시인은 알게 됐다. 세상 뒤에 서 있음을. 화암사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누구나 불명산 능선 한 자락 같은 참회가 가슴을 때릴 것이다. 화암사가 하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극락전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든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국내 유일의 하앙식 건축물 극락전.(보물 663)



전각과 전각을 이어 사방을 막은 간결한 도량 모습.



산새 한 마리가 적묵당 처마 밑에 날아와 앉았다.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950 (100벌 이상) C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900 (100벌 이상) D형-여 정가 1,1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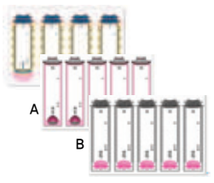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cm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옷/여자옷/위패



종이신발(남/여) 종이짚신 1켤레
할인가 1,300원 (100켤레 이상)
정 가 1,600원



위패칼라(70모조)
위패2도 A형/B형(70모조)
정 가 3,000원(100매)
• 위 패 칼 라 : 268×180㎜
• 위패2도A형 : 270×180㎜
• 위패2도B형 : 268×180㎜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10권 이상)
정 가 40,000원(1015페이지)



불자수지독송(칼라)
할인가 500원 (200부 이상)
정 가 850원 (양면코팅)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처답게 살라



봉은사 초청 법회,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

매주 봉은사에서 진행 중인 강주스님 초청 일요법회가 6월 19일 네 번째 시간을 맞았다. 이번 법회에는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이 법석에 올라 '화엄'을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이날 화엄 사상의 법계 연기와 본래부처론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했다. 해강 스님은 "법계의 연기는 '세계는 한 송이의 꽃'처럼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삼업(三業)'을 잘 지어 부처다운 삶을 살라고 말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법계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방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한 · 중 · 일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화엄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다'라는 말입니다. 통일신라 의상 대사께서 화엄교학을 이 땅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화엄은 한국불교의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연기입니다. 이는 존재의 실상을 말합니다. 존재 실상 연기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허상의 현상세계를 불교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크게 두 개의 세계화를 보여줍니다. 존재 실상의 연기로서 지향해야 될 세계와 존재 실상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허상세계의 고통세계를 말합니다. 존재의 실상 연기의 세계와, 고통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이 세계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궁극적 이상적 가치관은 열반입니다. 고통의 해탈을 말합니다. 그런 궁극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인 바로 수행입니다.

화엄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낱낱의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늘 · 땅 · 산 · 강 ·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불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수많은 존재들은 서로서로에 의지해서 그 관계를 뿌리로 삼아, 각각 개개인의 존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정이든 무정이든, 사람이던, 사람이 아니던, 나무, 풀, 짐승이든 간에 나를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아닌 모든 존재들은 나를 성립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달리 말해 나를 낳은 어머니요, 나를 기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고, 이유이고,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은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지만 둘이 아닌 불이의 존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라고 설했습니다.

한 선사는 이를 일컬어 '세계일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한 송이 꽃이면서,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한 송이 꽃이면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세상에서는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당신이 있을 때 우리 서로 행복했노라." 사랑은 '내 눈 속에 그대, 그대 눈 속에 나'인 것처럼, 사랑은 둘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둘인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주보게 되면, 나는 그대를 바라보는데 그대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대는 나를 바라보지만 내 속에 있는 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닮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나는 그대가 되고 그대는 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고, 누가 그대입니까. 나와 그대를 분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의 완성을 흔히, 둘이 하나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본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랑의 궁극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이상향으로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법계 연기의 존재 실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와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계의 눈으로,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꽃을 보면 꽃은 나고 나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스님은 "보는 자가 꽃이면, 보이는 것이 더 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유명한 말이 바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 '세계일화'는 사랑의 관계
> 동체대비로 세상 바라봐야

오늘은 지장재일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왜 울고 계십니까. 정답은 〈유마경〉의 유마 거사가 한 말 중에 들어있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보살의 눈에 있어서 보살에게 중생은 사랑하는 님입니다. 부처에게 님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우는 것은, 중생들이 불쌍해서 동정심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유마와 지장보살의 사랑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동체대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체대비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돌 하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법계의 연기로 세상을 보는 자에게는 나 아닌 세상 모든 존재들이 내 가슴속에, 심장 속에 알알이 박혀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중생의 고통이, 산 · 강이 파헤쳐지는 고통이 고스란히 밀려오는 것입니다. 밀려와야 합니다.

본래 부처니, 부처로 살아라

법계의 연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화엄경〉에서 제시하는 가치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심불급중생시무차별(心佛衆生是三無差別)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들이 부처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반해, 〈화엄경〉은 부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단지 부처답게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니다. 마음 쓰는 게 달라, 말쓰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결국 사는 게 다릅니다. 겉보기엔 모두 똑같지만 부처와 중생의 삶은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중생은 탐진치에 매여 살고, 부처는 탐진치를 떠나서 삽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삶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부처는 부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중생은 중생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그대는 본래 부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처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까?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부처처럼 사시는 분과, 불교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부처님 세상은 모든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알면 알수록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근원은 바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잘못해서, 마음 잘못써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냐면 무지 · 무명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립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모든 고통은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은 모두 삶 속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말, 마음, 행동 이 삼업을 잘 못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복도 그 삼업을 잘 쓰면서 비롯됩니다. 결국 삶에서 생겨난 문제는 삶속에서 고치고 없애는 것입니다. 삶을 떠나서는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 부처처럼 쓰고
> 말하고 행동하라
> 그것이 부처처럼
> 사는 길이다

어떤 수행자가 큰 수행자인지 모를 때,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삼업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 쓰는지만 보면 진정한 수행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불교를 배우고 공부했는데,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의 삼업이 조금씩 향기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수행을 잘못하고, 불교를 잘 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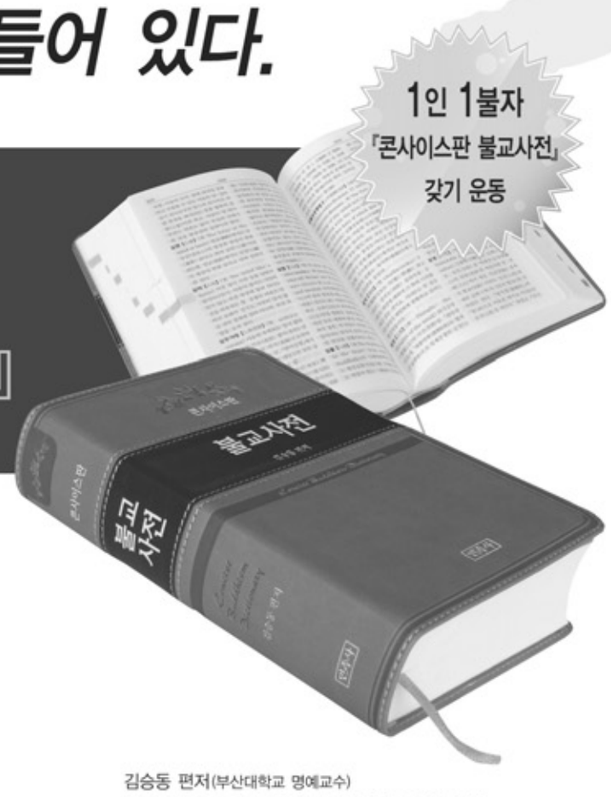
수행은 한만큼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이 중생의 원력과 불보살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업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삼업이 맑으면 세상을 맑고, 내가 세상에서 삼업이 탁하면 탁한 세상이 됩니다. 본래 부처인 내가, 충만한 삶을 살면 나의 삶은 그러한 나와 네가 우리의 세상이 불국정토가 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가. 그대가 부처니 부처답게 살라." 순간순간 내가 부처답게 말하고, 마음 쓰고, 행동하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수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단 1초라고 그 순간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그 1초는 부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삶을 부처님 삼업으로 채워간다면 부처로서 부처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화엄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한국구술인물사⑩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불교학생회 조직은 민청학련 가담으로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대문 형무소는 근 · 현대 항일 민주화운동의 상처를 간직한 곳이다.

전재성에게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가담하게 된 배경 구술을 요청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고교 시절을 회상한다. 당시를 회상하며 출가였는지 가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운을 뗀다. 중이 되겠다고 오대산 상원사를 찾은 것이다.

"신체적으로 어떤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탈출해야 되겠다 사회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무작정 하여간 짐을 싸들고 출가하려고 갔어요. 갔다가 며칠 한 이삼일 있다가, 근데 절에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규율에 맞도록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 그런 계율 같은 거 신경쓰고 일찍 일어나고 시간 맞춰서 뭐하고 이런 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서 입은 화상의 흔적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고(苦)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오대산을 찾은 것이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더 힘들다고 느낀 그는 며칠 더 묵고가라는 스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도망가듯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이미 중학교 생물선생님으로부터 불교 교리와 참선을 배웠다. 어려서 화상을 입은 이후 허약한 체질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출가는 고의 해결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불교와 인연이 닿았고, 전재성은 서울대 농대에 입학해 불교학생회를 조직했던 것이다.

불교학생회를 조직한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학생들이 지지했다. 농대불교학생회 회장인 그는 서울대 불교학생회 연합인 '총불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문리대불교학생회, 법불회 등 각 단과대 학생들과 어울리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서 유신체제를 고민하는 리더들을 만난다. 이 때 민주화인사들을 대거 만나게 된다. 총불회 활동에서 강창일(現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삼선개헌 이후로 시월유신 이후로 여러 가지 억압적인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니까 그러고 뭐 그런 문제들을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 번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재성은 1973년 겨울 전남 승주군 송광사에서 개최된 수련대회로 기억한다. 그보다 나중에 만난 사람이지만 황인범 선배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전재성은 총불회 활동과 함께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화운동 집회에 자주 참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도 긴급조치 4호를 피할 수 없었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⑫

깨달으면 보고 만나는 것마다 관음보살이 된다

대체로 참선하는 스님들은 오로지 화두일념(話頭一念)으로 정진을 거듭한다. 그래서 선방으로 하안거와 동안거를 한철씩 나게 되는데, 달리 기도나 그 외 수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거시작전이나 참선공부에 앞서 철저한 기도를 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다.

경봉 스님은 대오(大悟)하고 3년 뒤인 1930년 2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경봉 스님이 홍련암을 찾은 삼칠일(21일) 기도로서 깨달음을 되새기는 보임(保任)의 일환이었다.

홍련암 감원(監院; 암주)은 서응담(徐應潭)이었다. 확철대오한 경봉 스님의 소문은 이미 이곳까지 미치어 경봉 스님은 응담 스님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 경봉 스님은 요사의 빈 방을 하나 배정받고 다음날 낙산사 주지 함정묵(咸定默) 스님을 만났다.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낙산사 홍련암을 필자도 20여 년 전 기도를 하기 위해 찾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공부하는 스님들의 말씀이 아련히 기억이 난다.

원통보전에 낙산사를 소재로 한 숙종의 어제시(御製詩)가 걸려 있다.



양양 낙산사 홍련암

경쾌한 남행길에 낙가봉 오르니
바람에 옅은 구름 개여 달빛이 아름답네
대성(大聖)의 원통(圓通)한 이치를 알고자 하는가
이따금 파랑새가 꽃을 물고 오네
快登南里洛迦峰
風捲纖雲月色濃
欲識圓通大聖理
有時青鳥啣花逢

중국에서 돌아온 의상 대사가 이곳을 참배했을 때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나 바닷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의상 대사는 동굴 앞에서 기도하던 중 7일 만에 홍련 속의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 이후 동굴은 관음굴로 불리고, 굴 위에 홍련암이 지어졌다.

경봉 스님은 숙종의 시를 보고 시를 한 수 지었다.

물을 건너 구름 밟으며 봉우리에 오르니
연하(煙霞)와 풍월이 한 빛으로 어리었네.
관음보살 친견하기 어렵다하지 말라
큰 꿈 깨고 나면 날마다 만나리.
渡水畓雲到此雲
煙霞風月一光濃
觀音莫道難親見
大夢惺時日日逢

깨닫고 나면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관음보살이라는 경봉의 선시였다. 경봉스님은 바로 홍련암으로 내려와 수선(修禪)과 기도에 들어갔다. 기도시작한지 7일째 경봉 스님은 선정에 들었다가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바다 위를 걸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백의관음보살(白衣觀音菩薩)이었다. 관세음보살은 일출의 광명처럼 붉은 연꽃에 좌정하고 있었다. 꿈결 같았지만 정신은 샘물처럼 맑기만 했다.

그 기쁨은 어떠했을까? 의상대로 올라가 눈바람을 맞으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어린 홍송 한 그루를 관음보살을 친견한 기념으로 식수(植樹)했던 것이다. 紅蓮庵(홍련암)이라고 적힌 글씨는 경봉 스님의 글씨로 얼마전 화재에도 법당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㉝ 사천왕지

사천왕사지에 가면 신라밀교 만나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의 낭산(狼山)에는 능지탑, 중생사, 황복사지, 선덕여왕릉, 신문왕릉 등의 유적이 즐비하다. 특히 낭산 자락에 위치한 사천왕사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 사천왕사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다. 사천왕사는 신라의 유명한 고승인 명랑 스님(明朗; 생몰미상)에 의해 창건됐다. 삼국유사 문무왕 조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는 674년 신라가 그들의 도독부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50만 대병을 일으켰다. 이 사실을 미리 안 김인문은 의상대사를 통해 문무왕에게 알렸다. 신하들이 천거한 명랑 스님에게 당나라를 이길 비책을 묻자, 명랑 스님은 "낭산 남쪽에 신유림(神遊林)이 있는데, 이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세우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나라를 치려 세웠던 사천왕사
망덕사는 당나라 속이려 지어져

이 말에 따라 절을 지으려던 찰나에 당의 군대가 갑자기 밀려오자, 채색 비단으로 급히 임시 절을 짓고 짚으로는 5방의 신상을 만들어 유가명승 12명과 문두루비법을 쓰니 몰려오던 당나라군의 배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일어나 모두 가라앉게 됐다. 이 후 5년 만에 사천왕사는 건립됐다.

사천왕사 뒤에는 선덕여왕의 능이 있다. 선덕여왕의 유명한 세 가지 유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죽음에 관한 예언이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내가 죽은 뒤 도리천에 장사를 지내라"라고 기록돼 있다.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낭산의 남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천왕사 건너편에는 망덕사라는 절터가 있다. 당고종이 신라에 술법을 쓰는 자가 있어 당의 군대가 무너진 것을 의심해 예부시랑 악붕귀를 보내 알아보려고 했으나, 신라는 다른 절을 지어놓고 사신을 맞았다. 신라는 황금 1000냥을 뇌물로 주어 무마시켰다. 그 뒤 당나라 사신은 "신라가 천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장수를 기원할 뿐 이었습니다"라고 고했다. 당의 사신의 말에 따라 이 절을 망덕사(望德寺)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여러 전설을 담고 있는 사천왕사지는 현재 황량한 폐사지로 남았다. 절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부족해 현재는 그 절터가 반으로 동강나 있다. 일제강점기에 동해 남부선이 절터를 갈라놓았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호국정신의 맥을 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당초문양의 와당과 사천왕의 모습을 세긴 전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틀로 찍어내어 표면에 갈색의 유약을 입혀 구운 것이다. 현재 완전한 모양은 없지만, 이들 조각을 맞추어 분류하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팔부중(八部衆)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사천왕을 새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천왕상이 악귀를 밟고 서 있는데 사천왕사지의 사천왕상은 특이하게 악귀를 깔고 앉은 좌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복식은 중국식이며, 인체 및 갑옷의 표현이 아주 사실적으로 조각돼있다. 사천왕사의 목조탑 초층 탑신의 네 면을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고의 조각가였던 양지(良志)스님이 만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전은 사천왕사의 중요한 출토 유물이다. 사실적인 조각과 역동감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사천왕사지의 화려한 과거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기원을 함께한 밀교신앙은 다양한 신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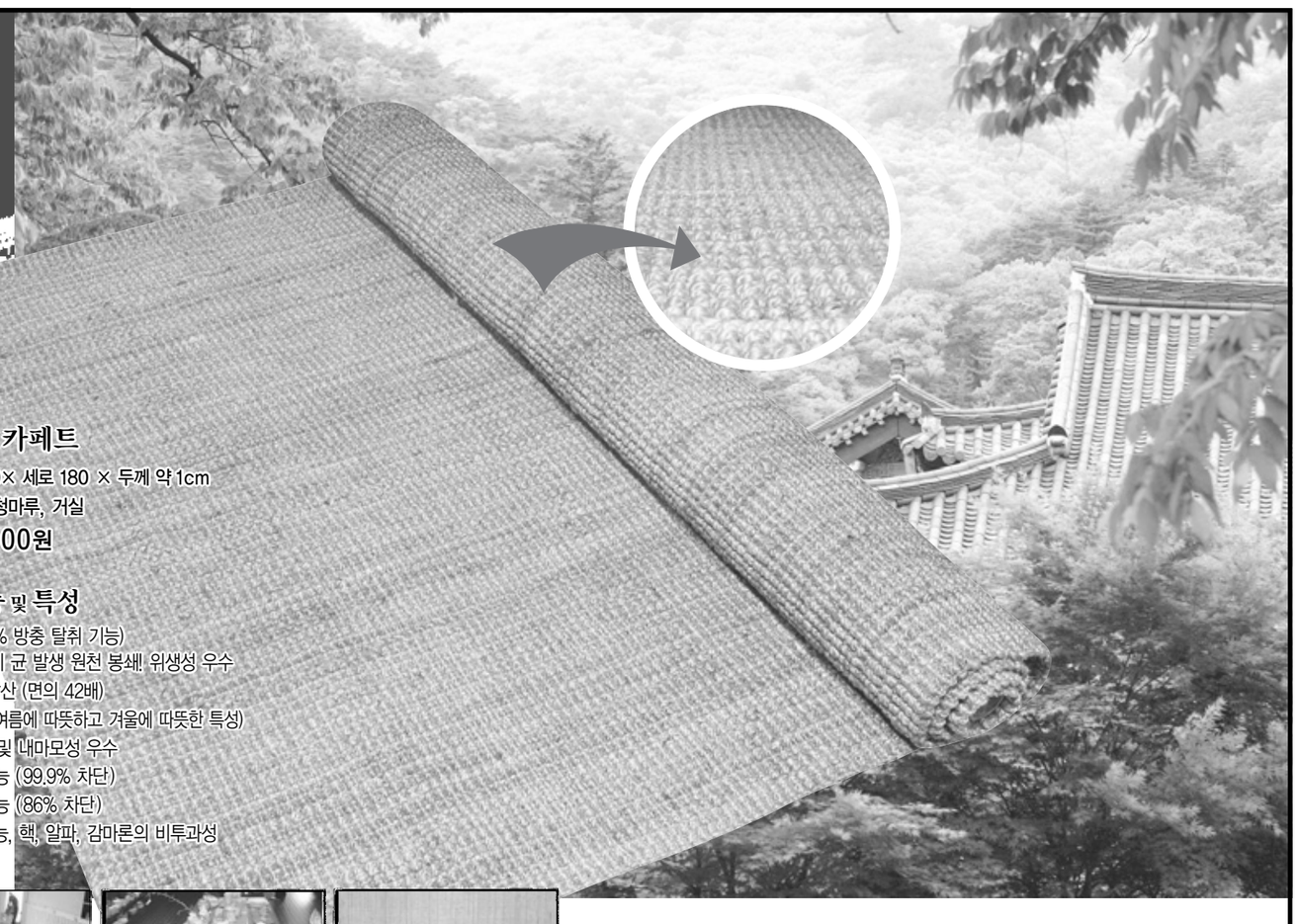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양평 단월 펜션수련원 무료 개방

▷대상: 신행단체,일반불자단체
▷황토목조 건축으로 된
펜션 수료원을 무료개방합니다.
▷1일 1단체 5명이상 사용가능
▷정기 사용도 가능
예약요망 010-4562-1081
불교반야원 양평 수련원장 무각 합장

종법황제 추대, 각 장관 초빙

▶종법황제추대자격 : 종무청, 황실
대외적으로 육성운영 능력자.
▶각 장관 초빙 – 종무청 대외적으로
종무정책 육성운영 능력자.
자세한 것은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문화 종무청 (승인된 종무자치기구)
조직위원 법광
011-412-8040

요양 보호사를 모십니다

▶ 근무조건 : 주야간 2교대, 주 5일 근무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식사제공
▶근무처 :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번지 붓다마을
▶연락처 : 02)3156-7511
010-9894-7500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염 불 과 역 학

1달 속성 완성
승려가 1대1 개인지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서울)
011-716-3811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육임통변 및 실전사주 명리강의
031)666-7732
011-472-5928
청운사 경담

백가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백병산, 사계절 풍광이수려하고 포근하며 남한강 자락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맑은 공기와삼림욕을 만끽하며 달마대사의 수련법인 기공참선을 통한 심신단련과기도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산사체험을 권장합니다.

수련 031)772-2020
문의 010-4641-5474
대웅사(경기 양평) 주지 일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65세,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2068-0081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연세가 있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 삼척
010-9416-7743

50대 비구승 입니다. 각종 불교예식, 의식 다합니다. 연락주세요.

010-2861-3569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 가야한다.
– 법구경 –
영가천도도량 약천사 협찬 02)3391-8523

양도공고

법원 등기된
법인 종단양도
법인 불교단체양도
011-412-8040
법광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아주 특수한 기도법

☎ 032)664-0048 / 011-741-0867

법회안내 (수행의 나침반) 강의

전불심법 자정수행 가지방편 개오도량
▶ 불교중요경론 핵심을 선별하여 강의
▶ 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스님,전법사 및 사부대중
▶ 수행의 나락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부대중
불교를 알고싶은 사람, 수행을 해보고 싶은사람은 오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7~10시. 청지사도량 수행은 야란야처
불음청지사 02)963-6345. 011-334-2507 정묵 합장

공양주 보살님, 종무소 보살님(pc,운전가능자) 모십니다

▷ 경남 울주군 보덕사
052)264-5471
011-368-3882

대작불사에 동참하실 주지스님과 공양주보살님, 종무소 사무장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1577-4755

영가와의 대화 기도법

영통주문, 영통부적
기업은행010-3754-0023장택근
010-3754-00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79-0024

역 학 개 인 지 도

누구나 쉽게 한달이면 마스트 해드립니다
모든 비법도 가르켜 드립니다. 바로 쓰실수 있도록지도함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장
운세상담 사주. 신생아작명. 궁합 택일 . 기치료. 빙의
천도재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서울전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삼선교)6번출구뒤 구룡암(활산선원)
예약상담 02(6081-9999) 송금후 전화상담가능
H. P : 010-6436-9888 선원장 혜자스님 합장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의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양파엑기스 판매 (효능)

혈당낮춤, 거담, 발한, 이뇨, 혈액순환촉진, 해독, 소화촉진, 해열, 관상동맥확장, 콜레스테롤상승억제, 항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병, 괴혈병, 신경질, 신체허약, 기관지염, 코감기, 피부병, 궤양성피부염, 발모촉진, 장염, 감기, 빈혈, 후두염, 죽상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천식, 기침, 비타민결핍증, 궤양, 부인질병, 설사, 변비, 동맥경화, 고지혈증, 대장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1박스(50포) 가격 3만5천원 / 4박스정도 복용효험확실 특별보급가 12만원
http://cafe.daum.net/jijangsw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人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고불대학원 염불의식 법회

각종 제의식(49재, 천도재)등 법주 위주의 실제행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일반 불공의식 포함) 속성완성 지도합니다.
* 1:1 화상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 기간 : 12주 – 24주 (습득 열정에 따라 단기 수료가능)
• 일시 : 불기 2555년 6월 30일 (목요일) 오후 13~17시
• 일반 : 수강료 월 5만원
• 문의 : 02)957-9882. 010-7387-2833
• 강사 : 화엄벽력
대한불교 전법도량 용화사 고불대학원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원다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6월 29일 (수) 오후 2시
7월 6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 옆

www.kyksb.co.kr
승복 · 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초파일 맞이 기념행사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가액 : 2억 5천
- 납골장 1500기 시설완공

- 위치 : 충남
- 법당 : 22평(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 9천

- 위치 : 마산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선원 및 토굴 (밀양)

- 총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포함)
- 법당 및 용왕, 산신, 요사
- 심산유곡, 선방자리 최고
- 가액: 4억 5천만원

울산 웅촌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미남로타리에서 우장춘로쪽 350m위치한 왕복 4차선 옆 평지에 있습니다.
- 2층으로 된 복층건물로서 지난해 목조법당 및 신조성 3존부처님을 모시고 금년초에 단청을 마무리한 깔끔한 새절입니다.
- 방6칸과 종무실 등 공간이 넓으며 금년 4.8행사시 연등 500여개 접수 법당에 달려있고, 인등 500개 중 230개가 접수되어 시민선방 및 기도처로 최적지 입니다.
- 절에 붙어있는 주차장 공터를 전용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 양도든 전,월세든 가액은 보시고 차후 결정하십시오.

스님직통 011-564-4822

※ 소개업자 및 중개인 사절합니다.

부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가람터 추천

당사가 보유중인 전원주택지, 별장지 중 지세에 밝은 큰 스님이 특별히 절터나 기도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추천한 다음의 토지를 불자 사부대중께 우선 양도합니다. 공통적으로 남향, 뒤로는 소나무 숲, 앞으로는 탁트인 경관, 포장도로를 접하고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1. 경남 밀양시 상동면 1,300평 토목공사 완료 평당 27만원
2. 골기와 한옥별장 • 암자, 대지 150평, 건평 40평 부산 청룡동 법어사 옆 5억 3천만원
3. 경남 양산시 원동면 560평 택지조성 완료 3백년생소나무숲 평당 60만원
4. 경남 양산시 원동면 290평 택지조성 완료 평당 60만원
5. 경남 창녕군 길곡면 1,200평 낙동강 내려보임 평당 20만원
6. 경남 하동군 청암면 650평 토목공사 완료 큰계곡, 평당 38만원
7. 경남 사천시 곤양면 2만 2천평 임야호수가, 관리지역 약 5천평, 소나무숲 약 3천평 평당 2만

진주 혁신도시과 하동항 조선단지 중간

청산전원주택 대표 중산 010-3872-03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나주시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3평반, CC카메라 시설
- 사찰 주변 계곡 물흐름
- 20년생 대봉나무 41일주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1호선 국도 8분
- 가액 5억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6375-01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임야 14000평, 법당(조립식) 15평
- 와벽돌요사채 65평, • 세면장, 화장실 10평
- 부속건물 110평허가남
- 2000여평대지로 전환된 상태, 청송 군위 경계선에 보현산을 마주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2억5천만원

033)563-8007/011-9560-6437
010-3918-0333

단정하게 꾸며진 포교당

- 위치 : 대구시 서구 비산동 (서문시장2지구근교)
- 2층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처음으로 도심 포교에 원력갖고 개원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 포교및 운영기간이 충분함
- 보증금2백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3)526-0108
010-9121-7114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50평, 건평 30평
- 법당, 접견실1, 방3, 부엌2개
- 총액: 1억 6천 5백만원 (6천5백융자)

010-4908-25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천구 신월동 곰달래길
- 4층중 2층 사용
- 현재 운영중 (뜸, 대체의학 , 상담)위주로 하실분
- 삼존불,탱화,에어컨 구비되어 있음
- 시설비 無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6425-3885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8천만원됩니다)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1,2번출구에서 1분거리
- 35평정도,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70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472-7572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600평, 임법당 6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방 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야동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모든 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가액: 총 합계 3천8백만원

070-4127-3579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안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철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임법당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평수147평,실사용평수200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집기일체 포함

010-8751-38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방어진
- 평수 : 30평
- 전, 월세 가능
- 가액: 답사 후 절충

017-849-36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토 굴 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계곡 청정지역 금강상류 도보로 15분거리
- 답 1,000평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
- 마을 거치지않음
- 전기, 지하수 시설 되어 있음
- 가액: 평당 5만5천원

010-4526-9588

납 골 공 원

- 위치 : 전남 장성
- 면적 : 9500평
- 법당 27평, 요사 29평
- 납골허가기수 15,000기
- 가액 : 20억

062)431-8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건물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양도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총 2천평
- 현재 불사중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81-15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 평수 100평
- 큰방1, 작은방, 법당, 산신각, 주방, 욕실
- 사찰: 삭월세일경우 - 10달 150만원
- 옆건물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뒷산에 밭도 있음 전부 양도시 5천5백만원(가격조절)

011-9370-7513
054)632-7513 밤9시이후

사찰(급)안내

- 강원도 강릉시 사천 해수욕장뒤 (낮은동산숲속) 최고의 위치 큰 불사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약 200여평, 야채밭 약 80여평 (1년도지 20만원)
- 법당 외 방4개, 화장실 2, 목욕탕1
-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 양도가액: 4500만원(절충불가)

010-3691-39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 평수 : 36평 (2층)
- 부처님 4분, 후불, 신중탱화
- 방2, 주방, 법당, 샤워실, 베란다
- 시설완비,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208-774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 법당(목조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슬라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 8억(조절가능)

010-3822-45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진구 자양동
- 2층 27평
- 방사, 불단, 후원, 화장실 (내부)
- 1억 4천만원 (전세)
- 월세도 가능
- 시설비 2천만원

010-4830-3082
010-8775-115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납골 500기
- 가액 : 17억

- 위치 : 강원
- 부지 : 5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0평
- 가액 : 3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010-2637-6144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70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0-1703-277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 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 평수 100평
- 큰방1, 작은방, 법당, 산신각, 주방, 욕실
- 사찰: 삭월세일경우 - 10달 150만원
- 옆건물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뒷산에 밭도 있음 전부 양도시 5천5백만원(가격조절)

011-9370-7513
054)632-7513 밤9시이후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 고성 IC 10분거리
- 조립식 법당 23평, 요사 11평, 산신당 5평, 스님방
- 총평수 168평 (실평수 300평)
- 20년된 사찰, 법당 앞까지 주차가능
- 가액: 9천만원 (절충가능)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0-4618-7063
010-7450-7011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만이천세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메인 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세상에 원래 라는 것은 없어! 너도 알잖아”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7)


삽화 · 김홍인

순간, 기분 좋게 말을 쓰다듬던 연금술사의 손길이 멈췄다. ‘설마?’ 이상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급히 지하실로 내려가 봤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다. 무니 일행의 가방은 물론 그 자신의 책장까지 드문드문 비어있었던 것이다. 연금술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서는데 무엇인가 발에 채였다. 마을에서 휴대용으로 쓰는 등이었다. 이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두 소년을 도왔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잠시 후, 다시 올라온 연금술사는 한참동안 무엇인가를 찾는 듯 집안 여기저기를 뒤졌다. 샅샅이 살폈지만 중요한 물건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허! 재밌는 녀석들이로군.”

그는 옆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었다. 열린 문 밖으로 칸타카도 이제 보이지 않았다. 술을 들이키는 연금술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다.

한편, 소년들은 덜 익은 옥수수 밭에 쭈그려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금 칸타카에게 모든 책을 실어 보낸 다음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발소리는 물론 숨소리마저 낮추고 뛰어다녀야 했다. 게다가 난다가 연금술사네 집에서 가지고 나온 책들까지 합쳐서 짐이 너무 많았다.

무니는 자신에 비해서 늘 지나치리만큼 바른 난다가 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쿠샹의 도서관’ 사건을 통해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번에 직접 보고 나니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래도 그런 책 욕심 때문에 연금술사의 지하실에서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단은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전엔 정말 ‘이제 들킬 일만 남았구나’ 싶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책장에서 책 몇 권을 급하게 뽑아 가방에 챙기는 난다를 보면서, 무니는 ‘한 대 때려줘야 정신을 차리려나.’라는 생각마저 했었다. 그러나 난다는 무니와 남카에게 가방과 짐들을 들려주고 난 다음 또 다시 책장에서 책을 빼기 시작했다. 태양과 달이 겹쳐지는 문양이 새겨져있는 가장 큰 책장이었다. 이번엔 뭐라도 한 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무니가 입을 여는 순간 가방 때문에 낑낑거리던 남카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봐. 책을 꺼내는 게 아니라 살짝 빼내기만 하는 거 같은데?”

남카의 말 대로였다. 얼핏 두서없이 보였지만 난다는 책을 한 권, 한 권 빼낼 때마다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위에서 뭔가가 확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니와 남카는 움찔했고, 난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그때 커다란 책장이 마치 문처럼 활짝 열렸다. 비밀 통로였다. 애초에 난다는 그 문양이 연금술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지혜의 ‘문’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다. 단지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전에서 그와 유사한 상징들을 찾아 책을 뒤적였고, 마침내 그 방법을 알아냈던 것이다. 열쇠는 바로 책 제목의 순서였다.

여전히 컴컴한 밭, 옥수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자 차가운 달빛이 세 소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난다가 남카에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제 집에 가 있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도 이제 떠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남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무니가 말했다.

“그 이야긴 아까 둘이서 끝냈잖아? 연금술사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사르나트의 바퀴도 찾아야 해. 그거 없이 이 마을을 떠날 순 없어.”

무니는 인상을 구겼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괜히 우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무니는 그저 어서 마을을 떠나고 싶었다. 이 마을이 맘에 들지 않았다. 마을을 감도는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한 어둠이 특히 그랬다. 남카의 말에 의하면 낮에도 밭을 가꾸기 위한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용이 여자 아이를 먹었다는 소문이 돈 이후로는 친구들과 놀아본 적도 없다고 말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촌장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촌장의 아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카는 그 말을 하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눈시울을 붉혔다. 남카에게 그저 다정한 이웃의 아저씨, 아줌마들이었던 그들의 변화는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 물론 공포는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한다. 그러나 무니가 싫다고 느낀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마을사람들 모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건 단순히 공포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잃었고, 의지가 사라진 자리에다 이기심을 키웠다. ‘자신들의 아이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상관없고, 다른 아이를 희생시키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이라니 최악이었다. 얼마 전부터 무니는 여행을 하면서 이런 식의 낯선 경험들을 할 때마다 놀라고 당황하는 대신,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었으며 자신이 다만 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낯선 경험의 종류도 질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그것이 어떤 커다란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것이 이제까지 몰랐던 진실이라면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했다. 무니는 난다와 함께 뛰놀던 마을을 떠올렸다. 남카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지냈을 것이다.

“근데 말이야. 아까부터 말했던 사르나트의 바퀴라는 거, 어떻게 생긴 거야.”

침묵을 깨고 남카가 입을 열었다. 난다는 의미나 기능은 말하지 않고, 생김새만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혹시….”

무니와 난다는 남카를 쳐다봤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그들에게 내밀었다.

“이거 아니야? 아까 연금술사네 집에서 주웠는데.”

난다는 깜짝 놀라며 남카가 건네는 바퀴를 받아들었다.

“아, 아. 훔친 건 아니야! 그냥 특이해 보여서 주웠는데, 갑자기 그 아궁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결국 가지고 나오게 됐을 뿐이라구.”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꺼니까.”

흐뭇해하는 난다를 보며 무니가 툭 내뱉듯 말했다.

“이제 수레바퀴도 찾았으니까 마을을 떠나면 되겠네. 어차피 그 연금술사라는 녀석도 가짜 같다며?”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

난다가 그럴 수는 없다는 듯 말했다.

“무니야. 지금 이 상태로 이 마을을 떠날 수는 없어. 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외면하고 떠날 수 없어. 여기 사람들, 지금 정상이 아니야.”

“원래 정상이 아닌가 보지.”

무니는 억지를 부렸다.

“세상에 원래 라는 건 없어! 너도 알잖아. 어쩐지 화가 난다구. 우리가 떠나면 남카는 또 어떻게 하냐?”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 마을이 용한테서 무사히 살아남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걸.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정말 죽을 각오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목적은 ‘검 조각을 모두 찾아 검을 완성하는 일’, 그것뿐이었다. 무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난다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유리 영감 이야길 꺼낸 것이다.

“할아버진 수리아의 검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 그 검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하셨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냥 우리가 이대로 여기서 도망쳐 버리면,”

그러나 난다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들이 기다렸지만, 지금 당장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어둡던 마을이 갑작스럽게 주황색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는데, 거기에서 희미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빛은 그 순간 굳어버린 세 소년의 얼굴 위에서 일렁거렸다.

“용은 보통 오후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

여전히 굳어있는 얼굴로 무니가 남카에게 물었다.

“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계획은 안 되겠고, 차선책으로 해야겠는데.”

난다가 말했다.

“차선책이 뭔데?”

“그건, 나도 잘 몰라.”

난다의 말에 무니와 남카 둘 다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난다는 “흠”하며 옥수수 밭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카에게 말했다.

“너네 집은 바로 저기잖아. 일단 들어가 있어. 우리가 지금 창고 쪽으로 가기엔 너무 늦 었고. 혹시라도 용이 다가오면 연금술사네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키는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 알았지? 거기라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곳이 어디지?”

“이번에도 사하라 지역인 것 같아.”

남카의 대답에 난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듯이 다시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일단 현재는 불길이 일어난 곳이 다행히 한 군데인 거 같으니까, 저쪽으로 최대한 우리 가 빨리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무니가 말했다.

“칸타카가 없는데 어떻게 이동하지?”

무니와 난다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때 남카가 먼저 방법을 제시했다.

“아! 우리 마을에 굉장히 빠른 말이 있어. 아마 마을 공동 마구간에 있을 거야. 원래는 너희가 갇혔던 곳에 있었지만. 아무튼! 내가 그 말을 이리로 가지고 올게.”

불자 정보

842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원룸임대
- 위치: 경기 여주 남한강변
- 원룸 10평
- 건강상 휴양하실분(보살님만)
- 가구 가전 일제 준비완료
- 몸만 오시면 됨
- 즉 입주 가
- 전세 1천만원

010-4342-1966

사찰안내
- 위치: 구미 근처 북삼읍
- 기도 도량으로써 전망이 좋음
- 총면적 2,900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주차장 넓음, 4차선 근접
- 가액: 2억 8천만원 . 전세도 가능

010-3131-109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지하철 1분거리
- 평수 약 20평
- 삼존불, 인등
- 가액: 8천 5백만원

010-3403-0052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유성
- 4층중 2층 45평
- 주거인구 많은 상업 특화 지역으로
- 역학 하시는 스님의 최고 요지
- 몸만 오시면 즉시 숙식 및 상담 법회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4086-495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지하철 1분거리
- 평수 약 20평
- 삼존불, 인등
- 가액: 8천 5백만원

010-3403-005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도심 포교원(급)안내

18년 역사 포교당

서울특별시 인근 신도시 (인구 30만)

서울역에서 전철로 35분 및 반포대교에서 자가용으로 35분거리

건평 총면적 101평

법당과 시민선방완비
주지실, 기도법사실, 종무소 별도

모든 살림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1천 5백만원

010-3474-005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⑪**

교룡(蛟龍)의 눈물


낙산사 원통보전 불단에 그려진 교룡의 모습.

일반적으로 사령(四靈)이라고 부르는 사신도(四神圖)는 청룡(青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은 사신사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호적인 역할을 하는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네 동물 가운데 주작은 때로는 봉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방향으로 동쪽을 상징하는 청룡의 실제 모습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룡은 때로는 창룡(蒼龍)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푸른색을 뜻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의 시문집인 〈추강집(秋江集)〉 제5권에 보면, 낙산사의 창건설화가 간략히 나온다.

"낙산사는 신라 승려 의상(義相)이 창건한 것이다. 절의 승려가 그 사적(事跡)을 전하기를 '의상이 관음보살의 친신(親身)을 해변 굴속에서 보았을 때에 관음보살이 친히 보주(寶珠)를 주었고, 용왕이 또 여의주(如意珠)를 바쳐서 의상이 두 개의 구슬을 받았다' 고 나온다."

동쪽을 담당하는 사신이 청룡이라면,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의상 대사에게 여의주를 바친 동해용왕과 동청룡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주는 책이 한 권 있다. 바로 유성룡의 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공을 세운 성리학자 김치관(金致寬)이 저술한 〈역락재집(亦樂齋集)〉이다. 이 책에서 '답동해부(踏東海賦)' 라는 시문에 보면, "동해는 교룡(蛟龍)의 집이요"라는 부분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사령(四靈)인 동청룡은 곧 동해용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동해용왕은 교룡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잘못 알려진 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룡이 이무기라는 설이다. 동해의 용왕인 교룡이 어찌 이무기이겠는가?

옛 기록에 의하면, 뱀이 500년을 살면 비늘이 생기고 거기에 다시 500년을 살면 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뿔이 돋는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교룡이 이무기라는 잘못된 사전적 정의는 모두 고쳐야 한다.

국문학사상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교산(蛟山) 허균(許筠)은 임진왜란 당시에 낙산사에 들어가 두보시집을 읽으며 삼년을 살다가 내려온다. 강릉 사천이 고향인 교산은 외가집이었던 애일당(愛日堂)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교산의 아버지인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초당(草堂) 허엽(許曄)은 둘째 부인인 강릉 김씨에게서 난설헌 허씨와 교산을 차례로 얻는데, 허엽의 장인은 애일당에 동해용왕인 교룡의 기운이 서려있는 것을 보고, 초당이 그 곳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나 결국은 그 곳에서 교산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됐다.

허균은 〈애일당기(愛日堂記)〉에 그의 아호에 대해, "옛날 큰 바위와 냇물이 있었는데, 바위가 무너질 때 늙은 교룡이 그 밑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가정 신유년(1501년)에 바위를 깨뜨리고 떠나가는 바람에 두동강이 나서 구멍이 뚫린 문처럼 되어 후세인들이 교문암(蛟門岩)이라 불렀다" 한다. 교산은 자신이 교룡의 기운을 타고 난 것을 알고 지은 호(號)라 하겠다. 지금도 강릉 사천 바닷가에는 커다란 교문암 바위가 바닷가를 우람하게 장식하고 있다.

동청룡 · 동해용왕 · 교룡은 모두 하나
교룡이 이무기라는 설은 사실과 달라

교룡인 동청룡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교룡은 문헌에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담은 도상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옛 문헌에 의하면, "몸은 푸른 색이고, 머리엔 뿔이 없고 대신 흰 혹이 솟아나 있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해 단청장을 불러 그 모습을 처음으로 재현했고 그 그림을 강릉 초당동에 있는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에 기증한 적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 염불하다가 파직을 여러 번 당한 교산은 형을 당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교산의 극락왕생을 빌며, 내생에는 부디 품은 뜻을 다 펼치기를 기원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자연은 내가 없다

향하나 사르며 나무 밑에 앉는다.
바람과 나무와 새가 하나 되고
꽃과 나비가 하나 된 듯
나도 하나이고 싶다.

내가 無가 되고 일체가 無가 될 때
비로서 자연이 되는 걸까.
소리 소리에 귀 기울이며 눈을 감는다.
자연은 내가 없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⑮ 조선 기암법견 선사의 '염불관(念佛觀)'**

무량한 공이 극락세계 이뤄

極樂堂前滿月容 (극락당전만월용)
玉毫金相照虛空 (옥호금상조허공)
若能一念稱名號 (약능일념칭명호)
頃刻圓成無量功 (경각원성무량공)

극락전 앞 보름달의 모습이여
옥호의 금빛 허공을 비추네.
일념으로 명호를 부를 수 있다면
잠깐 새 무량한 공 원만히 이루리.

극락전의 주련(柱聯)으로 많이 쓰여 지고 있는 위 시는 기암법견 스님의 작이다. 조선시대는 극심한 폐불이 단행됐으나 스님들의 문집이 가장 많이 간행됐던 시기이기도 했다. 또, 경론의 출판과 각종 산림법회를 통한 왕성한 불교 흥포도 꾸준히 전개됐다. 이 시기 수행풍토로는 선교겸수(禪敎兼修), 혹은 참선(參禪), 간경(看經), 염불(念佛)을 두루 복합적으로 수행한 삼문수업(三門修業)이 성행했다.

일찍이 선가(禪家)에서는 마음이 곧 정토요, 자성이 곧 미타인 '유심정토 자성미타(唯心淨土 自性彌陀)' 를 강조했다. 그러나 서산 대사가 자성정토만을 주장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근기를 위해 서방정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난 이후 만일회 등 염불결사를 통한 삼문수업이 지속됐다. 위의 시 또한 삼문수행 가운데 염불관을 보인 내용이다.

극락당은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극락세계를 뜻한다. 아마타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발하는 금색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모양이 마치 꽉 찬 보름달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러한 부처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를 수 있다면 경각에 무량한 공을 이룬다고 스님은 확신한다.

일념은 곧 십념이요 십념은 곧 무량겁으로 이어지는 화엄의 사상이다. 무량한 공이란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성미타요 정토사상이 결합된 염불선인 것이다. 이러한 염불선의 수행풍토가 당시 숭유억불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교단유지의 한 방법으로 시행되기도 했을 것이지만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일생을 진지하게 수행한 또 하나의 수행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대행 스님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근본을 발견해야

생활 속에서의 참선에 대해

문) 스님께서는 생활 참선을 특히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에 다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앉아서 좌선도 해 보고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물질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 50%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인간이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불이다 부처다 이러기 이전에 말입니다. 전자와 전자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죠?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전자와 전자가 갖다 대는 게 부(父)라면, 불이 들어오는 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지금 수십억 개의 그 의식과 모습,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위 공장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공장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직원이라고 해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한마음입니다.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소장 공장, 대장 공장, 방광 공장, 이 공장이 하도 많아서 외울 수도 없습니다. 이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을 부리는 나나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사장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결국은 그 나의, 내가 일하는 나 자체의 집일 수도 있고, 절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마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사는 데 관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는 건 봤지만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지 몸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크나큰 우주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 없는 그릇에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담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몰라서 그대로 '내가 걸었지. 내가 하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다가 몸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근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바로 이 몸속에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의식이 말입니다. 그 의식이 많은 대로 여러분은 망상이 나온다, 뭐가 한다 그러죠?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공했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나오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먹는 거나, 고정된 게 있습디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발자취 남기지 않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발자취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어저께 이럭하고 했는데 아, 고놈이 고럴 수 있어?' 하고, 뒷발자취를 그냥 붙들고 늘어집니다. 또 '그것이 어저께 잘됐는데, 그놈의 거.' 하고, '아이구, 그놈의 게 다 없어졌어!' 그러고선 그냥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어딘가로 돌아가도 이 지금 여러분은 버스 안에서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숙명통, 그것은 비유하건대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 악업 선업은 내 몸뚱이 속에서 그 의식들에 의해서 그냥 나옵니다. 자기가 나올 때 아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듯이, 영화배우들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일러 드리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입력을 되해라 이겁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땅 위에서 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지 딴 데 짚고 일어나지 않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건 그 자리에다 맡겨 놔야 앞서 입력된 게 무너지죠. 연방 넣으면 넣는 대로 앞서 넣은 게 무너지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항상 그릇은 비어 있는 거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 인과성이 모두, 애고성이나 오간지옥성,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져야 새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무너지질 않고 그냥 그저 묵은 데서 나오듯 연방 나오니 여러분은 그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모든 것을 녹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주인공에다가 놓고 돌아가야 된다. 안되는 것은 '거기서 안되는 것도 나오는 거니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지. 거기서밖엔 할 수 없어!' 하고 놓는 거지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다 맡겨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즉, 참선입니다. 앉아서 좌선이다 입선이다 또는 와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합해서 생활 자체가 참선입니다. 여러분, 참선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천칠백 공안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만사가 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마가 발이 많은데 "저거 발이 많아도 하나도 안 걸려?" 하면 그리마가 가다가 우뚝 서고 걸리듯이, 그냥 걸리지 않고 항상 하다가도 그저 누가 말만 하면 걸려요. 이 참선이라는 이 자체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단 말입니다. 심어서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참선인가 뭐 좌선인가 한다고, 또는 화두를 받았다고, 이거는 과거의 내 씨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그 씨는 화해서 싹이 돼서 수박이 열려서 수박이 익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수박씨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 바깥에 자기 나기 이전에 가서 찾으려고 앨 쓴다 이 소립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발달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벗어난대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산(生) 사람 개개인이 다 주어져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인간이란 99%를 바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의 백지장 사이를 몰라서 모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좌선 해 나가시는 거, 그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렇게 얍상해서 앉아서 좌선을 하면 '앉아서 좌선을 내가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뜻으로 벌써 '어휴, 내가 이거 할 시간인데.' 하고 합니다. 다 했으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고 인제 합니다. 그러면 좌선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좌선 안 할 땐 안 돌아가나요?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도루묵쟁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한 철 사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답게 삽시다

☞ 29면에서 계속

이. 그러니 앉는다는 생각도 선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못하는 거, 하는 거 따로 없다. 행선 해도 행선이요, 좌선 해도 좌선이요, 입선 해도 입선이요, 드러누워서도 와선이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살아 보시죠? 그런데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전체가 참선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 불당에만 가야만이 또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부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부처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아서 학교에 보내듯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싶다면 절에 자주 나가서 공부해 보세요.

마음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문) 부처님께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아프기도 하고 집안에 분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 것인지요?

답)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되다가 또 안됩니다."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거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은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주인공을 찾으니까 어느 만큼은 되더니 또 안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는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한 것입니다. 왜 안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물러서서 다시 굴려 놓으면 빠지지 않을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길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것은 공(空)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얘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네? 먼지 앉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났다, 모두가 '내가' 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그걸 짐작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반시도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가져오는 그 재료를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자꾸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서 자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 것이다. 이끌어 주는 재료가 주어진 거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한테다 맡겨 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뭣고?' 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다면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물러서지 마시고 진짜로 주인공을 믿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낙태하고 나면 죄의식을 느껴 괴롭습니다

문)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 사정상 낙태를 안 할 수도 없어서 하기는 하고 있으나 한 번 하고 나면 살인을 한 것 같아 큰 죄의식을 느끼며 괴로워집니다. 그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것도 여러 가지죠.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기에 낙태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에 죄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의 배신으로써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여자가 배신을 하기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돈벌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린애 낳고 살자 해서 낙태하는 수도 있고요. 여자애를 많이 낳았지만 남자애가 영 생기질 않기 때문에 자꾸 낙태하는 수가 많고요. 여러 가지가지겠지요.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런데 이 공부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낙태하는 숫자를 생각해서 그냥 그걸 정성을 들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에 영을 만 개를 갖다가 넣으면 몇 개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 됐소!" 했습니다. 그전에는 건건이 일이 터져 가지고는 문도 닫게 되고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건건이 그랬습니다마는 이 공부를 그네들이 하고부터는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 때에 따라서,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 그때는 물러나야 빠져 죽지 않죠?
> 그러니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 한 것입니다.
>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딱 주어져서, 딱 70살이고 80살이고 주어져서 인제 잉태가 됩니다. 그러는데 중간에서 그냥 탁 치워버리니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70살까지 살 나이라면 70살까지 허공에서 돌아야만 됩니다, 기한까지는.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는 바로 그냥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돼 버려도 두드러지지 않죠? 빗물이 바다로 수 방울, 수많은 방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의 물에다가 이렇게 부은들 그냥 한 그릇이죠? 그와 같이 그렇게 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또 이 주인공에 의해서 줄을 놔서 내보낸단 말입니다, 좀 더 좋은 데로. '그렇게 악행스럽게, 그렇게 죽여야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던 그 가정에 다시금 태어나지 말라.' 하고 한번 염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자연스럽고 쉽죠?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갈 때는 검열이 심하고 못 들어가죠. 그와 같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일임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데는 이 블랙홀이라는 이 핵심적인 거기 문을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는 언감생심 거기를 어떻게 드나듭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 직원으로서 뱃지라도 얻어야 거길 드나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생의 조건은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청와대 아닌 청와대를 말합니다.

그 블랙홀, 핵심적인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차원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살고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한다면 그 죽은 아이도 오히려 천도가 되고, 외려 천도를 시켜 줬으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더 잘되고, 산부인과 일은 자꾸 걸리기만 하다가 아주 걸리지도 않고 잘돼 나가고. 그럴 수밖엔 없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데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더 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상세히 얘기해 드리다 보니까 좀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떡하든지 여러분이 편리하고 되는 조건으로 자꾸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안 된다, 뭐 죄가 있어서, 너는 무슨 뭐 업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불바퀴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으면 타 버리는 거와 같고, 자력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 뭡니까? 자석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쪼끄만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큰 데 갖다 붙으면 그냥 하나, 하납니다. 하나로 돼 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반면에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급박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완화될 수도 있고, 다복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극치적으로 그냥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스럽게들 못하는지 나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문)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구업을 많이 짓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걸 마치 확실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도 아주 쉽게 저지르고 이러쿵저러쿵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불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참 부끄러워집니다. 한 말씀 따끔하게 일러주십시오.

답) 사람이 사는 생각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큽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남이 "너 이놈, 내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인공만, '내가 있으니깐 찔러 죽이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칼도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말조심 하고 한 철 사는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사람답게 삽시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바로 참선이며 나를 발견하는 바로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전지포함)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 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불자 세상보기

FTA 발효, 최고를 준비할 때



이학노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거리에 늘고 있는 벤츠(Benz), 비엠더블유(BMW), 아우디(Audi) 등 자동차,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마고(Margot), 보르도(Bordeaux) 와인 등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야기이다. 공식적인 FTA는 없었지만 EU는 이미 우리와 빠른 속도로 경제통합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제통합은 무역을 의미하고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U는 세계 최대시장이고 우리의 제2위의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도 미국, 일본을 능가한 가장 큰 손이다.

7월부로 한 · EU FTA가 발효되었다. FTA의 효과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유럽 자동차, 더 많은 프랑스산 포도주, 더 많은 유럽산 농산물과 의약품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 주력수출품의 관세 인하로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서 더 많은 현대차, 삼성 및 LG LCD TV,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과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 · EU FTA는 칠레, 싱가폴, EFTA 등에 이어 우리나라로서는 6번째로 시행하는 FTA이다. 다른 FTA 파트너와 달리 EU는 27개 국가가 회원국인 거대한 경제공동체이다. 이들은 이미 다단계의 경제통합의 우여곡절을 겪은 국가들이다. 1952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ECSC)를 결성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상품, 자본, 노동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통화동맹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유럽통화체제(EMS, ERM)를 거쳐 2002년부터 단일통화인 EURO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구 소련 체제에 있던 동구국가들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이데올로기의 상처를 봉합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EU는 우리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언어와 정부가 다른 27개 회원국이 평화를 위한 대통합을 진전시키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분단된 국토의 통일에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우리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럽은 세계 최강의 부품소재 국가인 독일을 비롯해서 기초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북구 등 저력이 있는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EU와의 FTA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과 동시에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 상품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 안방에서 유럽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

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EU 국가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적절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EU는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로서 단일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는 등 비교적 시장 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 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제가 아닌 자율발급제를 택하고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을 하여야 한다. 즉, EU 지역으로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을 받아야 평균 5%에 달하는 관세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11. 6월말 현재 4300개에 달하는 인증대상 기업 중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00개에 불과하여 인증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루바삐 요건을 갖추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U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일 부품소재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U와의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제도가 더욱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내부에서 통용되었던 관행이 유럽이라는 강력한 감시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시스템과 관행에서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최고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지혜가 된 어리석음



박경희
프러덕션 인트라미디어 대표

현자는 사물의 이치를 척 보면 알아 고통을 미리 피해간다지만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어리석은 중생들은 늘 당해봐야 그 고통 속에서 겨우 지혜 하나 터득한다고 한다. 나 또한 어리석은 중생 중에 한 사람이다보니 내 삶의 지혜는 늘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올해로 오십을 맞으면서 그나마도 나이에 감사함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생생한 지혜들이 모여서 어설픈 삶이나마 그런대로 오늘을 다소나마 편케하니 젊은 시절의 좌충우돌 어리석은 실수들은 이제 웃으면서 떠올리는 빛고은 추억이 되어버렸다.

반복된 어리석음을 딛고 얻은 안쓰러운 지혜 중 하나가 나만의 방식으로 더위를 식히는 법이다. 더워서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한다. 이때 호흡은 들숨:날숨의 비율을 기본 1:2의 비율로 조절하고 그 호흡이 안정되면 다시 날숨의 길이를 보다 길게한다. 많게는 1: 5정도까지 내보내면서 숨의 길이를 길고 곱게 조절해나간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호흡에 집중하면서 일체 생각이 절로 놓아진다. 바쁘다, 가야한다, 해야한다, 뭐든 한다는 생각을 놓고 안정된 긴 호흡으로 몸을 이완 시키다보면 어느새 더위는 사라진다. 몸 안에 감춰둔 한기가 솟아나와 어깨를 오싹하게하고 등줄기에 흐르던 땀을 식힌다. 이쯤되면 한낮의 땡볕도 그저 따뜻한 솜이불 같다. 자기 최면의 상태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몸을 도구화하여 더운 외부 공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몸안에서 돌려 나만의 최적 온도를 만들어낸다는 그럴듯한 이론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나의 여름은 호흡을 통해 짧은 들숨과 상대적으로 긴 날숨 몇 번으로 더위를 잊게하니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여름나기가 그리 어렵지않다.

이 최고의 지혜는 고등학교 때 터득한 것이다. 지각대장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꼼지락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약속시간 앞에 늘 서두르게 되고 급한 마음에 연일 뛰면서 어느날 힘들지 않고 숨차지않게 뛰는 법을 터득하게됐다. 어리석은 습관이나마 이제는 생활의 지혜가 되어 나를 편케하니 세상에 좋다 나쁘다 탓할 것은 별로 없는 듯도 싶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습관적으로 나는 늘 등교시간이 임박해서야 집을 나섰다. 그 과보로 걷는 것도 힘든 언덕을 뛰어야만 겨우 지각을 면하는 고통을 매일같이 반복해야만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조금만 일찍 나설 걸…" 뛰는 순간 매일같이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돌아서면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다. 언덕을 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습관을 고치느니 차라리 뛰면서도 숨차지 않는 법을 찾자는데 생각이 모아졌다. 안되는 걸 애써 하느라 매일 자책하고 우울해하며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놓고 그런 내가 어떻게하면 몸과 맘이 편해질까를 찾아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니 그때부터는 뛰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고 뛰는 자세까지 연구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된 배경에는 당시 한창 유행했던 크리슈나무르티, 라즈니쉬 같은 명상가들의 책들이 있었다. '몸이 수행도구요, 삶은 방편'이라는 메시지와 그들이 가르쳐주는 호흡법에서 착안하여 뛰는 가운데 호흡을 맞춰가는 나만의 리듬을 개발하다보니 언덕을 뛰면서도 숨차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게 됐다. 남들은 앓느니 죽는다고 조금 일찍 나서면 될 일 앞에 무슨 뛰는 법, 호흡법까지 연구해가며 지각 습관을 못 고치는가 어이없게 웃을 일이다. 하지만 지각습관 앞에 뛰는 고통을 늘상 당하고도 고치지 못하는 나에게는 정말 요긴한 발견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대학시절부터 요가 등 호흡과 관련된 여러가지 수행법이나 마음의 문제를 연구하는 명상서 등을 탐독하며 결국 참선에까지 관심을 이어와 불자로서 오늘을 살아간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생 악재가 호재를 만든 웃지 못할 대사건이기도하다. 돌아보면 내가 주먹구구 좌충우돌하며 내 몸을 갖고 실험했던 학창시절의 경험은 나름의 마음훈련이 아니었나 싶다. 그후 불교공부를 하면서 그때했던 호흡법의 요체는 바로 마음공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호흡은 방편삼아 이번 여름도 더위를 식히는 나만의 여름나기를 하고 있으니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마음을 이기지는 못하는 법'이라는 말도 실감이 된다.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서늘해진다[心靜自然涼]'는 중국의 옛 말 조차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치게된다. 어리석음을 딛고 얻은 알량한 지혜지만 지난 30여 년 내 한 몸을 실험도구로 더위 앞에 재밌는 실험을 하듯 살아냈으니 이번 여름 또한 그리하며 또 한번의 마음공부를 해 볼 요량이다.

社說

짝퉁 석굴암 건립 안된다

경주시가 석굴암의 모형인 제2 석굴암 건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2 석굴암은 2001년 불국사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던 중 거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었다. 이 사업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굴암 인근에 관람객을 위한 가짜 석굴암과 전시관 등을 만든다고 한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최광식 문화재청장의 경주 방문을 기점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중이다.

현재 석굴암은 보존 등을 이유로 관람이 제한적이다. 경주시는 제2 석굴암을 건립해 석굴암 보존과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된 석굴암을 보존하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진품을 지키자고 석굴암을 찾은 이들에게 가품을 보여서는 안된다. 문화재는 진품일 때 가치가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석굴암을 지척에 둔 채 가품을 만들어 보이는 것은 석굴암을 찾은 이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석굴암은 문화재이기에 앞서 불자들에게는 성보이다. 예경의 대상이다. 혹시라도 석굴암 보존을 핑계로 관람객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이나 올리려 한다면 불교에 대한 모독이다.

제2 석굴암 건립 발상은 2011년 한국불교의 수준을 극명히 드러낸 예이다. 창조해 낼 자신감이 없다해서 이미 검증된 것만 재탕하려 들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석굴암 보존이 문제라면 보수에 더 힘써야 한다. 짝퉁 사업을 추진 중인 불국사와 경주시는 멀리 내다봐야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2 석굴암 건립을 반대해야 한다. 모조품을 만들어 진품을 숨기는 것은 민족문화수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불자연예인 더 필요하다

불자 리처드 기어가 한국을 다녀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방한 내내 언론의 스폿라이트를 받았다. 리처드 기어의 자취대로 대중의 시선이 옮아갔다. 사진전 '순례의 길'이 열리는 서울 예술의전당에는 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게는 어떤 큰 스님의 법회나 법문보다도 대중을 모으는 큰 힘이 있었다.

리차드 기어의 통도사 · 동화사 방문이 취소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가 한국불교총본산인 조계사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한국 불교는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 스타마케팅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연예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약보다 효과 좋은 명약이라고 말한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이면 뒤의 고독을 잘 다스리는데 종교가 큰 몫을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종교를 갖고 산다. 하지만 불자연예인은 적다.

이번 리차드 기어의 방한을 통해 우리는 불자연예인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 그가 방한 일정을 통해 보여준 종교적 정체성과 동경심을 다른 불자연예인들로 이어가야한다. 불자연예인이 적다면 왜 적은지 이유부터 차근히 따져봐야한다. 불자연예인을 발굴 ·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그들을 전법포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불교의 명암을 뒤바꿀 힘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이제 천기를 누설한다!!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 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痈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등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에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키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급수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데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서울에 까서 어머님께 권유 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 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시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